현대불교

제 78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5월 5일 수요일 (음력 3월 22일 · 불기 2554년 · 주간)





캄보디아에 우물 천개 더

지구촌공생회, 초등학교 2곳 설립 등 사업 방향 발표

지구촌공생회는 2012년까지 캄보디아에 우물 1000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캄보디아 따께오 주의 뜨로빼양 뜨라우 · 정콧 2곳에 초등학교를 설립한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4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 식수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20~26일 캄보디아를 방문한 월주 스님과 사무차장 화평 스님 등이 현지 지부의 사업보고를 받고 추진 사업 등을 조율한 결과이다.

새로 설립되는 초등학교 2곳은 2010년 11월 완공 · 개교한다. 뜨로빼양 뜨라우에 지어지는 학교는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의 지원을 받아 '금산초등학교'라는 교명으로 개교한다. 금산사는 금산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1억3000만원을 지구촌공생회에 지원했다. 정콧의 초등학교 건립기금은 한 재미교포의 유지에 따라 유가족이 1억원을 후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학교 설립과 책상, 의자, 책, 교사 채용 등의 인프라 구축을 돕고, 운영은 캄보디아 정부가 맡는다.

2010년 1월까지 캄보디아에 1000개의 우물을 지원했던 지구촌공생회는 2012년까지 깜퐁참 지역에 우물 1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기존 우물 관리와 위생 교육도 진행한다.

지구촌공생회 김규한 홍보팀장은 "2004년부터 만들어진 우물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 우물관리후원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현재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모두 부처로 태어납시다

조계종 법전 종정 · 진각종 도흔 총인 봉축법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진각종 총인 도흔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를 내렸다.

법전 스님은 4월 29일 봉축법어에서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의 여래로 태어나 해탈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이라며 "무명 속에 부처를 빚어내는 밝은 길이 있고 번뇌 가운데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다. 눈 앞의 모든 생명이 법신의 구현체요, 여러분이 불조대기를 구족한 미륵의 현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본래 범부도 성인도 아니고 이름도 없었으나 어둠에 미혹해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됐으니 오늘은 얽매임에서 벗어나 무위진인을 이룩하여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나자"고 당부했다.

같은 날 진각종도 총인 도흔 정사와 통리원장 혜정정사의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도흔 정사는 법어에서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자등명과 법등명을 밝히는 수행의 주인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모든 중생이 번뇌의 어리석음을 벗고 불작불행(佛作佛行)과 무량선행의 두터운 신행을 실천하면 이 세상은 곧 불국정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사는 "여실지견의 등불을 밝혀서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지혜 · 자비 · 용맹을 실천해 부처님 은혜와 사대은혜에 보답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혜정 정사는 봉축법어에서 "지혜 · 자비 · 용맹의 마음가짐은 자신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근본이자 인류 미래를 이끌 희망찬 기운이다. 이 기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이 기운을 내어 쓰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체중생의 삶이 지혜로운 행동과 바른말, 진실한 생각으로 넘쳐 복과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곁에 빛으로 오소서"

법정 스님 49재 송광사서… 유골 불일암 후박나무에 수목장

무소유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명을 안겨준 법정 스님의 49재가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다.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4월 28일 봉행된 스님의 49재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손학규 민주당 前 대표, 정동영 · 박주선 민주당 의원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10시 사시예불과 명종 5타로 시작됐다. 이어 길상사 합창단의 삼귀의, 원명 스님(조계종 어장)의 법요, 헌향, 헌다, 대중삼배, 추모 입정 및 법정 스님 영상법문, 법문, 조가, 헌화, 인사말, 사홍서원이 진행됐다.


법정 스님 49재가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 등 500여 사부대중은 빗속에서도 헌화 · 헌향을 하며 법정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사진=조계종 제공

지관 스님은 법문에서 "법정 스님은 79년 전에 육신이라는 차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셨다.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원력으로 살았던 법정 스님은 육신의 차를 버리고 열반락에 드셨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 세상을 사는 중생이 법정 스님의 원력을 잊을 수가 없어, 49일이 지나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중생들에게 정신적 지도를 해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이 타고 있다. 불 타고 있는 집에서 노는 어린이와 같은 처지이므로, 대중 모두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참선하는 스님은 화두를 놓지 말고, 대중은 늘 조심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조 스님은 인사말에서 "스님은 평소 무소유를 설하고, 그 말씀처럼 맑고 향기롭게 살다 가셨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는 스님의 말씀은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묵념이 서해 백령도에서 근무했던 송광사 도감 영진 스님의 집도에 맞춰 진행됐다.

49재 기간 중 불일암에 안치됐던 법정 스님 유골은 스님이 30여 년 전에 직접 심고 돌봐온 후박나무 아래에 산골됐다.

한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날 법정 스님이 번역한 <법구경-진리의 말씀>을 내용으로 추모하는 연주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4 선지식-일오 스님 ▶4 인터뷰-송선미 ▶9 현장-자비명상 강좌 ▶16 강의실-최열



입장 고수 속 '희망' 찾아

'봉은사 토론회' 4월 30일 열려

거듭된 폭로성 발언과 반박을 거듭하며 끝이 보이지 않던 봉은사 문제가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 불교단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소통의 장을 열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 재가연대 등 불교단체 대표자는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총무원 대표로 종부부장 영담 스님 · 김영일 기획차장 · 박용규 총무차장 △봉은사 대표로 주지 명진 스님, 부주지 진화 스님, 송진 신도회장 △불교단체에서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법안 스님 ·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총무원 측은 "오랜 계획과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결정일 뿐 외압은 없다"라는 입장을, 봉은사 측은 "직영전환 후 운영계획(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 외압 밖에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 측을 오가는 발언은 도돌이표 같았지만 그 속에서 한줄기 화해의 희망을 찾은 토론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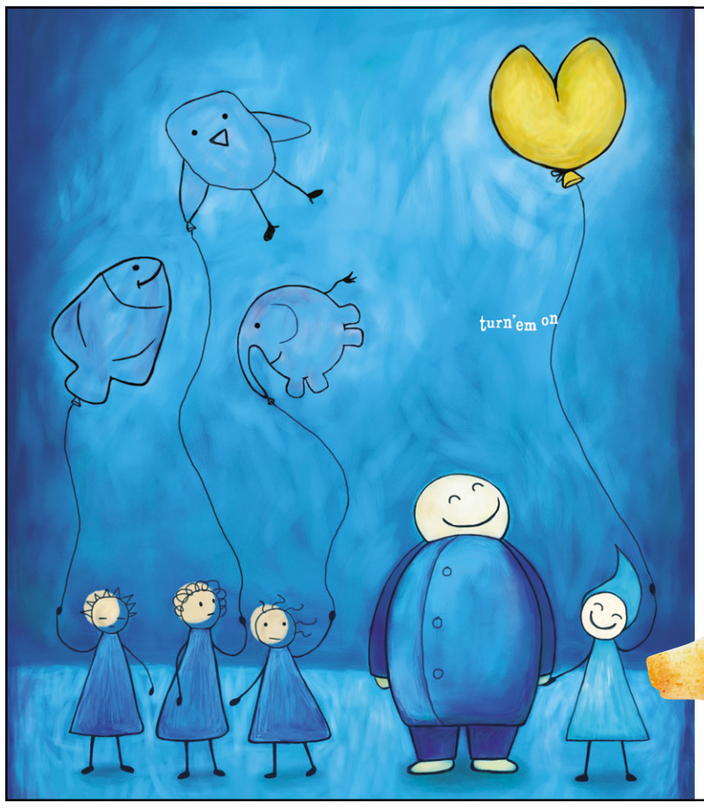
명진 스님은 "총무원이 봉은사 운영 로드맵을 가져오고 이를 신도들이 납득한다면 언제든지 직영전환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담 스님은 "집행부가 종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통이 부족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도법 스님은 "토론회에서 명진 스님이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총무원도 봉은사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대단한 인내를 보여 고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 조동섭 기자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진지한 자세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hat is Buddha Cookie!! 법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입니다. 모두 다른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사찰홍보,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였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500개 이상 주문 부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승가 기본교육 개편안 공청회 '반쪽'

전국강원교직자련 '인정 불가' 성명 발표하고 불참… 5월 4일 재논의

조계종 교육원이 개최한 승가 기본교육 개편안 공청회가 전국 강원 교직자 스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됐다.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회장 법광, 이하 연합회)는 4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 시작 20여 분 전에 '소통 없는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두 국제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원의 승가 기본교육과정 개편안은 일방적·획일적 교육개편으로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교육백년대계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세간의 잘못을 따르는 것"이라며 "승가 기본교육을 서구식 교육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교육원의 개편안은 조계종지를 체득해 정체성을 확립시킨다는 종단 가풍과 거리가 멀고 교육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 없이 일방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대부분 대승경전이 한문텍스트인 환경에서 한문교육은 조계종 승려라면 당연히 갖춰야하는 기본 소양"이라며 "교육원이 교과과정 개편안에서 밝힌 교재의 한글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각 기본교육기관의 장점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개편안 공청회가 전국 강원 교직자 스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4월 30일 개최됐다. 오른쪽부터 보광·주경·법안·법진·무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기조연설에서 "여러 의견을 묻고 교육과정을 다듬어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에서 교수스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며 "교수스님을 대상으로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게 된 것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교육원이 개편하고 공청하는 과정에서 상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전통 강원 교직자 스님들이 개편안에 제시한 의견은 기본교육과정에 넣어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조계종환경위원회 위원장 주경 스님 사회로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 동국대 보광 스님, 중앙승가대 본각 스님, 송광사 강사 무애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 동화사 前 승가대학장 해월 스님,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무애 스님을 제외한 패널들은 교육원의 개편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보광 스님은 "전통강원 전통승가대의 장점이 많지만 이 장점만으로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지 살펴 300년된 교과과정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단과 대학 재단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전통강원을 제도권 편입, 사이버대학을 설립해 전통교육과 현대화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각 스님은 개편안을 적용할 대상에 대한 이해, 가르침의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는 수행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출가자, 출가자 수가 급감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개편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글화는 적극 찬성한다. 한글화 하되 대장경을 볼수 있는 끄나풀을 놓치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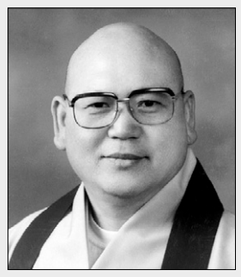
무애 스님은 한글 위주의 교육개편안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한글화로 이루어진 한역불전을 전문화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전통강원의 전문화된 번역, 언어능력 향상의 장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강원교육을 전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공청회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원이 소통하지 않았다는 강원교직자스님들의 주장은 억측이다"라며 "5월 4일 공청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뒷말만 무성했던 승가교육 개선안에 직접적인 반발이 드러난 것에 대해 교육원 집행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동섭·이상언 기자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 선출



월탄 스님(청주 용화사 회주·사진)이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5차 원로회의를 열고 임기만료된 활안 스님 후임에 월탄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원로스님들은 제18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통과·상정된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의 대종사 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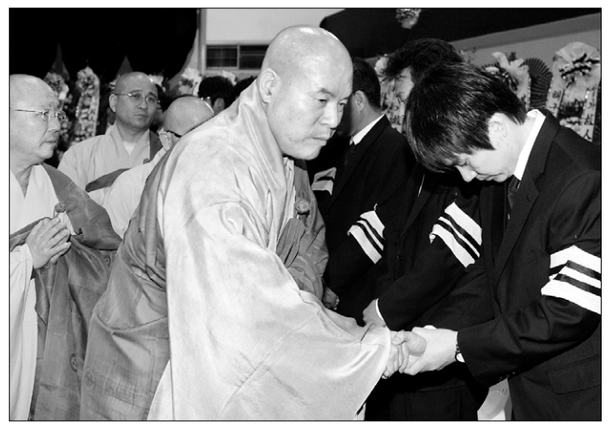
하지만 이날 예정됐던 원로스님들의 개인명의 재산 사후 종단 귀속 유언장 작성은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덕문 스님(호법부장)은 원로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고령의 원로의원 스님들이 장시간 회의로 불편하셔서 유언장 작성 대신 개인명의 재산 사후 종단 귀속과 관련한 종령을 적극 수용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로회의스님들은 담화문에서 "원로의원 전원은 수행자의 상징인 무소유 가르침에 입각해 사후 개인명의 재산 일체를 종단에 출연할 것을 공표한다. 종도들도 작은 이유를 달아 이의제기할 것이 아니라 수행공동체 일원·부처님 참 제자·종도로서 수희동참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제33대 집행부 스님 40여 명은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종무기관 유언장 작성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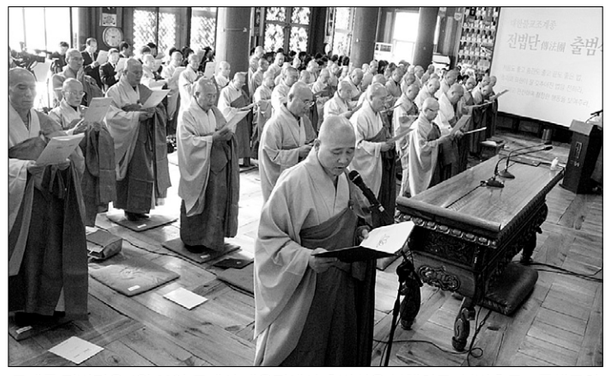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천안함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혜총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 등 30여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은 4월 27일 천안함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평택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조문하고 위로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은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법단 출범

2010년 수도권 취약분야 중심 활동



조계종 전법단은 4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범식을 봉행하고, 불법홍포·중생교화에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포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포교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조계종 전법단이 4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범식을 봉행했다.

전법단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총재, 포교부장 계성 스님을 단장으로 하고, 자문법사단, 지도법사단(법회와 신행활동을 지도할 스님 108명), 전법지원단(신행지도·강의 가능 재가불자 200여 명), 전법 후원회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전법활동을 할 지도법사단은 연말까지 500여 명 규모로 조직된다.

출범식에서는 각 조직 대표도 위촉됐다. 자문법사단장 지원 스님(서울 삼보사)과 성일 스님(화성 신흥사), 지도법사단장 법장 스님(무진법장사), 전법지원단은 계영석씨가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또 어린이·청소년 중심도량으로 선정된 22개 사찰 중 성원 스님(제주 약천사)이 대표로 기념 현판을 전달 받았다.

전법단은 △계층별(어린이·청소년·대학생·군장병 등) △분야별(직장직능·병원·장애인 등) △지역별 포교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설법·상담·수행·신행 등의 활동을 펼친다. 포교원은 이를 위한 포교 지침·자료를 준비하고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미래 한국불교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며 "이런 현실을 극복 하기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원력을 세워 포교하는 스님·불자들을 전국에서 모아 전법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전법단 발족을 계기로 각 지역에서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는 스님들과 재가단체의 역량이 결집돼 실질적인 포교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선주 기자

부처님 법음 온누리에

불교방송 개국 20주년 리셉션

BBS 불교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4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정운찬 국무총리, 김형오 국회의장 등 500여 명의 종교·정관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내 불교 방송 개국 20주년을 축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신 부처님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세계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불교방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인 불교방송은 TV와 라디오, 신문을 아우르는 종합미디어 매체로 성년을 맞았다"며 "조계종도 불교방송과 함께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치사했다.

이사장 영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불교방송의 주변환경과 내부여건이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불교방송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확신했다.

중생의 보살화,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하고자 1990년 5월 1일 개국한 불교방송은 전국의 63.7%가 청취권이다.

이나은 기자

성문 스님 당선 재확인

조계종 선관위 확정… 선문 스님 수용 불가

4월 22일 치러진 대구 동화사 주지 선거의 재개표 결과 성문 스님의 주지후보 당선이 재확인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30일 제223차 회의를 열고 동화사 주지 선거 재검표 결과 무효표 3표를 발견했다. 무효표 3표 중 1표는 성문 스님의 것으로 스님은 128표를 얻어 당선이 결정됐다. 2표가 무효처리된 선문 스님은 127표이다. 선문 스님 측이 이의제기했던 교구선거관리위원장 날인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했다.

이에 대해 선문 스님 측은 1표였던 무효표가 3표가 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문 스님은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무효표는 1표 뿐이라고 말했는데 3표가 나왔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보존을 포함한 이의제기를 했다. 동영상 확인 후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증언이 사실로 판명나면 부정투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동화사 주지 후보 선문 스님 선거비상대책위원회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무효표의 유효 처리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제청 보고 없이 산중총회의장(현 주지)이 선거결과 발표 △산중총회 규정에 따른 중앙종회의 원선거법에 승탑 우선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제기했다.

조동섭 기자



로드맵 없으니 외압 vs 외압설 책임져야

총무원 ·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토론회서 기존 입장 '재확인'

불교단체가 중재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토론회에서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는 서로의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날선 대립을 계속했다. 하지만 정치권 외압에 관해서는 모두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봉은사는 "봉은사 직영 전환 관련 로드맵이 없는 등 총무원의 직영 전환은 정당하지 않다. 정치권 외압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총무원을 압박했다. 총무원은 "외압은 없었고, 봉은사 직영 전환 전 충분한 사전 준비 · 계획이 있었다. 직영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은 원로회의 · 중앙종회 · 교구본사주지협 등과 맞물려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사안에서 토론자간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명진 스님이 "발언권을 달라"고 종용하자 영담 스님이 "(명진 스님) 너무 많이 (발언) 했어요"라고 너스레를 떠는 등 두 스님이 서로 주고 받은 뼈 있는 농담은 청중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토론회 모습. 명진 스님이 사회자 성태용 교수와 말하고 있다.

#총무원 "봉은사 직영 전환 정당"

영담 스님은 "봉은사 사태와 관련해 종단 내부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야겠다고 생각해 고심 끝에 토론회를 수용하게 됐다"며 "봉은사 직영 전환은 정책적 결정이지 보수와 진보, 개혁과 반개혁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스님은 "봉은사 직영 전환은 수도권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택한 이유는 강남의 대표 공찰이고 특정 문중도 없고, 지난날 성과 시스템이 검증된 곳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불교단체 "직영 실효성 따져야"

법안 스님은 "재산 사후귀속, 승가진흥기금 확보 등 현 집행부의 정책 취지는 좋다. 하지만 종책이 여론을 수렴해서 숙성해 나와야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지금의 집행부는 일단 던져놓고 후속작업을 하는 경우가 잦다. 직영사찰 전환도 큰 그림은 이해가지만 세심한 점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수도권포교 거점 도량이라면 더 큰 그림을 갖고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왜 봉은사 하나만 갖고 수도권포교를 말하느냐"고 반문했다.

#총무원 "직영 전환 준비해왔다"

박용규 총무차장은 "정치권 외압설로 봉은사 직영 전환 배경과 계획을 설명할 기회가 사전에 차단됐다. 봉은사 직영 전환은 수행+포교 전략과제 등 과정서도 언급됐던 문제이다. 현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응집된 결과물이 봉은사 직영 전환이다"라고 말했다.

#봉은사 "총무원 믿을 수 없어"

진화 스님은 "3월 4일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에서 영담 스님은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 대신 도선사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해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9일 원담 스님은 보도자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조계사-봉은사를 포교벨트로 수도권 주요거점사찰로 하겠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승가교육위 발족에 따른 기금 조달을 봉은사 직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영담 · 원담 스님이 번갈아가며 말 바꾸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말했다.

#총무원 "봉은사 로드맵 없다"

봉은사 측의 강공에 영담 스님은 봉은사 관련 로드맵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스님은 "봉은사 직영 전환에 확실한 로드맵 갖고 하겠느냐? 큰 계획 갖고 하지"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봉은사 측이 만들어 온 자료를 후임 주지가 그대로 이어서 한다면 그것이 비전 아니냐"고 반문해 봉은사 신도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봉은사 "외압이라 확신"

명진 스님은 "직영 전환의 정당성 · 절차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압이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자승 · 보선 스님을 만나도 뾰족한 답이 없어 고민해 보니 안상수 좌파발언이 기억났다"며 "만약에 외압이 아니라면 프라자호텔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영국 거사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외압을 숨기려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원 "직영 전환과 외압 별개"

김영일 차장은 "직영사찰 전환을 철회한다고 외압이 없어지는가? 직영사찰 전환 철회와 정치권 외압은 별도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인터넷에서 MB 장로와 자승 집사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봉은사 직영 전환에 외압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다. 로드맵 없다고 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명진 스님 주장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봉은사 "토론회 후 다시 폭로"

총무원 측이 "안상수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자 명진 스님은 "자승 스님과 안상수 대표와의 프라자호텔에서의 대화는 30%밖에 안나왔다. 나머지 이야기는 토론회 후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봉은사는 내가 지고 온 절도 지고 갈 절도 아니다. 신도의 간절한 원력과 내 원력이 합쳐 한국불교에 변화를 주는 희망의 도량을 만들고 싶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단체 "운영방침 제도화"

윤남진 소장은 "주지를 잘 만나면 사찰 운영이 잘 되는 우연성에 기대해서는 안된다. 계파정치, 외부 입김으로 직영사찰 주지를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소통 필요성 절실"

영담 스님은 "이번 토론회는 유익하고 좋은 자리였다. 오고간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 봉은사 직영 전환과 직영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종회가 의결한 봉은사 직영 전환을 총무원이 집행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봉은사 직영 전환 결정은 종단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결과로 원점에서 검토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김영일 차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해 종무행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단체 "외압 좌시 못 해"

도법 스님은 "외압은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무리 밖에서 외압한다 한들 불교계 내부가 그것을 견딜 힘을 어떻게 길러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명진 스님의 외압설 제기는 잘한 것"이라며 "명진 스님이 종단 문제를 드러낸 것은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이를 건강한 자기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용 교수는 "봉은사 사태는 불교계의 비극이다. 우리 토론 문화는 한쪽은 근거가 없다고 몰아가기 일쑤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날선 대립이 있었지만 종도의 뜻이라는 대원칙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도법 스님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총무원, 봉은사, 불교단체가 80% 해답을 만들어 냈다. 나머지 20%는 대중에게 남겨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두고 실속 없는 요식행위였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불교단체가 중립을 고집하면서 봉은사 사태의 장기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힘을 얻게 됐다.

비록 명진 스님의 폭로 엄포는 있었지만, 부처님오신날까지는 불교계에서 봉축 분위기를 저해하는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죽비와 목탁

東大 교수는 교직원이 평가?

동국대가 또 시끄럽다. 이번에는 교직원에 의한 교수 평가 때문이다.

동국대 교수회(회장 허남결)는 4월 23일 교수들에게 전달한 긴급 공지를 통해 "오영교 총장의 특별지시사항으로 3월 실시된 교원 인사평가에서 교직원 신분인 학사운영실장이 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등을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평가에서 교직원은 교수의 학내 행사참여도, 무단결강 여부 등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정량평가 부문에서만 참여해왔다. 더욱이 교수는 교직원의 인사평가에 참여하지도 않아왔다.

2년 전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가 온라인에 공개됐던 교수들로서는 자존심을 상하며 '발가벗겨' 졌던 그 날을 떠올릴 만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오영교 총장 취임 이후 대학본부가 교수를 학교발전 저해사범으로 지목하고 마녀사냥하듯 제도를 쏟아냈던 전력에 비춰볼 때 교수들의 분노와 황망한 심정도 십분 이해가 간다.

동국대 교원인사기획팀 담당자는 "일선에서 교수들과 접촉이 잦은 학사운영실장 만큼 교수를 잘 아는 사람도 드물다"며 "교수들의 정서가 문제일 뿐 달리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대학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참여한 학사운영실장 중에는 평가를 주저하다 대학본부에서 독촉 받은 이도 있다. 마지못해 모두 만점을 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 · 객관성은 인사의 핵심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성원간 소통 · 화합이다.

오 총장은 동국대 인사평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가 이룬 성과가 이번 교직원의 교수 평가 파문으로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네티즌 반응

봉은사 토론회를 앞두고 인터넷 다음 까페 성태용 교수의 봉은사 화쟁토론방에는 토론회에 대한 네티즌의 기대와 바람이 올라왔다.

"화쟁의 의미 살려 토론회가 부처님 가르침 펼쳐지는 장이길 기원한다. 두루뭉실 아닌 파사현정 돼야 (ID: tii0913)

"총무원의 권력과 세속화, 승려의 총무원 간부, 동국대 이사결탁 등 민주적 사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ID: 능해)

"이번 기회에 전국 사찰 재정관리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방향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찰의 재정 투명화를 할 수 있는지요?" (ID: 정법화) 조동섭 기자

■ 토론회 말! 말! 말!

봉은사 직영사찰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특히 봉은사 신도들은 점심을 버스에서 김밥으로 때우며 행사장을 찾았다. "독하게 먹고 왔다"는 한 봉은사 신도의 우스개에 정웅기 재가연대 사무총장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토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이들은 공연장 밖 모니터를 통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패널들의 발언 내용에 따라 축구 응원을 하듯 박수를 치거나 '옳소~!'라며 두 손을 번쩍 들기도 했다.

한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한번 뜨지 않고 모든 내용을 다 받아 적어 내려갔다. 기자의 사진기에 모습이 담기자 매우 불쾌한 듯 "사진을 지워라"며 난색을 표하고 다시 토론에 집중하기도 했다.

봉은사 신도 최차부씨는 토론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입을 열지 못했다. 최차부씨는 "직영사찰 지정은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지적과 함께 인정하라는 꼴"이라며 분개했다.

강남 모 교회 목사는 "역사라는 것은 우익좌익이 같이 가는 것이지만 정치지도자가 스님에게 '좌파 주지가 강남 부자 절의 주지로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교가 이번 기회에 하나가 돼 무릎꿇고 사과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일 주 문



예산 수덕사 혜암 · 벽초 스님 추모재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5월 11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덕숭총림 초대 방장 혜암 스님과 2대 방장 벽초 스님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보조국사 열반 800주기 종재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불일 보조국사 종재 및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61)755-0107



동산 스님 45주기 추모재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5월 6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동산 스님 추모재 및 동산문중 회의를 개최한다. (051)508-3122



G20 대사관 가족 템플스테이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5월 8~9일 G20 국가 대사관 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41)841-6221



경주 분황사 원효성사 열반 1324주기 제향대재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5월 12일 분황사에서 원효 성사 열반 1324주기 제향대재를 봉행한다. (054)742-9922



천안 각원사 청동대불 관불법회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은 5월 8일 각원사에서 통일기원 청동대불 관불의식 법회를 봉행한다. (041)561-3545



대전 광수사 백옥관음상 점안

대전 천태종 광수사 주지 도정 스님은 5월 5일 광수사에서 백옥관음존상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42)823-0332



진각종 종의회 사무처장 관명 정사

대구 진각종 선륜심인당 주교 관명 정사는 4월 27일 진각종 종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받았다.



직장인 재테크 아카데미

안동일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5월 12일 이승화 건국대 교수의 부동산 재테크 강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직장인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732-1206



병불련 용궁사 의료봉사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은 5월 8일 밀양 용궁사에서 삼존불 점안법회와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055)354-4464

interview

"한 사람의 장기기증, 8명을 살려요"

탤런트 송선미씨,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

"한 사람의 장기기증이 여덟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멋진 일이 또 있겠어요."

드라마 '민들레가족'에서 열연 중인 탤런트 송선미씨(사진)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에 위촉돼 장기기증 홍보에 적극 나선다.

탤런트 송선미씨는 4월 28일 서울 안국동 지하철역 '장기기증 희망안내소' 개소식에 참석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서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다.

일면 스님은 송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생명을 나누는 것은 큰 공덕"이라며 적극적인 장기기증 홍보를 당부했다.

송선미씨는 "이념과 종교를 떠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방송 활동을 통해서 생명나눔실천본부 활동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송씨는 "내가 죽고 나서 장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면 나도 도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절박한 상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말했다.

송씨는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은 후 장기



기증신청서를 작성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했다.

송씨는 "남편에게 장기기증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는 안했는데…"라며 "남편부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하겠다"고 말했다.

"평소에 (탤런트)김혜옥 선생님과 인연이 있었던 터라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도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어요. 공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생명나눔 홍보대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다 싶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씨에게 홍보대사를 권했던 김혜옥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선미씨를 따로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송씨가 평소 생명나눔에 관심 있었던 터라 내 말을 듣고는 바로 홍보대사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송선미씨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장기기증'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특히 신뢰할 만한 기관 · 단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선뜻 장기기증을 하지 못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분들에게 생명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관련기사 6면

"신바람 나는 인천교구 만들 터"

태고종 인천교구 신임 종무원장 홍제 스님

"교구종무원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종도들이 신바람 나는 인천교구를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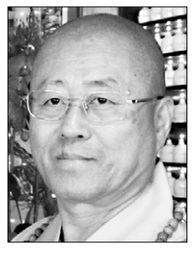
태고종 인천교구종무원은 4월 30일 인천로얄 호텔에서 신임 종무원장 홍제 스님(인천 관음정사 주지 · 사진)과 부원장 벽공 스님의 취임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종무원장 홍제 스님은 취임법회에 앞선 인터뷰에서 인천교구 종무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취임에 앞선 3월 11일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봉행됐던 '영산재 유네스코 등재 대법회'에서 인천교구 종도들의 전폭적인 참여 속에 인천교구 종도간 화합을 확인했다.

홍제 스님은 "2010영산재에 많은 사찰 대중이 동참한 것은 인천교구 종무원의 역량을 확인시켜준 기회였다"며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종무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 중흥을 위해서는



종도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도와 종단 발전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면서 "종단발전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대사회 봉사 · 포교활동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홍제 스님은 "처처에 부처가 있고, 처처가 도량이며, 처처마다 그대로 법"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인연연기(因緣緣起)를 바로 알면 세상의 모든 갈등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스님은 1975년 출가해 태고종 총무원장 비서실장, 종무위원, 인천교구 종무원 사정국장 · 부원장 등을 역임한 태고종단 내 행정통이다.

인천 관음정사를 1988년 창건한 이래 지금까지 홍제 스님은 개신교세가 강한 인천지역의 포교에 앞장서 왔다. 인천불교총연합회 사무총장 · 상임부회장, 인천지방경찰청 경승위원장, 부평구 불교연합회장, 부평경찰서 경승위원장 등 인천 불교계에서 스님이 맡아온 소임은 스님의 인천지역 포교에 대한 원력을 짐작케 한다.

홍제 스님은 "지역별 분원을 조직해 종도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종무행정에 수렴하겠다"며 "소통 ·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신바람 나는 인천교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기를 바로 알면 너와 내가 없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인천교구 종무원에서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천을 통해 세계일화(世界一華)를 구현하는 종책을 펼치겠습니다."

스님의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광주사암연 세계광엑스포 참관



광주 사암련 스님들은 광기술의 불교계 접목에 대해 모색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 회원 스님 20여 명은 4월 26일 광주 세계광엑스포를 견학했다. 종교단체에 광엑스포 교육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광주시 측이 마련한 견학식에서 스님들은 빛 산업기술관, 과학관 등 주요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 보현사 창건 100주년 맞아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왼쪽)이 보현사 창건 100주년 기념 보현보살상 점안법회를 집전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현사(주지 각만)가 4월 28일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동화사는 100주년을 기해 사찰 전통음식과 차문화 체험장, 명상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5미터 높이에 달하는 '보현보살상 점안법회'가 열렸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東大경주병원 불교회 지역의료봉사



경주병원 불교회가 실시한 의료봉사는 초음파검사 등 전문적인 의료봉사가 실시돼 큰호응을 받았다.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지도법사 무구)는 4월 24일 경주시 왕신리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김강 교수(내과)를 비롯한 6개 진료과(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영상의학과) 교수 및 교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초음파 진찰 등 전문검사를 시행했다.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 경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안과 수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세계불교태권도연맹 격파명인전



이날 세계불교태권도연맹은 격파명인을 선정하는 등 문화포교에 나섰다.

세계불교태권도연맹(총재 혜안, 무량종 종정)은 4월 24~25일 대전 시청광장에서 '제1회 한국전통무예전국대회 격파명인전'을 개최했다.

이날 격파행사에서는 곤봉무예의 김대경 씨 등 격파명인 10인이 선정됐다.

(031)964-5867

감사의 말씀

먼저 부처님 전에 엎드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공산문의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 주신 동화사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결과는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동화사 조실 진제 큰스님과 파계사 조실 도원 큰스님을 위시한 산내 원로 중진 큰스님들의 법력과 덕화가 모여 이루어낸 팔공산문의 위대한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약속한 대로 원융화합으로 팔공산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교구본사의 대소사를 산내 문중의 중진들이 모여 논의함으로써 산중통합을 이룩함과 동시에, 청정수행가풍과 승가위계질서의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및 중앙종회 등 각급 중앙종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종단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9교구 본사가 되겠습니다.

대구경북의 모든 불자들과 함께 오는 201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한국선불교를 세계화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지난 시간 좌절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수행자로서 정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애종심을 한시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자세로 교구 내에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신 투표인단과 팔공산문의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로 중진 큰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스님들을 잘 받들겠습니다.

불기 2554(2010)년 4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당선인) 性門(성문) 합장

東大 일산에 약학관 착공



최근 약학대 신설을 허가 받은 동국대가 일산에 약학관 및 종합강의동을 착공하고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4월 29일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부지에서 약학관 · 종합강의동 착공식(사진)을 개최했다.

2011년 8월 사용될 약학관은 연면적 2만 2000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설된다. 건물 내부에는 강의실과 실험실, 교수연구실 등이 들어서고, 임상약학 특성화 교육을 고려한 설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종합강의동은 연면적 6천 4000㎡, 지상 5층 규모로 건설된다. 주로 강의실 및 세미나실, 사무실, 교수연구실로 활용되며, 2011년 2월에 완공된다.

이사장 정련 스님은 치사에서 "금일 약학관 등 신축은 종단 · 법인 · 학교가 하나돼 이룬 약학대 신설 선정이라는 큰 업적이 이룬 결과"라며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1단계 사업이 동국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부문과 생명과학부문을 고양시에 뿌리내리는 시발점이라면, 금번 2단계 사업은 약학대학 신설이라는 도약대를 밟고 한층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교 총장은 식사를 통해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은 동국대가 성장동력 분야로 집중 육성중인 바이오분야 특성화와 고양캠퍼스 시대를 활짝 열어 명문사학으로의 웅비라는 동국인의 꿈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2020년까지 17만㎡ 규모의 캠퍼스 건립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 1단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착공식은 의생명과학캠퍼스 2단계 계획에 따른 것이다. 8월에는 한의학관 및 산학협력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조동섭 기자

정토사회 만들면 '통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 포럼서 백낙청 명예교수 강의

"한반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통일은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중도를 통한 정토사회 구현'에서 비롯됩니다. 단계적 통일, 대중이 이끄는 중도적 통일을 위한 시민의 깨어있는 자세를 위한 종교계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은 4월 27일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백낙청 교수는 남북관계와 민주화의 긴밀성, 시민참여형 통일을 위한 종교계의 주도적 역할을 역설했다.

백낙청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정은 민주화, 내부개혁 문제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특별한 통일운동이 필요치 않다. 종교계의 4대강 반대운동과 같은 민주화의 길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낙청 교수는 세계적인 냉전체제 종결과 동시에 분단체제의 불안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대립, 남북분단체제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의 적대적 상호 의존 · 공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특히 4대강 사업 등 소수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는 현 정권의 반민주적 정치, 대북강경책은 민주주의에 거슬러 나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백낙청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 중간단계를 거치는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백낙청 교수는 불교의 중도적 자세도 강조했다.

"진보 · 보수, 통일 · 반통일세력 같은 이분법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동의도 얻기 힘들다.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변혁적 중도사회다. 좌우의 단순논리를 넘어 중도를 찾아야 하며 중도노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해야한다. 중도란, 유무에 집착하지 않는 것, 한국사회의 편벽, 편향된 사고나 노선을 하나씩 비판하면서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나 중도세력이 커졌을 때 한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 현 정부에 대한 편향된 자세와 국민들의 탐욕, 오만을 지적했다. 백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같이 국토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보수인가? 현 정권은 보수정권도 중도실용정권도 아닌 괴물스러운 정권이다. 어떤 괴물인지 연구를 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오만한 자세가 이명박 대통령만의 것인가? 우리가 뽑은 괴물에 대한 인식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중생과 변화 함께 해야 '현대화'

불교 심리학 전문가 서광 스님 주장

불교 심리학 전문가인 서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 사진)는 4월 28일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원에서 대한불교진흥원, 법보신문사가 주최한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심리적 문화적 접근' 포럼에서 "불교의 현대화는 중생의 변화에 따라 불교도 함께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스님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불교상담심리전문가 양성기관, 프로그램 개발로 '현대판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광 스님은 "현대판 조사, 불교상담심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자격 제도 안에서 경 · 율 · 론 삼장을 심리 치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연구방법론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불자들로 하여금 어느 경전을 얼마나 공부했는지보다는 경전을 읽고, 어떤 심리적 증상이 좋아지고 치유됐는지, 그래서 얼마나 인격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사형수도 우리 책임 "사형제 반대"

불교 · 천주교 등 인권위 사형제도 토론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은 4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분석 및 사형제도 범죄억지력의 관계'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일태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한 헌법 분석' △홍기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미국사형제도에서 억제효과 여부에 대한 법경제학적 동향'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형의 범죄억제효과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발표했다.

불교인권위원회 명진 스님(관음종 본원사 주지)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결국은 모두의 책임이다. 불교계에는 생명과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비실현 차원에서 사형제를 반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달라이 라마 中 지진 피해자 위해 기도

중국 북서부 칭하이(青海)성 위수현에서 4월 14일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도법회가 4월 27일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에서 14대 달라이 라마(텐진 갸쵸)의 주도로 열렸다. 강진 발생 후 2재에 해당하는 이날 법회에는 17대 까르마파(걀왕 까르마파)와 티베트 망명정부 인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화통신에 의하면 강진에 의한 사망자는 2000여 명, 1만 여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질적으로 이번 지진 피해자의 97%는 티베트 인으로 공식 집계됐다.

달라이 라마는 2시간에 걸친 기도에 앞서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TAR)의 티베트인 구조와 구호에 힘쓴 중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직접 재난 지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추모법회는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에서 6월 1일까지 49재로 진행된다.

인도 다람살라 = 가연숙 객원기자

100자 뉴스

천태종 中 茶문화제서 한국다도 선보여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4월 27일~5월 3일 중국 베이징 영광사에서 열린 '제9회 팔대처 중국 원림 차문화제'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 천태종은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장 세운 스님 등 대표단 100여 명이 참석해 고려황실다법 시연, 사물놀이 공연, 양금(洋琴) 연주 등을 선보였다. 팔대처 차문화제는 중국차업유통협회, 중국국제차문화연구회 등 관련단체들이 차문화 보급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차축제다. 노덕현 기자

인도 불교로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

인도가 불교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교류강화에 나섰다.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4월 25일 인도정부가 27일 베이징서 열린 인 · 중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정부 측에 불교 성지 모형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정부는 양국이 화해와 협력에 나서자는 의미로 자국 불교 성지 '그레이트 스투파'와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한 '녹야원'(鹿野園) 등 모형을 전달했다. 최근 중국 측에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지원 등을 요청한 인도정부는 이번 선물 전달에 앞서 중국 최초 사찰인 뤄양 바이마쓰(백마사) 인근에서 모형을 제작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日 조동종 강제징용자 유골 105구 발견

아사히 신문은 4월 23일 일본 조동종 종무청이 실시한 강제징용 외국인 유골조사 결과 총 105구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조동종 종무청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2005년 11월부터 기후현 사찰 등에서 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한국 '태평양전쟁희생자봉환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한국인 희생자 유골 37만여 구에 대한 송환 운동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부인사 선덕여왕 숭모제 봉행

신라 선덕여왕을 추모하는 제24회 선덕여왕 숭모제가 4월 28일 대구 부인사(주지 종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과 배근희 선덕여왕 숭모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불법으로 난국을 극복한 선덕여왕의 지혜와 업적을 되새겼다.

주지 종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최대 흥기인 신라시대의 제사양식이 복원되고, 선덕여왕의 본래 면목이 잘 알려진다면 불교 포교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창단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단장 안병옥)이 4월 24일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창단했다. 충북지역단은 현재 14개팀, 115명이 활동하고 있고, 제15기 포교사로 52명이 연수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충북지역단은 청주시를 중심으로 보은, 옥천, 영동, 충주, 제천, 단양 등 지역포교에 나선다.

안병옥 충북지역단장은 "종단을 외호하고 스님들을 보필하며 포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기총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반대 나서

정부와 대구시, 동화사가 동화사 통일대불 지하 등 일대에 조성하는 불교테마공원에 대해 대구지역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기총)는 비상대책위를 조직했으며 7일 대구시를 항의방문해 불교테마공원 반대성명을 전달했다. 대기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연계해 시청 앞 시위 등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들이나 불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든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뵙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가정의 달 맞아 행사 풍성

"효(孝), 이해하며 나누는 것"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빼곡한 5월이다. 각종 기념일을 챙기느라 여기저기 신경 쓰고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가족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가정의 달'인 5월, 부모님과 자녀의 손을 잡고 가까운 사찰이나 불교계 복지관을 찾아가 보자. 가족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대표 성운)이 운영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 · 02-385-1315)**은 5월 7일 '제 38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 초청 사랑큰잔치'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6일에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에서 '효도잔치'가 열린다.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은 전하고 싶은 어르신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10~15일 '사랑의 편지 쓰기교실'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무료진료도 마련된다. 16일 열린의사회(이사장 고병석)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무료진료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진료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 가정의학과 · 부인과 · 치과 진료가 실시된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5월 20일에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서울숲 공원으로 야회학습을 떠난다. 이날 야회학습은 삼림욕, 산책, 보물찾기 등으로 채워진다. 27일에는 수급자어르신들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해 영화 관람도 준비했다. MBC 프로덕션이 지원하는 '좋은 영화 무료 감상회'는 5월 18일 오후 3시 은평노인종합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광진노인복지관(관장 화평 · 02-466-6242)은 7일 지역의 무의탁어르신을 위한 '칠 · 팔순잔치'를 개최한다. 8일에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운동회를 개최한다. 8일 오전 서울 구의동 동의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제7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은 어버이날 기념식과 어르신 운동회가 진행된다.

5월 13일에는 광진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선다. 광진노인복지관이 준비한 어르신 취업공개강좌가 19일 오전 9시 30분 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 02-742-9500)은 6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후원한 초코파이를 논산훈련소에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7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 입니다'를 개최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진다.

10~11일에는 강원도 월정사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40여 명이 템플스테이를 떠난다. 10~12일 성균관대 노천극장 앞에서 어르신들이 바자회 '환경과 이웃을 위한 메아리'를 연다.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해 진행되는 바자회는 의류 · 생활용품 판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비 모금, 어르신과 함께하는 손수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 · 02-817-8052~3)은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7~8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또 본동종합복지관은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할 라면 모금을 진행 중이며 12일 오후 전달식을 갖는다. 18일에는 저소득 가정 후원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행복 나눔 아울렛'을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인근에서 연다.

성북노인복지관(관장 최돈오 · 02-929-7950)에서는 제38회 어버이날 행사를 8일 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효, 주고 받는 것보다 이해하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어버이 효사랑 기념행사 △문화예술제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공연과 어린이 · 대학응원단 공연, 농구공 묘기, 하모니카 · 한국무용 ·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또 부대에서는 막대풍선 · 솜사탕을 나누기, 페이스페인팅 그리기와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훈 만들기'도 진행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탁마하고 싶다면 거제지역에 관심을 가져 봐도 좋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거제지회(회장 서명희 · 055-632-0366)는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법정 스님의 <무소유> 토론회를 개최한다. 파라미타 거제지회는 <무소유> 200권을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거제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19일 저녁 7시 거제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가장 열심히 토론한 시민에게는 법정 스님의 저서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장기기증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안내소 개소식



4월 28일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 희망안내소 개소식에서 홍보대사 탤런트 송선미(왼쪽 두번째)씨와 김혜옥씨, 이사장 일면 스님, 서강대 박광서 교수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막상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이를 위한 안내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이사장 일면 · 이하 생명나눔)가 4월 28일 '장기기증 희망안내소'를 개소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지하상가 9호점에 위치한 장기기증 희망안내소는 안국역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희망 안내 및 홍보 △상담 및 채혈 △현장등록(장기 · 조혈모세포 기증) 등의 활동을 펼친다.

장기기증 희망안내소에는 간호사 1명과 자원 봉사자2명이 상시 배치된다. 또 1년 365일 운영(오전 10시 30분~오후 7시30분)돼 언제든지 장기기증 관련 상담과 채혈이 가능하다.

장기기증 희망안내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제희)가 시행하는 2010년도 장기기증 및 이식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생명나눔에 1억원을 지원해 마련된 공간이다.

일면 스님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 인식부족으로 장기 기증자가 부족하다. 희망안내소가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나눔 정복자 사무처장은 "2009년 10월 기준으로 1만 2235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며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나눔운동 확산과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활성화가 시급히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생명나눔 홍보대사 김혜옥 · 송선미씨, 서강대 박광서 교수, 안국역 박종찬 역장, 조원현 신부 등 70여 명이 참여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한편, 생명나눔은 1994년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장기 이식 등록기관으로 설립됐다.

불교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생명나눔은 뇌사 시 장기 · 각막 · 조직 기증, 사후 시신 기증, 조혈모세포기증, 혈소판 성분 헌혈, 환자치료비 · 수술비 지원 등 의료구호 및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02)720-7720

글=박선주 · 사진=박재완 기자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 자비 베풀 것

경남불교사회복지협 회장 성공 스님 취임



제3대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성공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4월 26일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장 이 · 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날 3대 회장에 취임한 성공 스님은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에 앞장 설 것을 강조했다.

성공 스님은 "부처님 말씀에 동체대비라는 구절은 나와 남이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한 몸이기에 남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알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다"며 "우리 협의회가 불교계 복지 분야에 솔선수범이 돼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2대 회장 승욱 스님(보리수동산 원장)은 "불교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 사단법인 감로심장회, 사단법인 불교 사회복지 성양원, 아동 양육시설 보리수동산, 화방복지원 화방동산 등 경남지역 15개 법인과 기관이 불교복지 발전에 뜻을 모아 2005년 창립됐다. 현재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창원전문대학을 자문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간 협력증진,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 세미나 개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주력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낙태문제 야단법석

생명존중의 불교정신에 입각해 '낙태'로 인한 사회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4월 28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지원센터에서 역할토론극 '야단법석, 낙태이야기'를 개최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 중인 '불법 임신중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극은 △태아생명권과 여성권리 △장애아 출산 후 여성의 삶 △저출산 문제와 낙태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 '남성'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 '가족' '태아' '종교인' '정부관계자' 등의 역할을 맡아 토론극을 펼쳤다. 이날 정부관계자 역할을 맡은 한 여성은 "현재 정부는 낙태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법안 등을 제정하고 있다"며 "낙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성교육, 미혼모 차별 철폐 등 사회의식 함양과 제도개선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4월 28일 낙태 문제의 불교적 해결 모색을 위해 주최한 토론극 '야단법석, 낙태 이야기'에서 참여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란 소장은 "이번 역할극은 낙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듣고, 넓은 시각에서 불교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생명존중의 종교인 불교는 낙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7월 중 전문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월 26일 발표한 '불법 임신중절 예방대책'은 위기임신 상담 콜센터 운용, 낙태 실시 병원 삼진아웃제 등이 골자다.

박선주 기자

조계종 교육원이 제시한 강원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 성명서

조계종 교육원은 최근 강원교육과정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것의 골자는 학습효과를 위해서 서구식 교육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승가교육법에 명시된 조계종지를 체득하여 정체성을 확립시킨다는 종단의 가풍과 거리가 멀다. 또한 조계종 기본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교육 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 없이 일방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그 문제점을 밝힌다.

원전에 대한 훈고학적 교육방식은 원전 해독 능력과 향후 독자적 공부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방법이다. 또한 한문교육은 대부분의 대승경전이 한문텍스트이며 불교만이 아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이에 기반 하고 있으므로 한문교육은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기본 소양이다.

전통 교과목의 교재를 모두 한글화한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각 기본교육기관의 장점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편(안)이다. 승가교육은 우리종단의 최대역점불사이자 교육원 수장이 바뀌면 교육정책도 바뀌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불사가 아닌 교육백년대계이다. 바깥세상도 지양하는 일을 승가안에서 일선 소임자와 소통없이 진행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된다. 특히 역경불사는 수많은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번역 능력자를 기르기 위해서도 원전 공부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 세속에서 한문 고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고전번역원'을 설립하고 국가적인 지원으로 번역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번역자 양성을 위해서 한문 교육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승가 교육은 많은 것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의 교양 지식적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원전의 깊은 내용을 반복된 숙지와 훈습을 통해 분명하게 의미를 체득하고 자기 수행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은 부처님 말씀을 팔아먹는 직업적 성직자는 만들 수 있어도 계정혜 삼학이 갖춰진 수행자를 만들 수는 없다. 이론 추구에 따른 불교의 모습은 일본불교의 현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불교이론 정립보다 행이 따르지 못하는 데 있다.

교육원이 제시한 교육과정은 거의 대부분 이미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학인 양성 방법에 대해 다른 장점을 가진 전통강원에서까지 전통적인 교과과정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교육방식을 강요한다면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물론 교육백년대계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세간의 잘못을 따를 뿐이다.

이에 오늘 공청회와 같이 소통없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개편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오늘 공청회는 강원 교직자의 참여와 소통없이 교육원 일방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요식행사에 불과하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차후 획일적인 전체 교과과정 개편이 아닌 강원 교과과정 개편(안)을 분리하여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와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2. 교육원의 일방적이고 몰아붙이기식 학사행정 추진은 반대하며,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와 공개적으로 함께 지혜와 원력을 모아 전체적 틀 속에서 현실에 기반을 둔 안을 도출해 낼 것을 요구한다.

불기 2554(2010)년 4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

종교 자유·보편성 바탕한 교육해야

김용표 교수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



얼마 전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던 강의석(24)씨가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종교자유'를 둘러싼 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면서 전국 578개 종립 초·중·고교의 종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강의석 씨 판결이 바람직한 종교교육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표 동국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정우서적 刊)에서 "종립학교는 인간을 종교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종교교육을 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이 현재의 종교교육에도 투영돼야 한다"며 현행 불교계 종립학교의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종교의 자유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교리나 감정에서 기인된 것이며, 특정종교나 이데올로기로 이익 집단화하려는 비종교적인 아집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표 교수는 현대의 종교자유 문제의 해결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교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배타적인 절대 진리 주장을 재검토 할 것 △여러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종교학 교육의 확산과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이론과 방법의 교육을 실시할 것 △종립학교 관계자들에게 종교교육 자유의 의미·한계를 올바르게 인식시킬 것 △종립학교는 건학이념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할 것 등이다.

김용표 교수는 위대한 교육자였던 부처님의 교육체계인 방편시설(方便施設)을 고찰하며 현대 교육적 의미를 살폈다.

김 교수는 "부처님은 교육의 방법을 중요시 여겨 학습자의 수준(근기)에 따른 교수법을 적용했고, 권위주의적인 교사상을 벗고 제자의 좋은 친구가 되고자 했다"며 "부처님의 교육이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채워주는 교육'보다 학습자의 잠재적 소양을 계발 시키려는 '이끌어 내주는 교육'의 모범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김 교수는 "부처님이 인류의 큰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교육방법의 수승함에 있었다. 현 교육계는 이를 현실교육에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제7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 개정된 현행 불교계 종립 중등학교의 종교교재에는 3가지가 있다. 조계종출판사와 진각종에서 각각 펴낸 <종교(불교)>교과서와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자료집인 <인성과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불교시청각 교재>(조계종출판사 刊)가 그것이다.

김용표 교수는 조계종출판사와 불교교육연합회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불교계 종립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의 모델을 모색했다.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오른쪽).

김용표 교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는 보편적 종교문화교육이다. 불교의 종교교육 목적과 목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감이 없지 않으나 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모순이 없으며 그 정신과 상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교재를 편찬했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며 △교재의 외형적 체재 △학생들의 이해 능력과 정도·흥미도와의 관계 △내용의 안배와 효율적 편집 고려 등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김용표 교수는 "교재에 대한 첫 느낌은 표지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불교교재의 표지는 불국사, 연등제, 해인사 장경각의 팔만대장경 등 불교를 대표하는 요소들로 구성됐지만 사실 역사책이라 불리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며 "널리 알려진 평범한 사진보다 산사의 고요한 정경, 만다라 등 불교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교재는 단순한 교리 나열식으로 학생들에게 여전히 난해하다. 인터넷·성·가정·경제 문제 등 학생들의 현실적 정서와 맞는 테마로 재구성하고 문제의 해답을 불교에서 찾는 방식의 구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종교·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적 체제를 강조하기보다는 불교가 지닌 진리의 보편성·논리성·관용성 등 그 합리적인 가르침을 통해 종파적 신앙교육의 강조 없이도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철학자 막스 뮐러는 "하나의 종교밖에 모르는 이는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뮐러와 마찬가지로 세계종교사의 맥락에서 불교 개신교 등 개별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표 교수는 "세계종교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파악하고 다른 종교사상과의 교섭관계를 중시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정종교를 따로 분리해 이해하려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정신 계몽 불교가 담당해야"

'마음사상' 7집 청담 스님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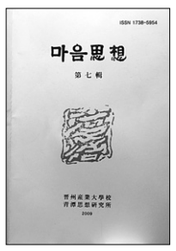
청담 대종사(1902~1971)는 근·현대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선지식이다. 불교정화 운동과 호국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았던 스님은 '마음'을 중심으로 한 생활불교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청담 스님의 사상은 마음을 중심으로 불교의 핵심교리에 대한 전통적·현대적 해석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사상을 1960년대 조계종에서 발행한 '대한불교'에 기고한 스님의 글을 통해 재조명했다.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동국대 박사과정)는 청담사상연구소(소장 허익구)가 최근 펴낸 <마음사상> 제7집에서 '청담 대종사 사상연구'를 주제로 기고논문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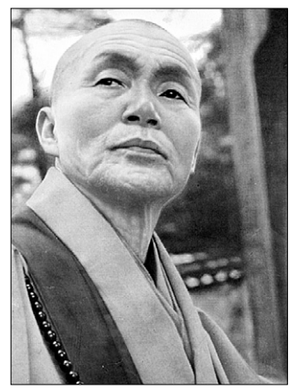
이성수 기자는 1960년대를 중심으로 청담 대종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40여 편의 글을 통해 그의 사상을 조명했다.

이 기자는 "1960년대 종단에서 발행한 '대한불교'를 통해 발표된 청담 대종사의 글은 그의 종단관·수행관·중생관·사회관·이웃종교관·문학관·언론관 등을 심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한 청담 대종사(1902~1971·오른쪽).

청담 대종사는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논할 때 아주 중요한 선지식이다. 스님은 문경 봉암사 결사와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장로원장·총무원장을 역임하며 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았다.



이성수 기자는 "청담 대종사는 승려들의 자아수련과 역량 배가를 통해 인천(人天)의 사표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신도들에 의지하지 말고 자립경제와 사원경제 확립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선농일치 실현을 덕목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담 대종사는 서구사회의 물질만능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한 당시 사회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며 정신계몽운동을 불교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청담 대종사는 1960년에 창간된 '대한불교'의 초대 발행인이자 사장이었다.

이나은 기자

문화재청 국보·보물 명칭 쉽게 개정

충남 논산의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408호)과 경북 하동의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이 '논산 쌍계사 대웅전'과 '하동 쌍계사 대웅전'으로 바뀐다.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명칭으로 인해 헷갈리기만 했던 명칭들이 새롭게 개정됐다.

문화재청은(청장 이건무)은 4월 27일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명칭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지정명칭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명칭 개정은 문화재 전면에 현재의 지명을 붙여 문화재의 위치나 소재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도산서원상덕사 부정문급사주토병(보물 제211호)'과 같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구어체가 사용된 명칭에 대해서도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정문'과 같이 쉬운 말로 변경했다.

또한 '서울숭례문(남대문)'을 '서울 숭례문'으로,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을 '서울 흥인지문' 등 별칭은 없애고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삼았다.



보물 제500호 논산 쌍계사 대웅전. 사진=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별칭은 안내문 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했으며, 명칭 표기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번 문화재청 지정명칭은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701건 중 목조문화재 151건이 개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석조문화재 550여 건도 명칭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제8알라야식 전분야서 심층분석

불교학연구회·금강대 불문연 5월 7~8일 춘계학술대회

알라야식은 서구에서 잠재의식보다 깊은 심의식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업이 기록됐다는 제8 알라야식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5월 7~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알라야식 개념의 형성과 변용'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알라야식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부 망라해 발표주제로 삼았다.

7일에는 '알라야식 개념의 형성'을 주제로, 8일에는 '알라야식 개념의 동아시아·티베트에서의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열린다.

김성철 금강대 교수는 '알라야식 기원에 관한 최근의 논의'의 주제논문을 발표한다. 김 교수는 알라야식을 유럽 불교학자 슈키트하우젠과 하르트무트 뷔셔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슈미트하우젠은 알라야식의 기원으로 <유가사지론><본지분><삼마히다지>에 나타난 '도입문'을 제시한다. 그는 도입문을 분석하면서 알라야식이 멸진정 상태에서 '신체에 부착해 있는 식'이라는 의미에서 도입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최근 하르트무트 뷔셔는 슈미트하우젠의 이론을 철저히 비판하고 알라야식 <해심밀경>의 새로운 존재론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식'이라는 의미에서 도입됐다고 반박한다.

김 교수는 이 두 주장을 중심으로 알라야식의 기원에 관한 연구와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소개한다.

이 밖에 학술대회에서는 △정승석 동국대 교수-상키야 철학에서 알라야식 유형의 원리 △박창환 금강대 교수-알라야식의 형성과정에 미친 종자설의 영향 등이 발표된다. (031)980-7775

이나은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이신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아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A 출가 결심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결정을 하셨네요. 출가는 도피가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자의 길입니다. 출가의 목적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즉, 성불에 있습니다. 출가자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제자라면 누구든지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천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대장부의 길이라 했습니다. 대장부는 장부 중의 장부라는 말로 모든 이의 안락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가는 바로 이러한 명확하고도 뚜렷한 서원과 신심이 깊이 뿌리 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듯이 서원과 신심이 견고한 자가 더욱 수승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가는 위대한 포기입니다. 영원한 자유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취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즐거움, 옳음, 좋음, 아름다움 등의 분별심을 포기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포기를 통해 위대한 승자가 되는 것이 출가입니다.

출가는 이러한 명확하고도 뚜렷한 서원과 신심 깊이 뿌리 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듯이 서원과 신심이 견고한 자가 더욱 수승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는 데는 많은 인내와 끝없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반대가 걱정된다고 몰래 출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가하겠다는 소식이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와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출가에 대한 참 의미를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면 부모님도 이해해주시고, 출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Q 매일 <금강경> 독송, 108배를 하고 있는 중년의 주부입니다. 저는 왕따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 받았습니다. 성년이 돼 부모를 찾았지만 부모는 제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이용하고,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듣곤 합니다. 전생에 살생의 과보가 있으면 이생에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일까요?

A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선업으로 과거를 갚는 자는 무서운 인과라 할지라도 능히 단절할 수 있어 마치 구름 사이에서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라고 설했습니다.

인과응보는 엄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참된 뉘우침과 행동의 개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밝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설했습니다.

흔히 "험한 사주팔자를 타고나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되며 병도 많고 인덕도 없다"는 식으로 운명과 사주를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을 스승으로 삼고 장애를 성공의 디딤돌로 딛어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 엄마로 부터 사랑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인관계 중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자신은 온 정성을 다해서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 · 인정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기대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지요. 비록 어린 시절 부모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도 이제는 가족이 있으니 어릴 때 채우지 못한 욕구를 지금 가족들과의 충분한 사랑으로 채워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처럼 종교 생활로 채우는 방법도 있고요.

출가하려는데 가톨릭 신자 부모님 어찌 설득할까요?

'위대한 포기' 출가의 의미 말씀드리고 이해 구해야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마음 편해지는 불법 만나 고마워요

희망법당 탐방

연천 태풍부대 일심정사


제28사단 태풍부대 내 군법당 일심정사에서 최영식 포교사(오른쪽)가 일요법회를 집전하고 있다. 일요법회에 참석한 30여 병사들이 진지한 자세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부처님! 당신의 한결같은 보살핌에 힘입어 저희들 어린 무리는 깨달음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과 군복무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법회를 봉행하는 생활인의 불교를 닦아 나가고자 하옵니다."

군 장병 30여 명이 법당 안을 가득 메우고 일승발원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병사들은 최영식 포교사(조계종 포교사단 군7팀)의 목탁에 맞춰 <반야심경> 독송도 했다. 교회오빠는 있어도 절오빠는 없다는데, 태풍부대 일심정사에는 사회에 나가면 딱 '절오빠' 또래인 젊은 남성불자들이 가득하다.

기상 악화로 40년 만에 봄 같지 않다는 봄날이 계속되는 요즘이다. 경기 연천 태풍부대 일심정사에서 일요법회가 열렸던 4월 25일은 맑고 따뜻했다.

일심정사는 경기도 연천군 제28사단 태풍부대 내 군법당이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차로 1시간 걸리는 이곳은 중부지역 최전방이다. 최전방에 위치한다는 물리적 · 심리적 부담은 태풍부대를 군포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포교활동을 펼치겠다는 원력으로 일심정사를 찾았던 포교사 중에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한 이가 부지기수였다.

이런 가운데 최영식 · 이명락 포교사 등은 3년째 일심정사를 찾아 장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햇수로는 3년이지만 날수로는 1000일 기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전방지역은 특히 포교사가 부족합니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다보니 포교에 나섰다가 도중하차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단 · 연대급 이상은 군법사가 상주하다시피 하며 법당 운영이 체계적이지만, 전방지역 군법당들은 법당이 제대로 구비된 곳도 드물고 법사도 만나기 힘듭니다. 포교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입니다."

최영식 포교사는 젊은 불자 양성에 원력을 세우고 한 달에 두 번 일심정사를 찾는다. 자신과의 약속이자 부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군포교는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한 터전으로 미래 불교의 대안이라는 포교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방지역 포교인력 부족은 불교계의 난제이다. 하지만 최 포교사와 같은 포교사들의 원력이 있어 일심정사만 해도 매주 30여 장병들이 법당을 찾아 불심을 키우고 있다.

최영식 포교사는 "많은 장병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먼저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군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쉬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만 군포교 활동을 하면 뜻 깊은 하루가 되고 사명감도 생긴다"며 "고령자 비율이 높고, 여성불자 수가 남성보다 높은 한국불교 상황에서 젊은 남성 불자수를 늘리려면 군장병 포교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계에서 볼멘소리처럼 끊이지 않는 지적 가운데 하나는 "사찰을 찾는 젊은 불자가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는 현실 비판의 소리가 뾰족한 대안으로 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방 군법당 포교 시각지대… 체계적 지원 시급

남성 불자수 늘리려면 군장병 포교에 주력해야

"세끼를 먹어도 늘 배고플 나이인 장병들에게 먹을거리는 중요합니다. 어떤 간식거리를 주느냐에 따라 종교시설을 찾는 장병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포교사들이 장병들 간식거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담은 전액 포교사 개인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서는 "절에 가면 잠, 성당 가면 먹을 것, 교회 가면 여자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웃종교에 비해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 지원이 열악하다는 말이다.

일심정사는 최 포교사 등의 군포교에 대한 열정이 이룬 도량이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낡고 헐던 법당을 3년 전 당시 부대장이던 고태남 중령과 선홍래 원사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 입어 새로 개비했다. 예전 천주교 공소로 사용되다 찾는 이가 없어 빈 공간이 됐던 곳을 지금의 일심정사로 단장했다.

부대장의 지원으로 마련된 공간을 꾸미는 것은 최영식 · 이명락 포교사의 몫이었다. 일심정사를 찾는 포교사들은 사비를 들여 법당에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들여 놓았다. 법당을 찾는 군장병들의 편의를 위한 보살 같은 자비심의 발로였다.

최 포교사는 "교계의 지원이 부족해 개인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단 몇 명이 오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며 "법회마다 장병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방에서의 군포교는 법사들의 사명의식이 중요하다. 이를 잘 키우려면 교계 전체와 스님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심정사를 관리하는 군종병인 조주완 상병(22)도 "개신교에 비해 불교계는 지원이 부족한 편이다. 부대 내 교회에서는 외부 교회와 단체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오지만 일심정사에서는 포교사, 연대 법사님이 사비로 모든 것을 충당한다. 가끔 부족할 경우에는 병사들의 용돈에서 충당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법회 후에는 다과와 개인상담도 이어졌다.

이날 최영식 포교사에게 교리 상담을 하던 이강민 일병(22)은 "처음에는 일요일날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왔는데 매주 법회에 참여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교를 차츰 배우게 되니 불법을 만난 것이 고맙게 느껴진다. 제대 후에도 꾸준히 신행활동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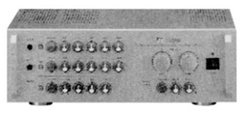
법회가 끝난 뒤 최영식 포교사와 군종병들은 기념촬영을 했다. 병사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젊고 한창인 나이에 국방수호를 위해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을 보니 기특하고 안쓰럽기도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은 딱 귀여운 군인아저씨다. 이들이 별 탈 없이 무사히 제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보여 지원하기를 발원해본다. 이나은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추 원효보살 열반 1324주기 추모대재 모



진리의 새벽을 여신
우리의 스승 **원효보살** 열반대재에
불자여 함께 모여 추모 합시다.

일 시 : 불기 2554(2010)년 5월 8일 정오
장 소 : 원효보살 성상앞 (용산구 효창공원내)

대한불교원효종 봉행위원장 향운 합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601호 ☏ 02) 735-0501 ~ 2 / FAX 02) 736-3509

제 782 호 현대불교
2010년 5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동국대 정각원
마가 스님 자비명상 특강





학생들에게 '나 예뻐요?'를 해보라며 시범을 보이는 마가 스님(위), 마음카메라의 '조리개'를 넓히고 있는 학생들.

내 자신의 주인은 '나'

"내 일은 날마다 잘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일에 매우 만족합니다. 나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 법당 안에서 100여 학생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기긍정을 암시하는 내레이션을 듣고 있다.

봄기운이 완연할 4월이지만 40년 만의 이상저온은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春來不似春)'라는 말을 절로 생각나게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봉축 분위기가 한창인 때이다. 동국대 교정에도 오색찬란한 연등이 걸렸다. 봄꽃과 어우러져 매달아 놓은 동국대 정각원 입구 연등들이 비바람에 흔들거리며 장관을 연출했다.

법당에 조용히 앉은 학생들의 불과 10여 분전 모습은 교정을 메운 생기발랄한 대학생 그대로였다. 그런 학생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씩 정각원에 모여들더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재학생 수요정기법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정각원은 불교 기본 마인드 형성과 신세대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해 2009년 9월부터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재학생 법회를 열고 있다.

4월 28일 이날은 '자비명상' 프로그램으로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법회를 진행했다.

10분 정도의 명상이 있은 뒤 마가 스님은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죠? '개인의 취향'이라던데…거기 주인공이 누구죠?"라며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손예진이요!"라는 학생들의 대답에 스님은 "손예진은 극중에서 '개인'이라는 여주인공으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해 시청률을 높이고 인기를 끌었다"면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자기역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는 곳 마다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입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스님은 "오늘 같이 춥고 비가 오는 날씨에는 짜증나는 마음 귀찮은 마음도 올라올 것입니다. 마음은 1초도 빠짐없이 외부에 반응합니다. 노예가 주인의 명령만 받아 일하듯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늘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방법 이것 하나만 배워가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학생들에게 '마음카메라' 찍기를 권하며, 양손을 모아 조리개를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3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세상에는 아주 작은 조리개로 사물을 보는 사람, 그보다 좀 크게 보는 사람, 조리개란 틀이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아주 작게 사물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욕 잘하고, 성질 나쁘고, 불평불만이 많고, 화를 자주 내죠. 쉽게 말하면 남 탓만 하죠. 그럼 조리개란 틀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부처님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마음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죠. 오늘 찍은 사진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세요. 사진을 잘 간직한 사람은 살면서 닥칠 위기와 곤경을 잘 극복할 겁니다."

지금 최선 다하는 것이 부처님 삶
'마음카메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학생들은 스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으며 따라했다.

다음은 '나 긍정명상'. 나를 긍정하고 나의 장점을 적어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스님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장점 10개를 적어보라고 말했다.

"사랑받고 싶다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자책하거나 속상해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점점 더 자신은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돼 갑니다. 여러분이 가진 장점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학생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나 둘씩 자신의 장점을 써 내려갔다.

그 중 가장 먼저 10가지를 다 채운 여학생이 일어나서 발표를 했다. "저는 튼튼합니다. 저는 잘 웃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잘 먹고 잘 잡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나의 장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우리는 자신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판단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부터 해봐야 한다.

스님은 자신의 칭찬리스트를 옆 사람과 공유하기를 주문했다. 이어 두 학생을 불러 서로 칭찬하도록 했다.

호명된 둘은 젊은 학인스님과 속가 아버지였다. 아들은 "아버지는 한번 결심한 것은 밀고나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속력이 있고 믿음직스러우시고…"라며 말을 하다가 터지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문다. 자식과 부모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나보다.

숙연한 분위기를 학생들도 느꼈다. 여기저기서 코를 훔치거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가 스님은 이들을 다독거린 뒤 옆 사람 들을 마주보게 하고 서로에게 3배를 올리도록 했다.

"자신의 마음에 자비와 사랑을 가득 채워 절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을 해보세요. 당신의 정성을 상대방이 받아서 넉넉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숙제도 내줬다. 다가오는 어버이날에 맞춰 부모님의 장점 10가지를 편지로 써서 보내라는 것.

이날 한 시간 넘게 법회에 참석한 학생의 반응은 대단했다.

박지윤(광고홍보 3년)양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아 좋다. 긍정적으로 자기암시를 하는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불교를 접목한 경영 · 광고홍보 등의 전공 수업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남을 돕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만 숱하게 들으며 살고 있다. 이런 때에 마가 스님의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비명상은 내 안의 불성을 돌아보는 또 다른 수행법이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젊은 학인 스님과 속가 아버지도 수업에 참여해 부성애를 과시했다.



자신의 장점 10가지를 적어보는 학생들.



학생들이 옆사람과 손을 잡고 자기긍정 명상을 하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화엄사 2년 중창불사 회향

부산 화엄사(주지 보혜)가 2년 여의 중창불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생활포교도량으로의 활동에 나섰다. 화엄사는 4월 25일 오전10시 화엄사 경내에서 중창불사 회향 및 불교대학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중창불사는 2년 여에 걸쳐 대웅전, 극락전, 약사전 등 도량 전반에 걸쳐 보수작업이 진행됐다.

화엄사는 이번 중창불사를 마치고 불교대학 및 신도회 운영, 사회복지 등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엄불교대학에서는 BBS불교방송에서 <금강경>을 강의 중인 활안 스님과 범어사 前 승가대학장 흥선 스님이 경전 강의를 이끌며, 주지 보혜 스님이 기초 교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염불공양회' '사찰음식 및 요리반' '거사림회' '부부모임' 등 다채로운 신행단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보혜 스님은 "고지식하고 어려운 불교가 아니라 젊고 새로운 불교로 다가가, 화엄사 도량 전체를 최대한 활용해 불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051)723-1851 박지원 기자

사하불교련 급식 기금마련 하루찻집

부산광역시사하불교연합회(회장 상연, 이하 연합회)가 무료 급식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열었다.

연합회는 지난 10여 년간 독거노인들과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을 꾸준히 이어왔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연합회사무실 및 지하식당에서 15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4월 24일 괴정동 크로바호텔 1층 커피숍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하구 지역 내 약 500여 대중이 동참했다.

혜우 스님(약수사 주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정례화해 무료급식뿐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051)208-5551

박지원 기자

범어사 3층석탑 본래 모습 찾다

23일 3층석탑 보수 마치고 사리함 봉안식

선찰대본산 범어사 3층석탑(보물 제250호)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4월 23일 경내 3층석탑 보수를 마치고 사리함 봉안식을 봉행했다.



4월 23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3층석탑 사리함 봉안식에서 정여 스님 등이 사리함을 봉안하고 있다.

이날 봉안된 사리함은 가로 · 세로 29cm,, 높이 13.5cm의 도자기로 조성됐다. 사리함 조성 · 봉안 등 역사적 기록은 동국역경원장 무비 스님과 범어사승가대학 상현 스님 등이 감수해 후대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남겼다.

사리함 안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6과와 3층석탑 관련 역사자료 1부, 대중 명단, 소탑 및 탑다라니, <반야심경> <광명진언> <육자대명왕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금강경> <법화경> 등 각종 경전과 오색천, 오색실, 오보(다섯 가지 보물), 오향(침향, 백단향, 정향, 울금향, 용뇌향), 오약, 오곡 등 17여 종의 복장물이 담겼다.

특히 사리함에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동래 법륜사 선래 스님이 기증한 것으로 미얀마 양곤시에 위치한 마하시수도원에 봉안됐던 사리다.

범어사 3층석탑은 19일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당시 덧칠된 시멘트와 변형된 기단부, 탑을 에워싼 난간 등을 복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체됐다. 범어사와 문화재청은 한 달 여간에 걸쳐 기형적인 기단부와 난간 등을 제거하고, 탑을 해체한 결과, 사리함이 있어야 할 1층 탑신부가 텅 빈 것을 밝혀냈다.

옥경석 금정구청 문화공보과장은 "탑 해체 후 봉안된 사리탑 안에는 사리 대신 깨진 유리조각과 신문지 뭉치 등으로 채워져 있어 일제의 만행을 짐작케 했다"며 "오늘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여러 복장물이 봉안되면서 범어사의 새 역사를 남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제26회 연꽃문화제 성료



제26회 연꽃문화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율동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동련 산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효선)는 4월 25일 제26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청공원 등대광장 및 옥외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연꽃문화제는 체험마당 및 그리기와 글짓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처님나라, 부처님마음, 부모님'을 주제로 이번 대회에서 김이현(초등3, 원오사 어린이회)양이 대상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부산광역시장상 조현정(초등5, 룸비니어린이회) · 신미숙(초6등, 광명사 어린이회) 등 총 25명이 수상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삼독심을 없애자!' '상상력을 펼쳐라: 낱말 찾기' '일어버린 부처님 손을 찾아요' '미니월드컵' '탑쌓기' '합장주 만들기' '사경' 등 다양한 놀이마당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051)864-4569

박지원 기자

장애인 놀이공원 관람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놀이기구 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는 4월 26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놀이공원 미월드(대표 김성규)에서 '장애인과 하나 되는 부산불교'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역 내 장애인 30여 명을 초청해 야외 체험활동과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장애우들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놀이기구를 탑승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설동근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이번 행사 개최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부산 불자들이 하나가 되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동근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하는 데 있어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손 내미는 자비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불교련, 천안함 분향소 조문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4월 27일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합동분양소를 찾아 조문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연합회) 임원진 스님 20여 명이 부산역광장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4월 27일 오후 5시 연합회 임원진 스님들은 부산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함께 <반야심경> 봉독 및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정여 스님은 "나라를 지키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던 젊은 장병들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다"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는 국방과 재난을 극복하는 힘을 더욱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위로금을 모연해 유가족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김춘식 부산불교방송산악회 회장

"산행으로 불성의 씨앗 싹틔우길"

"산 정상에서 갖는 산상법회나 사찰답사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오가는 등산객들에게도 포교할 수 있는 일석이조 포교방법입니다."

4월 25일 경북 청량산 입구에 부산불교방송산악회(회장 김춘식, 이하 불교산악회)와 대광명사(주지 목종),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 등 3개 단체의 200여 명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춘식 산악회장은 "1993년 부산불교산악회 활동을 할 당시만 해도 저는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산행을 하고 인근 사찰을 답사하면서 자연스레 불교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불교대학에 입학해 조계종 부산경남포교사단 부단장으로도 활동할 수 있었다"며 "산악회가 나를 불자로 만들어줬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산행의 즐거움 속에서 불성의 씨앗을 싹틔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불교산악회는 사찰 아래 두들마을에서 출발해 청량산 장인봉에서 산상법회를 가진 후 청량사(주지 지현)에 도착했다. 청량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한 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목종 스님은 "산사순례와 산행을 결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다"며 "산사순례가 점차 관광화돼 아쉬웠는데, 순수한 순례로의 의미를 되찾고 산행을 통해 하심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보통 산행지의 선정기준은 산세가 아닌 전통사찰위주로 코스를 정한다. 국내 1500여 개 전통사찰은 대부분 역사,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수많은 고승의 수행처였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뒤따르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사찰문화, 문화유산 해설사 중에는 의외로 이웃종교인이 많은데 이들은 문화재 해설 외에 불교 교리나 속에 담긴 깊은 불교적 의미는 모르고 지나쳐 늘 아쉬웠다"며 "사찰의 창건설화, 도량의 불교학적 배치, 현판에 담긴 숨은 뜻 등은 되도록 자세히 소개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방송산악회 김춘식 회장은 산악활동을 하며 사찰을 답사하고 불교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던 김 회장은 지금은 산사순례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칠만큼 신심깊은 불자가 됐다.

김춘식 회장은 "이제 자신에게 산악회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처음 절에 발을 들여놓고, 불교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해준 산악회의 인연 덕에 김 회장은 한 달에 2번씩 18년간 500여 차례 산을 오르내렸다.

김춘식 회장은 "사찰은 불교의 세계관인 화엄 사상으로 가득하다"며 "불교는 우리가 평소에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다시 그 존재를 재발견하게 한다. 산은 그런 지혜를 알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라고 말했다. 010-3838-2019 김춘식 회장 박지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 Shop
불맞이 Sale 사은품 증정

족욕기 145,000
☎ 02)2004-8216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 시작 조심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봉축등 밝히며 평화·화합 서원

<燈>

전북봉축위, 불교문화유산 사진전 - 여수지역 준비 한창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봉축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호남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봉축행사가 전개되고 있다.

전라북도봉축위원회는 4월 24일 전주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봉축 기원등 점등 법회 봉행을 시작으로 봉축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5월 1~14일 제1회 불교문화유산 사진전을 개최해 백제불교문화를 알리고 있다. 여수 지역 복지기관과 불교계 어린이집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왼쪽)전북 봉축위가 4월 24일 전주 종합운동장 광장에 점등한 기원등. (위쪽)제1회 전북 불교문화유산 사진전에 전시된 보물236호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 사진.

◇천안함 희생 장병 기리는 점등 행사

전북 봉축위는 4월 24일 전주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봉축 기원등 점등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46명의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재에 이어 점등, 축원,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은 "부처님의 가피로 인류평화가 성취되고 7000만 민족의 대화합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며 "전쟁과 테러, 질병과 빈곤, 이념갈등, 노인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때까지 수행과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행복과 안락, 평화와 자유를 위해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전북 봉축위원회는 5월 1일 전북교육문화회관 2층 전시실에서 제1회 전북 불교문화유산 사진전을 개최했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사진전에서는 전북 지역에 산재한 국보·보물급 불교문화유산 중 석탑·석등 43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금산사, 선운사, 전주 영산회가 뜻을 모아 2009년 8월부터 9개월에 걸쳐 전북 지역 석탑·석등을 촬영했다.

또, 부여박물관의 협조로 부여 정림사지 석탑과 미륵사지 석탑이 조성된 이후부터 고려시대까지 충남·전북 지역에 조성된 백제계 석탑 사진자료도 함께 전시해 백제계 석탑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원행 스님은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부처님사리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들은 여기저기 뿔뿔히 흩어져 있고, 완주고산 봉림사지 석탑과 석등들은 일제 때 강제로 옮겨져 군산 발산리 초등학교 교정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며 "불자들이 문화유산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호해 찬란한 기풍이 면면히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효석 전주영상회 회장 "9개월에 걸친 촬영 기간 동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참된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불교문화유산을 남긴 선조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시를 통해서나마 우리들 마음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서도 봉축 한창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중이다.

여수 보문복지회(대표 진옥) 산하 어른요양기관 하얀연꽃(원장 현빈)은 사찰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설 내에서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5월 21일 강당에서 진행되는 하얀연꽃 발원봉축행사는 60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육법공양,관욕의식,탑돌이 등의 의식과 함께 봉축한마당 잔치도 열린다.

동여수노인복지관(관장 김가현)과 여수시노인복지관(관장 심미경)은 5월 19 ~ 20일 노인위안잔치와 아기부처님 관불의식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7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문숙)은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연예인 문화공연과 무료점심식사, 노래자랑, 선물증정 등이 진행된다.

여수지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와 교육도 마련했다. 여수 연꽃어린이집(원장 이경임)은 부처님오신날 당일 어린이들과 연등 만들기, 부처님오신날 재롱잔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옹달샘어린이집(원장 문복지)은 부처님오신날 이전 1주일을 봉축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부처님 알기 행사를 진행한다. 교육은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 일대기, 연등 만들기, 관욕의식, 육바라밀체험 등이다. 특히 육바라밀 체험은 육바라밀을 놀이와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친숙하게 배우고 실천하는 체험학습으로 눈길을 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름다운 길 함께 걷기

김제 금산사 비롯한 모악산 일원서 개최



4월 24일 열린 종교명소 걷기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전북의 종교명소를 순례하는 걷기 행사가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모악산 일원에서 개최됐다.

4월 24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안민순 원불교 중앙본부 교화원장, 김영수 신부, 양진규 목사를 비롯해 김완주 전북도지사 부부, 문화체육관광부 김동규 종무관, 전재수 종무제2담당관, 김명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비서실장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걷기 행사는 김제 금산사를 출발해 금산교회, 수류성당을 거쳐 완주 안덕마을, 건강힐링센터에 이르는 19.8km 순례길을 걸으며 역사문화 탐방과 종교간 화합을 도모했다.

출발에 앞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지역의 문화·역사를 이해하고 종교·계층간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례길은 지난해 전라북도와 한국순례문화원이 4대 종교 성지가 있는 전주, 완주, 익산 종교 성지 순례길 180㎞에 김제 모악산 지역 20km를 추가해 총 200km에 이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 모두 찬불가로 '드레드레'

광주 광덕사 찬불가단 창립

스님과 재가불자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찬불가단이 창립됐다.

4월 23일 광주 광덕사는 찬불가 보급을 위한 연주단 '드레드레' 찬불가단(단장 한장수)을 창립하고, 제1회 창립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 석두 스님(광제사 주지) 등 주변 사찰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자가수와 기타·드럼 연주자들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여럿이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는 뜻에서 지어진 '드레드레' 찬불가단은 광덕사 주지 우진 스님을 주축으로 조직됐다. 평소 통기타 연주를 즐겨하던 우진 스님은 새로운 포교를 위해 찬불가를 만들고 알리는 일을 기획했다.

광덕사에서 수행하던 피아노 연주가 한장수 단장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찬불가단을 결성하기 시작해 현재 만년사 정단 스님 등 16명의 회원이 동참했다.

찬불가단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구분없이 즐겁게 불교를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자가수 주권기· 박소영씨, 한장수 단장 등 전문 음악가들이 참여했다. 우진 스님과 정담 스님은 기타를 담당하게 된다.



광주 광덕사 찬불가단 '드레드레' 창립식이 4월 23일 개최됐다. 이날 창립공연에서 찬불가단이 첫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우진 스님은 "찬불가를 비롯해 지역 불교음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장수 단장은 "기존 찬불가를 비롯해 경쾌한 찬불가를 직접 작곡하고, 스님이 직접 가사를 써서 찬불가를 알리고, 만들면서 즐기는 포교를 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찬불가단 활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가족과 이웃이 모두 동참해 즐거운 음성공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레드레 찬불가단은 광덕사 내 학당에서 매주 2회 정기 연습을 진행한다.

만년사, 증심사, 문빈정사를 시작으로 매월 각 사찰에서 정기공연을 진행한다. 매달 4째 주 금요일 정기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단청문화 우리 전통문화"

화순 쌍봉사 전통문화체험 행사



단청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들이 채색에 집중하고 있다. 영제 스님(왼쪽)은 이날 참가자들에게 단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청 그리기를 도왔다.

화순 쌍봉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광주지역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 쌍봉사(주지 영제)는 4월 24일 광주 무등산 입구 운림제에서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문화 체험프로그램은 쌍봉사가 도심에서 멀리 위치해 신도들이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교문화를 광주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통문화체험으로 진행중인 단청 그리기는 평소 사찰에서 보기만 하던 단청을 직접 그리고 채색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온가족이 함께 읽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어린이 불서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임진왜란의 참화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호국승병장 사명대사의 생애

중생들의 더 큰 희생을 막고자 스스로 지옥에 떨어질 각오로 목탁 대신 창과 칼을 든 의승병들과 사명대사는 그 시대 진정한 보살도의 실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명대사의 승려로서의 삶과 승병장으로서의 삶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184쪽/10,000원



부처님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47개의 이야기 보따리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와 교훈!

고난을 견뎌내는 끈기와 인내,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난관을 돌파하는 지혜, 힘없는 이를 위한 한량없는 자비와 희생정신, 역경을 돌파하는 용기 등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168쪽/9,800원



춤추는 스님, 원효대사

한국의 가장 위대한 고승이자 세계적 사상가인 원효스님의 생애!

불교의 본토인 인도와 중국에까지 그 이름을 떨쳐 '해동의 성자'로 불리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세계적 저술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인이자 온몸으로 행동하는 실천가, 원효스님의 삶과 사상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188쪽/9,800원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이야기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208쪽/10,000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교훈적인 내용들을 간추려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206쪽/9,000원

재미있는 비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백유경〉을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며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왕눈이 스님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46쪽/7,800원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법맥을 이은 편양 언기 스님의 생애와 구도정신, 보살행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어린이를 부처님 세계로 이끄는 맑고 유쾌한 불교 동시

부처님 나라 개구쟁이들



이봉직 동시 · 용정운 그림/사륙배판 변형/컬러/112쪽/8,500원

천진한 동심이 바라본 절집안의 풍경, 그리고 기발하고 생기발랄한 상상력



죽비 소리

딱! 소리
한 번이면 되지요.

선생님처럼
아빠, 엄마처럼

잘못을 깨우쳐 준다며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부끄럼 주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면
내 잘못이 뭔지
알게 됩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말 그대로 법, 움직임 그대로 덕이어서 '왕위의 왕'



33 객지로 떠난 부도를 그리는 법천사지

일제 때 반출됐다 돌아와 '객지생활' 현묘탑 화려함의 극치
다섯 왕 귀의 받으며 시대를 이끌었던 법력 촘촘이 새겨

"바깥 날씨가 어떠한가?"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한마디도 없이 적멸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게송도 사후(死後)의 일을 당부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고려 문종 21년(1067) 10월 23일. 당대의 큰 스승 지광국사(智光國師 984~1067)는 그렇게 조용히 가을비 속으로 떠났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대로 법문입니다. '한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경우도 많고 낙엽이 지듯 그렇게 조용히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대로 법문일 뿐입니다. 임종게를 남기고 제자들에게 사후의 일을 부탁하는 친절함도 법문이고 바깥 날씨나 물어보고 가버리는 죽음도 법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에 있는 법천사지를 찾아 갑니다. 지광국사가 출가한 곳이고 이슬비 오는 가을밤에 이승 인연을 마친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가람이었을 그곳이 지금은 빈터입니다. 몇 채의 농가가 봄 농사 준비에 바쁘고 땅에서는 파릇파릇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몸통이 텅 빈 아름드리 느티나무도 가지마다 새순을 틔우고 있습니다. 사지발굴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저기 금줄이 쳐 있고 석재들도 모아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을 전체가 절이었을 너른 바탕의 사지, 그 북쪽 산비탈에는 건물터들이 반듯하게 정돈됐는데 전체 사역에 비해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리된 건물터 뒤로 우뚝 솟아 있는 하나의 비석이 마을을 들어서면서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지광국사현묘탑비(국보 제59호)입니다. 금줄이 쳐진 능선을 따라 100m 쯤 올라가니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탑비가 서 있고 그 뒤와 옆은 높은 단을 이룬 건물자리, 그 앞은 광배와 탑 등으로 쓰였던 석재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현존 탑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걸작으로 꼽히는 지광국사현묘탑비. 그 앞에 서니 눈을 부릅뜬 용이 "뭐 하는 놈이냐?"고 호통을 치는 듯합니다. 거북의 몸에 용의 머리를 한 귀부는 매우 선명한 조각이어서 살아 있는 듯합니다. 고달사지에서 만난 귀부가 빗돌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짊어지고 있었다면 법천사지의 귀부는 빗돌과 이수를 고스란히 떠받친 채 천년 세월의 무상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등에 새겨진 육각의 무늬마다 왕(王)자를 새기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왕권국가에서 누구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글자를 등 가득 새기고 있으니 지광국사의 법력이 당대에 얼마나 크게 떨쳤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빗돌의 정교한 글씨와 편액을 장식한 비천상과 해와 달 등 다양한 문양, 그 속을 노니는 봉황의 자태는 깨달은 사람의 생애를 더욱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문은 고려 문종 때의 명신 정유산이 지었고 글씨는 안민후가 구양수체를 따라 차분하고 정려하게 썼으며 글새김은 이영보와 장자춘이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해당분야에 당대 최고로 꼽힌 거장들이었습니다. 빗돌의 측면은 아주 선명하게 운룡문이 새겨져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몸을 뒤틀면서 치솟는 용의 기상이 정밀하고 힘찹니다.

이수의 화려함도 문자로 표현하기가 난감할 지경입니다. 촘촘한 연꽃잎이 떠받치고 있는 이수의 전체를 영기문처럼 묘사된 구름이 뒤덮고 있고 그 속에 여의주를 다투듯 꿈틀거리는 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수는 용의 몸통을 두드러지게 하고 장식삼아 구름을 새기지만 이 탑비는 구름과 용의 움직임을 차별 없이 묘사하며 화려함을 더한 것입니다. 보주도 잘 보존되어 있어 하늘로 치솟는 탑의 정점이 말끔합니다. 탑의 높이는 4.55m에 달합니다.

탑비 앞에 서면 누구나 '도대체 어떤 스님이었기에?' 하는 의심이 생길 겁니다. 그 답은 비문 속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짚어 봅니다. 우선 비문을 시작하는 대목에 지광국사의 법호가 길게 나열됩니다. 지광국사는 고려 초기의 여섯 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종의 시대에 태어나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까지 다섯 왕으로부터 지극한 귀의를 받았습니다. 왕들은 많은 법호(법칭)를 증정하며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법호는 강진홍도(講眞弘道) 명료돈오(明了頓悟) 계정고묘응각(戒正高妙應覺) 탐현도원(探玄道源) 통제연오법동(通濟淵奧法棟) 구행료성도수(具行了性道首) 융소(融炤) 랑철(朗徹) 등 8개가 열거 되고 있습니다. 법호들은 선승으로 교학에 정통한 학승으로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지계승으로 국사의 풍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적 후에 왕이 내린 시호 지광(智光)이 따라 붙고 탑호 현묘지탑(玄妙之塔)이 붙었으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또 하나 짚어 볼 것은 비문의 내용에서 지광국사를 부처님 이래 여러 성인에 비유한 대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으로 지어진 비문이고 당대 스승의 생애를 기록한 글인 만큼 다소 과장했다 치더라도 어색함이 없이 국사의 행화를 찬술하고 있습니다.

'탁태할 때 그윽히 왕소(王邵 중국 진나라 때의 호연지기가 강했던 인물)의 경우와 같았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장(老莊)의 개설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스님은 아무렇게나 말을 하여도 곧 훌륭한 문장을 이루게 되었으니, 혜거(惠據 북송 때 범패에 능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스님)의 문장력도 혼비백산 하였고...' '아주 많은 서적을 독파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혜초 스님을 능가하였다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 밖에도 지광국사의 문장은 이태백의 시를 능가했다 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입적한 일에 대해서는 '사리불이 입적함에 당하여 무색계의 제천(諸天)이 흘린 눈물이 마치 봄에 내리는 이슬비와 같았으니, 지금 국사께서 시화(示化)하던 오늘 밤에 내린 비인들 어찌 제천이 흘린 눈물이 아니겠는가'라고 극찬해 마지않았습니다. 또 지광국사가 입적하기 전날 밤에 등불만한 두 개의 별이 나타났고 두 줄기의 큰 무지개가 섰는데 마치 두 마리의 적룡(赤龍)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 같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광국사가 입적하자 왕(문종)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며 장례에 대한 각종 지원을 했습니다. 시호와 탑호를 내린 것은 물론이고 특사를 보내 장례를 감호하게 했으며 차와 향 기름 등을 하사하며 원주 창고에 있는 양곡으로 필요한 경비에 조달초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이 비문에 낱낱이 기록된 것은 지광국사의 도력과 당시 사람들의 존경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불교에 대한 왕실과 백성들의 귀의심과 존경 또한 시대를 덮은 정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는 건국 때부터 불교를 국교로 숭상했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불교는 세속화되어 전답을 지나치게 소유하고 심지어 노비까지 부리며 권력화 되어 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가 경계해야 할 것은 권력과 재물입니다. 한 시대의 스승으로 존경 받는 수행자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주변에 놀고먹는 가짜수행자들이 들끓는 것도 중생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광국사처럼 여러 왕으로부터 지극한 존경을 받는 스승이 있는 동안 승단의 다른 수행자들도 간단없는 수행으로 국사의 법향을 체득하고 유지했다면 그 시대는 극락의 시대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식과 가짜 수행자가 공존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물질문명의 시절인연을 허둥지둥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돌아볼 때입니다.

경복궁 앞 뜰, 고궁박물관 뒤편은 한적한 공간입니다. 광화문 복원공사가 한창이고 키 큰 은행나무에서는 새 잎이 돋느라 분주합니다. 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101호).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부도는 지금 객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박명(佳人薄命)이라 했던가? 크기(높이 6.1m)로 보나 화려한 조각으로 보나 가히 최고의 걸작으로 꼽힐만한 이 부도는 일제강점기 때 오사카까지 반출됐다가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탑비가 있는 법천사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만 경복궁 앞뜰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자리였고 해방 이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습니다. 함께 객지생활을 하던 거돈사지 원공국사 부도나 흥법사지 진공대사 부도 등은 다시 용산에 세워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광국사현묘탑만 오래전에 떠났다가 반드시 돌아올 그 누구를 기다리는 모양새로 적요한 뜰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묘탑은 다른 부도와 달리 탑 형식으로 세워졌습니다. 엄연한 부도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탑(불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층탑이라는 형식이 불탑이 아님을 알게 하는데, 어느 한구석도 빈틈을 주지 않고 오밀조밀하게 문양을 새겨 넣은 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지대석과 하대석 네 모퉁이에 용의 발톱 같은 것이 굵직하게 놓여 있고 페르시아 풍의 주름커튼이 묘사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예사로운 정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몸돌 아래까지를 무려 7층으로 떠받친 결구 형태와 다소 이국적인 문양을 강조하며 몸돌을 감싼 조각들, 화려한 옥개석과 보주도 선명한 문양을 그대로 지닌 채 하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사람의 솜씨인가 의심하게 하는 걸작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현묘탑은 날이면 날마다 무심하게 지나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원주 법천사터 그 아름다운 언덕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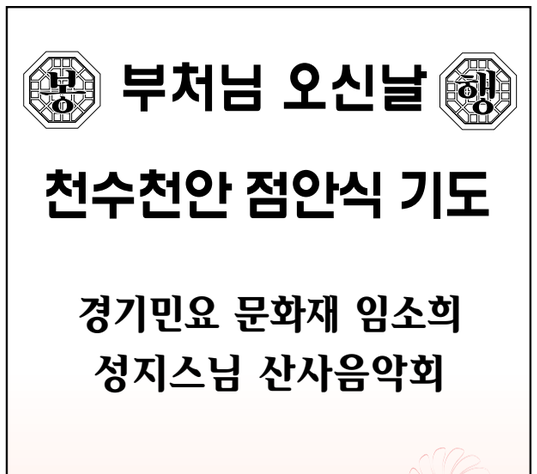
경복궁 뜰에서 객지생활을 하는 지광국사현묘탑. 제자리로 돌아갈 날은 과연 오는 것인가.



탑비와 부도전이 었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 등이 법천사의 옛 규모를 짐작케 한다.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4>

진정한 선사는 평범하다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화상의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베풂이 없다."

問 如何是和尙意 師云 無施設處

선(禪)을 알리려면 진심직설(眞心直說)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잎을 설명하고 가지를 소개하는 방법으로는 선의 핵심을 깨닫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사들은 지름길을 알려주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가 하면 한 칼에 베어 버리기도 했다. 아무리 가르쳐주기를 간절히 애걸복걸 청해도 한 마디도 베풀지 않기도 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하다 할지 몰라도 나중에 깨닫고 보면 선사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문답에서 조주 스님이 "베풂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자상한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바로 가는 방법을 지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멸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이 조주가 사람을 접화(接化)하는 뜻이다.

조주 스님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덕산 스님은 주장자를 내리쳐서 가르쳤고, 임제 스님은 소리를 꽥꽥 질러서 사람을 놀라게 했고, 목주 스님은 찾아온 사람의 발목을 부러트리고, 달마 스님은 팔을 끊어 바치게 했으니 선의 냉혹함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망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조주 스님이 상당해 설법했다.
"형제들이여, 다만 과거를 고치고 미래를 닦으라. 만일 과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대들을 놓아둘 장소가 마련돼 있다."

師上堂云 兄弟但改往修來 若不改大有著你處在

수행은 다만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습성을 고치는 것이다. 사람 자체는 원래부터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은 잘못된 앎과 습성으로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무엇이 될 것은 없다.

간혹 부처가 되겠다고 기를 쓰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이다. 그렇게 수행해서는 1000만년을 지내면서 수행한다고 해도 절대 부처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머리를 두고 머리를 찾는 것과 같고, 옷 속에 보배가 있는 데도 알지 못하고 걸인이 되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

이 법은 다만 자신의 출신을 한번 깨닫고 바로 부처의 길을 가면 그만이다. 혹 수행이 필요하다면 과거의 행위를 고치는 것일 뿐이지, 새로운 무엇이 될 것은 없다. 이것을 모르고 과거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있거나, 과거의 악습을 고치는 것은 제쳐두고 엉뚱한 경계를 얻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면 머지않은 날에 쓴 맛을 보고 말 것이다.

"노승이 이곳에서 30년을 살아왔는데 선사(禪師)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설사 왔다고 해도 하룻밤 한 끼를 먹고는 서둘러 떠나거나 또한 따뜻한 곳을 찾아 가버렸다."
한 스님이 물었다.
"홀연히 선사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1000근이나 되는 노(弩:활 종류)는 생쥐 따위를 보고 쏘지 않아."

사람은 본래 깨끗해 아무 문제가 없다
잘못된 앎 · 습성으로 중생의 삶을 사는 것
부처가 되려는 수행은 어리석은 짓

老僧在此間三十餘年 未曾有一箇禪師到此間 設有來一宿一食急走過 且趁軟軟暖處去也 問 忽遇禪師到來 向伊道什麼 師云 千鈞之弩 不爲鼷鼠而發機

신라시대 명노사(名弩師) 구진산(仇珍山)은 여러 개의 활을 날릴 수 있는 강한 노(弩:쇠뇌, 활)를 만들었다. 기원전 200년 경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는 힘이 얼마나 셌던지 무쇠 솥 정도는 가볍게 들었다.

선사? 누가 선사인가? 조주 스님은 지금 30년을 지내보지만 선사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1000근이나 되는 노(弩)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선사에 비유한 것이다.

스스로 선사라 칭하면 벌써 선사가 아니다. 한낱 남의 물건을 도둑질이나 하는 생쥐에 불과할 뿐이다. 조주 스님은 진정한 선사라면 그런 엉터리 선사와는 아무런 대담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선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선사라 칭하지 않는다. 이 법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된다. 진정한 선사는 평범하다. 아무 것도 내세우지 않고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다. 만일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거나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형제들이여, 만일 남쪽에서 오는 자가 있으면 곧 그 사람을 위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줄 것이고, 북쪽에서 오는 자가 있으면 곧 짐을 실어줄 것이다. 까닭에 이르기를 '상급 인물에 다가가서 도를 물으면 도를 잃고 하급 인물에 다가가서 도를 물으면 도를 얻는다'라고 했다."

師云 兄弟若從南方來者 卽與下載 若從北方來卽與裝載 所以道 近上人問道卽失道 近下人問道者卽得道

이 설법은 조주 스님이 유난히 북쪽에서 온 납자들을 싫어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남쪽에서 온 자라면 짐을 덜어주지만 북쪽에서 오는 자들은 스스로 짐만 짊어지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급인을 가까이 하면 도를 잃지만 하급인을 가까이하면 도를 얻는다고 짤막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조주 스님의 저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추측컨대 여기서 북쪽은 북종선을 두고 한 말로 보여 진다. 육조 혜능 스님이 선법을 펼치기 시작한 이래로 북쪽은 신수종이라 해 닦는 것을 강조한 선불교의 교세를 확충시켰고, 남쪽은 혜능종, 혹은 돈종(頓宗)이라 해 깨닫는 즉시 닦음도 마친다(悟人頓修)는 선법으로 나뉘어 있었다.

홍인의 법은 홍인의 신수를 제치고 혜능에게 전해졌지만 나중에 신수는 북쪽에서 선법을 크게 펼쳤다. 신수는 국사의 지위까지 이르러 개인적으로도 크게 성공했다. 반대로 혜능은 남쪽에서 선법을 펼쳤지만 혜능은 글자를 모르는 나무꾼 출신이고 거의 산중에서 생활해 남쪽 선객들 사이에서만 이름이 높았다.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의 법을 이었고 남전은 육조 혜능 계열의 제자이다. 따라서 조주 스님의 선법은 돈법(頓法)이고 깨닫는 즉시 닦음도 마친 붓다임을 강조한 선법이다. 조주 스님의 이러한 선법은 남종(南宗)의 문하라면 즉시 이해되는 선법이고 그동안 쌓아온 온갖 지식을 떨쳐버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짐을 덜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북종(北宗)의 문하라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더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9

법과 이치에 맞아야 한다

#예배하는 법

예배는 항상 법에 맞고 이치에 맞아야 하느니라. 이체(理體: 만유의 본체)는 안으로 밝지만 작용의 모습은 밖으로 변하므로 이치는 버릴 수 없지만 현상에는 드러나는 것과 숨은 것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도리를 알아야 비로소 법에 의지한다 할 수 있느니라. '예(禮)'라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이고 '배(拜)'라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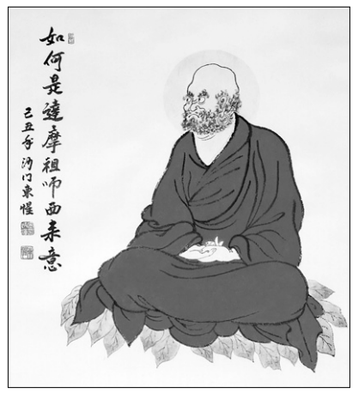
진실한 본성(진여, 법성)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을 예배라 하느니라. 공경하기 때문에 감히 헐뜯지 못하고 굴복(항복)시키므로 제멋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쁜 마음을 영원히 없애고 착한 생각을 항상 지닐 수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예배하고 있는 것이니라.

수용하면 나타나고 버리면 감추어지는 것이라 밖의 행동(밖의 예배)으로 안이 밝아지는 것은 성품과 모양이 서로 상응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깥 모습의 예배에만 집착하면 안으로 탐 · 진 · 치의 마음을 제멋대로 풀어놓은 것이 되므로 항상 나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만 절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고 거짓으로 공경하는 것이 되니 어찌 예배라 할 수 있겠느냐.

현명한 사람을 흘리는 짓이고 성인을 속이는 짓이므로 반드시 윤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達磨坐禪圖1 · 46 x 51cm. 동성 스님 作.

[원문]

見爛壞死屍 稱名有命 必無是處 又禮拜者 常如法也 必須理體內明 事相外變 理不可捨 事有行藏 會如是義 乃名依法 夫禮者敬也 拜者伏也 所謂恭敬眞性 屈伏無明 名爲禮拜 以恭敬故 不敢毁傷 以屈伏故 無令縱逸 若能惡情永滅 善念恒存 雖不現相 常爲禮拜 其相者則身相也 欲爲令諸世俗 表謙下心 故須屈伏外身 現恭敬相 用之則現 捨之則藏 擧外明內 性相應也 若復不行理法 有執外相 內則迷故 縱於貪嗔癡 常爲惡業 外則空顯身相 何名禮拜 欺賢 聖 必不免於輪廻

[해설]

예배는 일상에서 하는 행동이 법에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부처님을 알아야지 형상과 이름의 부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를 깨달으신 후 "부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라고 했습니다.

"현상계는 드러나는 것과 숨은 것이 있다"는 뜻은 정진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안과 밖이 없는 소식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부처님은 모양이 없지만 모양이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고 말씀 했던 겁니다.

모양이 없는 본래 자리에서 인연을 따라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색(色)은 물질(현상)을 말하고 공(空)은 근본을 말하며 근본과 물질은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경한다고 했을 때는 대상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부처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과 물이 둘인 것 같지만 물이 찬 기운을 만나서 얼음이 됐을 뿐 결국 얼음과 물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라고 한다면 마음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부처님입니다. 진리에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대상이 모두 공경의 대상이라는 얘깁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육신은 진짜가 아닌데 우리는 이 육신으로 인해 업을 짓고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전자현미경으로 비춰보면 모두 텅 빈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나라는 것이 본래 없으니까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의 마음자리에 두고 항상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수행자들은 상을 내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행주좌와(行住坐臥)가 돼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정진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하는 것입니다. 법당에서만 절하고 정진하는 것은 진정한 불자의 삶이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있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는 밖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성현들이나 영가의 세계는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벽이 없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현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어도 마음에서 욕심을 끊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있거나 없거나 내 공부는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이나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만 일러 주는 것입니다. 길은 일러주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본인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教儀式 (법음·법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눈앞에 펼쳐진 현상세계 그대로가 空

태안사 원각선원장 일오 스님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인 9~10세기, 당나라에 들어가 법을 구한 선승들이 귀국해 개산한 선종의 아홉 산문을 일컫는 구산선문(九山禪門). 구산선문의 전개는 교학불교의 한계를 뛰어넘어 훗날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수행전통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됐다.

현재 구산선문 가운데 선종 사찰로서 명맥을 잇고 있는 곳은 홍척 국사가 남원군 산내면에 개산한 실상산문, 혜철 국사가 곡성군 죽곡면에 개산한 동리산문, 도현 국사가 문경군 가은면에 개산한 희양산문이 있다.

4월 26일, 9년 만에 다시 찾은 동리산문 태안사(주지 각일)의 호젓한 산길은 여전히 비포장 도로로 남아 있었다. 840번 지방도로에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약 2㎞ 정도의 길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담백한 아름다움으로 걷기 좋은 숲길이다. 신라 경덕왕 원년(724년)에 혜철 선사가 창건한 태안사는 인근의 화엄사와 송광사를 말사로 거느릴 정도의 거찰이었지만 지금은 선원 위주로 운영되는 조용한 수행도량이 됐다. 태안사 하면 떠오르는 선지식은 청화 스님(1924~2003). 1985년 태안사 주지를 맡은 청화 스님은 절을 중창하고 염불선을 선양하며 동리산문의 선풍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종무소에서 잠시 머문 후, 15분 정도 소요되는 산길을 따라 명적암에 올랐다. 이곳에 주석하며 수좌들을 지도하고 있는 원각선원 선원장 일오 스님은 2004년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열린 7인 선사 법회에서 처음 대중 앞에 등장해 선법문을 펼쳐 많은 수행자들에게 환희심을 준 선승이다. 1965년 출가한 이래 오로지 제방선원에서 수행에만 매진해 온 일오 스님은 초기불교를 바탕으로 한 자상한 선법문으로 난해한 선(禪)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스님은 대중설법보다는 선원에서 수좌들과 함께 정진하며 먼 길을 찾아오는 구도자들을 상대로 길을 안내하는 역할에 자족해 왔다. 이번 방문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어하는 여러 불자들의 뜻을 모아 그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대신 전달하고 싶은 여망을 담아 이뤄진 셈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로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인데, 내가 무슨 법문을 한다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인터뷰를 거듭 사양하며 차나 마시고 가라는 일오 스님에게 이런 때일수록 스님들의 안심(安心)법문이 더욱 절실하다며 간곡히 법문을 청하니, 스님은 이윽고 웃으며 응낙하신다.

-일반 불자들은 격외도리(格外道理)를 담은 큰스님들의 선법문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초기불교를 곁들이며 선 도리를 설법해 불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연기법을 강조하시는 데, 그 까닭이 궁금합니다.

"격외도리를 아무리 잘 설하고 선문답을 아무리 기상천외하게 하더라도 무심(無心)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지해종사(知解宗師)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緣起)를 보는 자 나를 본다'고 했듯이, 연기란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기에 꼭 알아야 합니다. 연기의 근본은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으로, 견성과 무아의 도리를 깨닫는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일체의 존재가 인연화합으로 생긴 것이라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존재하는 줄 알고 집착하면서 '나' 본위로 살다 보니 탐진치에 끄달려 허우적 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를 미진축망(迷眞逐妄) 또는 '미기축물(迷己逐物)'이라고 합니다. 망상에 빠져 진리를 잃고 헤맨다, 물질인 대상에 정신이 팔려 자기를 잃고 헤맨다는 뜻입니다. 일체 현상계가 실체가 없음이 마치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같은 [如夢幻泡影] 줄 알게 되면 속지 않게 됩니다."

초기불교의 사띠는 간화선의 성성적적하는 것

존재의 실상 바로 보는 연기는 중요한 가르침

-연기를 공 도리로 풀이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연기의 도리는 팔만대장경의 근본 뜻을 함축한 반야심경 260자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즉,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와 액을 넘어섰다고 하는 법문이 핵심입니다. 오온은 바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인데, 이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육근(六根: 주관)이 육경(六境: 객관)을 접촉해서 육식(六識: 인식작용)이 일어난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고,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양 살아갑니다. 이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연기설법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것이 환상이요 꿈인 줄 아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무아나 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고, 보살의 만행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고 해놓았지요. '오온개공(五蘊皆空)'이 이해가 안 되니까 색과 공이 둘이 아닌 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기 즉 공'이라 하니까 물질이 다 없어진 상태가 공인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나툰 색 이대로가 곧 공인 것입니다. 인연화합 되어 눈앞에 펼쳐진 현상세계 그대로가 공이란 말입니다. 무아, 공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정불변의 실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를 말하면서 부득이 진아(眞我)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빠사나 수행자들은 간화선이 경전적인 근거가 없는 수행법이라며 비판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수행법의 공통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초기불교나 대승불교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인데, 잘못 보니까 오해를 하고 서로 비방하는 업을 짓는 것입니다.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사띠(sati) 즉, 마음챙김은 내 본래 마음자리를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화선으로 말하자면 성성적적(惺惺寂寂: 고요하고도 또렷한 마음상태)하기 위해서 마음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면목이니 주인공이니, 한물건이니, 참나라고 하는 말은 찾아야 할 그 무엇이 따로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붙인 명칭에 불과합니다. '사띠'라는 것은 항상 드러나 있는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는 이 마음자리를 마음챙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요놈'을 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임제스님이 '다만,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그것,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어딜 가든지 의심할 것 없는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문수다' 라고 한, '눈앞에 벌거벗은 한 놈'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이 마음을 늘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잘나잘나 생멸을 거듭하는 '거짓나'를 마음챙김함으로써 육근 · 육진으로부터 벗어난 참나로 홀로서기 하는 것이 수행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이후에 늘 위빠사나로 마음챙김을 하셨다는데, 참선할 때 잠든 이후의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이 잠이 든 때도 한결 같아야 한다는 숙면일여(熟眠一如)를 말하지만, 숙면의 상태에서는 의식이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이 든 상태에서 공부한다기 보다는, 평소의 마음챙김이 한결같아서 잠들기 직전 알아차림이 잘 가다듬어 있다면 숙면일여가 가능합니다. 잠들기 전에 화두가 잘 들려있으면,

일오 스님은 …

1943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5년 월인 스님을 은사로 함양 상연대에서 출가했다. 1971년 화엄사에서 도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73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7년 강진 만덕사, 1992년 사천 구룡사에서 잠시 주지 소임을 살았지만 행자시절부터 줄곧 전국의 선방에서 안거에만 매진해 왔다. 부안 월명암 사성선원장을 맡은 후 5년 전부터 곡성 태안사 원각선원장을 맡아 선풍 진작에 앞장서고 있다.



이름다운 연꽃!
향기로운 연꽃!
집에서 키워 보세요.

보현선원에서 연꽃새싹을 불자님께 무료로 분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꽃 등 밝히듯 내 마음도 연꽃같이 되길 발원하며 예쁘게 키워 보세요.

'5월 14일(음, 4월 1일) 오전 10시' 부터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사월 초파일 연등 접수 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184-3 국악고등학교 정문 앞 보현선원 02)579-3690

"태양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
항상 떠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즐겨라"

세계가 인정한 특별한 영화!
명사의 일상에 묻어나는
진솔한 대화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위대한 하루
선라이즈 선셋
Sunrise / Sunset

5월 13일, 전국 CGV와 primus 대개봉
CGV 강변/상암/동수원/청주/대구/구미/울산/포항/마산/서면/동래 프리머스 원주/안동/칠곡
www.prevision.kr
수입 | 배급 프리비전 엔터테인먼트 •전체관람가

보고 듣는 '요놈' 마음챙겨라

잠이 깨어 눈을 뜨면 잠 들기 전 화두 들던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고(ego)의식이 사라진 '무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무아와 깨달음, 해탈의 상관성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백장 선사는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났도다. 그 본체가 참되고 영원함을 드러내니 문자에 구애되지 않네[靈光獨耀 逈脫根塵 體露眞常 不拘文字]'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에 거리낄 것이나, 막고 방해할 것이 없다는 뜻의 '심무가애(心無罣碍)'로 표현합니다. 주관과 객관으로 나뉜 현상세계에서 벗어났을 때 무아를 체득하고 대무심의 경지에 듭니다. 무아라 해서 아무 것도 없고 목석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는 묘용의 세계입니다. 부설 거사가 열반송에서 '눈으로 보는 바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로 듣는 소리 없으니 시비도 끊겼네. 분별과 시비일랑 모두 놓아버리, 다만 마음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할 뿐[目無所見無分別 耳聽無聲絶是非 分別是非都放下 但看心佛自歸依]'이라고 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라고 하셨지만, '오유일물(吾有一物: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이라고도 표현하셨지요. 정반대의 표현 같지만 무아, 무심의 상태는 이렇게 중도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아와 무심의 이치를 잘 알면 실제 참선공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남악회양 스님이 처음 육조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질문에 막혀 8년만에 도를 깨치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답합니다. '설사 한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남악회양 스님은 '닦아 증득함은 없지 않으나 물들지 않습니다[修證卽不無 汚染卽不得]'하고 답했습니다. 본래부처, 참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한물건도 없어서 본래 깨끗해서 오염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들이려야 물들일 수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심무가애' '영식독로'한 자리입니다. 텅 빈 허공과 같이 실체가 없지만 불생불멸하며 있는 그대로 여여한 세계인 것입니다."

–영식(靈識)이 독로한 상태를 진아라고 부른다면, 이것이 힌두교의 아트만(atman)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상(我相)이 떨어져 나간, 영식이 독로한 무아, 무심의 경계는 하나의 본래심이 오롯이 드러난 경지로서 텅빈 공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는 그 자리를 맛 보면 '참 진(眞)'자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자칫, 영원한 실체로서의 아트만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진아는 무아, 연기사상이 뒷받침되어 그 어떠한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에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무심의 경지에서는 무아니, 진아니 하는 어떠한 견해도 없어야 합니다. 깨달았다는 한 생각, 하나의 상(相)이 떠오른다면 이미 어긋난 것입니다. 대무심의 경지는 바보나 목석과 같은 경계가 아니라 태양보다 더 밝고 생생한 지혜광명을 쓰면서도 씀이 없는 언어와 생각을 초월한 경계인 것입니다."



일오 스님은 <상윳따니까야(장아함) 우다나경(자설경)>의 한 부분을 소개하며, 초기불교에서도 대승불교의 본래심, 불생불멸 하는 열반의 세계를 드러낸 법문이 적지 않다고 하신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처(依處)를 여의고, 전생(轉生: 윤회)을 여의고, 대상을 여읜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일오 스님은 초기경전을 열람하다 보면, 말끝에 단박 깨닫는[言下大悟] 일이 부처님 당시나 조사스님 회상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된다고 하신다. 이는 자성이 본래 청정해서 가능한 일임은 물론이다.

"직하(直下)에 무심하면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육조 스님은 그래서 '보리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그대로 쓰고 살면 부처를 이룬다[菩提自性 本來淸淨 但用此心 直了成佛]'고 하셨지요. 일체의 명색(名色)이 끊어져 대무심지에 들면 똑같이 보고 듣고 감각하며 살지만 늘 여여해서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모든 법문이 마음 병 다스리는 약이라 했습니다. '나에게 마음이 없는데, 무슨 약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런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물론, 최상승 근기에 맞는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입장에서는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업습(業習)을 지닌 중생의 입장에서는 수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부처'의 도리를 자각한 수행자는 현실적인 삶과 수행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이에 대해 스님은 달마 스님의 법문에 자세한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달마 대사는 <이입사행론>에서 마음의 이치를 깨달은 후 네 가지로 실천수행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 과거의 업보임을 알고 인욕하는 보원행(報寃行), 좋고 나쁜 인연이 닥치더라도 모두 내가 짓고 받는 것임을 알아 마음에 동요가 없는 수연행(隨緣行), 밖으로 도를 찾아 헤매지 않고 본래 이 마음에 구족해 있음을 알고 닦는 무소구행(無所求行), 자성청정의 이법에 따라 적당한 6바라밀행을 닦는 칭법행(稱法行)이 그것입니다."

1300여년 전 문을 연 동리산문의 가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며 하산하는 길을 봄비가 축복하는 것만 같다. 빗소리가 마치, 마조 스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그대가 심지법문(心地法門)를 배움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法要)를 설함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도 같다."

글 · 사진=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1. 히이에산 사카이(酒井) 스님

12년 전 한 · 중 · 일 불교대회 참석 차 일본을 갔다가 불교춘추사 최석환 사장 등 한국불교계 관계자들과 함께 히에이산 방실곡 안락율원에 주석하는 사카이 스님을 친견했다. 사카이 스님은 일본에서 회봉(廻峰; 도쳐의 성보를 참배하며 정진하는 수행)으로 유명한 선지식이다.

스님을 찾아뵙기 전 일본불교 관계자는 사카이 스님이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인근 폭포에서 목욕 후 예불, 독경, 염불, 명상 등을 사시마지까지 하고 바로 기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손님을 맞는 시간은 오후 2~5시만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행이 사카이 스님을 찾은 가를 맞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인이 자살했다는 비보에 부대에 복귀하지 못했다. 당시 밤낮 없이 술독에 빠져 지냈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나도 따라 죽을 양으로 히이에산으로 올라갔다. 나무에 목을 매려는 순간 채소밭에 거름을 주고 있던 스님이 '이 사람아, 죽을 힘이 있으면 내 일이



불교 성지로 유명한 히이에산의 일본 천태종 본산 엔랴쿠지.

천일간 하루 일식하며 252개 절 참배하는 회봉 수행해

시간은 저녁 8시 무렵이었다. 그럼에도 스님은 멀리 한국에서 찾아온 일행을 위해 문을 열었다.

직접 본 사카이 스님은 나이가 세수 70세가 훨씬 넘었지만 60세가 다 된 나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다. 함께 갔던 불교춘추 최 사장이 스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사십니까?"

"세월을 잊고 살기 때문에 늙고 젊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카이 스님은 38세에 자살한 부인의 얘기를 꺼내며 출가 계기를 밝혔다. 대개 일본 스님하면 대처승으로 이해하지만, 사카이 스님을 비롯한 스님 문중은 독신승이었다. 스님은 일본에서는 "자신 같은 독신승을 비구승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구는 걸식하며 분소의를 입어야 하지만 일본의 독신승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카이 스님은 "군 생활 중 휴라도 거들어 주고 난 후 죽소'라고 말을 건넸다"고 회고했다. 그 인연으로 사카이 스님은 출가자의 길을 걸었다.

스님은 "그 노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3년 간 농사를 지으며 똥거름을 주는 일을 거들었다. 어느 순간 은사스님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마음 먹은 그 날로 은사스님에게 고한 뒤 하산했다. 이후 스님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며 히이에산 전역의 252개 절과 불상을 참배하는 회봉 수행을 시작했다. 수행과정은 가사 장삼과 대발모자, 짚신, 그리고 진언집만을 소지한 채 한겨울 100일 간 108사찰에서 각각 다른 진언 108편을 외우고 증명명패를 함에 넣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스님은 밤 11시면 출발해 히이에산 주위 약 50리를 참배하고 오후 5시에 율원에 도착해 그제야 한끼 공양을 했다. 그렇게 사카이 스님은 1000일간 회봉 수행을 봉행했다.

스님은 "어떤 이들은 100일 회봉을 열 번 마친 사람이라 해 저를 '일본 최고 율사' 등으로 추켜올렸지만 그런 세간의 평가가 들려올수록 오직 아내를 편안하게 해 주지 못한 죄가 떠올랐다. 저는 지금 고집스러운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자로서 일생을 참회하며 지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회봉 수행 이후 히이에산 방실곡에서 30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행정진에 매진했다.

스님은 "회봉 후 동경까지 도보 행각을 하고 110여 절과 불상 등을 마저 참배한 뒤 바깥에 나간 일이 없다"고 말했다.

직접 만나 본 스님은 계를 지켜도 지킨다는 생각이 없고, 일종식(점심 한끼만을 먹고 일체의 곡기를 끊는 수행)을 하면서도 일종식을 한다는 생각이 없으며, 도를 닦아도 닦는다는 생각이 없었다.

사카이 스님은 끝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옛 조상을 생각해 생연(生緣)이 생기기 이전 참 마음을 되새기고, 물들인 옷을 입고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거리의 행자가 됐던 것을 생각하되 자신이 밖에 나가 탁발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밥을 빌어먹지 못하면서도 비구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도를 닦지도 못하면서 수행자인 척 하는 것을 '명자비구'(名字比丘)라 한다. 명자비구가 넘치는 세상, 일행의 마음에 진실로 부끄러움을 주신 분이 바로 사카이 스님이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를 꼽으라면 바로 환경이다.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환경 이상 징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긴박하게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 환경을 지배나 정복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동질적 존재임을 말해왔다. 〈아미타경〉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의 '의정불이(依正不二)'를 강조했고, 〈화엄경〉은 우주자연의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고 말했다. 불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고, 우주 전체를 진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헛된 욕망들은 점점 더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의 편안함에 대한 욕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자연을 점점 훼손시키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이 하나라면, 우리가 자연에 준 상처는 곧 인과응보(因果應報)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의 강의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강 사 : 최 열(환경재단대표)
일 시 : 2010년 4월 29일
주 제 : 우리가 자연을 살리면 자연이 우리를 살립니다
장 소 : 서울시 평창동 비전빌딩 희망모울
주 최 : 희망제작소 행복설계포럼

이대론 10년 안에 환경 대재앙 우리의 결단 없이는 희망도 없어

#환경의 이상 징후와 환경파괴

5월이 다 됐는데 날씨가 춥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기후 증상은 이미 20년 전에 예고됐던 일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를 판단할 때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특히 환경문제에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회장은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상데이터 자료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재난은 그 어떠한 자료로도 판단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세계 1·2차 대전과, 경제공황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난이 올 것이라고 예고 했습니다.



2007년 1월 31일에는 세계적인 학자 2500명이 모인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에서 10년 안에 환경대재앙이 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곤 2080년이 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 중 20~30% 종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60년대 경제개발로 고도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 발전을 거듭해 잘사는 나라로 변화되는 경우 더욱 환경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윤택해졌을지 모르나 고도의 경제성장은 외국의 공해산업, 사양산업을 끌어들이다 보니 자연스레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협할 요소 중 10가지 중 7가지가 환경과 관련됐습니다. 그 중 기후변화가 8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대기·수질·해양 오염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농업입니다. 농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기후가 좋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업은 바로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산업입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후변화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는 전년도 보다 춥다고 말합니다. 금년의 겨울이 예년 평균에 비해 몇도 낮아졌 길래 우리는 이렇게 춥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온도는 정확히 0.7도 낮아 졌습니다. 1~2도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 몸이 1~2도만 높아져도 몸이 뜨거워져 열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0.74도가 올랐습니다. 2009년 12월에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지구 기온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고 선진국은 2010년 1월 말까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 2도를 넘어서 3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도가 되면 지구 온도는 6도까지 올라갑니다. 가속화 현상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토양은 대부분 척박한 토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총 식량의 10%가 줄어들며, 물가는 더 폭등할 것입니다. 온도가 2도 올라가면 대기 중 CO2가 늘어나면서 상당부분 탄소가 바닷물로 흡수하게 됩니다. 바다에 탄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바닷물이 자연히 산성으로 바뀌게 되고,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3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존의 열대우림과 땅들이 더워집니다. 낙엽이 말라 부식하게 되면 메탄이 증가합니다. 메탄은 CO2보다 지구 온난화에 23배 이상의 영향을 끼칩니다.

4도가 높아지면 4000m 두께의 남극 얼음이 다 녹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빙하들이 다 녹으면 자연스레 해수면은 상승하고, 현재보다 10m 정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10m의 해수면 상승은 모든 대륙이 다 잠길 양입니다. 5도가 올라가면 북극의 얼음까지 다 녹게 됩니다. 지구상의 얼음이 다 녹게 되면 태양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해 지구의 온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오존층은 모두 파괴돼 지구상의 생물체 95%이상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과거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 세워야

지구는 46억년 동안 변화되면서 인간과 생명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구가 처음 탄생됐을 때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거의 질소였습니다. 그러다 나무가 자라서 무성해졌고 산소가 생겼습니다. 그 후 지각변동으로 인해 나무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지금의 석탄·석유가 된 것입니다.

석유를 뽑기 위해서는 시추공 안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각은 물로 가득 차 불안정하게 되고, 결국 지진 등 지각변동을 유발시킵니다. 우리는 화석연료인 석탄·석유를 근 200년 만에 고갈시켰습니다. 이렇게 점점 고갈되는 석탄과 석유의 값은 이제 무섭게 치닫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가 2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60달러입니다. 곧 100달러를 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인도 등의 석유소비 증가로 석유 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대체에너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환경과 세계경제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CO2발생 10위 국가가 됐고, 석유수입은 세계 4위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은 853억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총 GDP가 850조원이니, 10분의 1을 에너지 소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선진국의 할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할당을 받으면 IMF때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옵니다. 2013년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없습니다. 저는 1992년도부터 CO2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현재 많은 외국의 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 조력 등의 대체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체에너지들은 아직은 투자비용이 높아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이 앞으로 활성화 된다면 가격은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은 점점 고갈돼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미래를 위한 에너지 확보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50년 전만 해도 51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80세를 넘습니다. 아마 지금 어린 세대들은 150세까지 산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결혼제도,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행하게도 21세기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동치는 변화현상들에 대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 학자들이 모여 21세기에 무엇이 확실히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핵 테러'였습니다.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우리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비추어 미래를 예측한다고 생각하며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생명이고, 우리 인간이 자연을 버리면 자연도 우리 인간을 버리게 되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와, 생태적인 방향의 질을 높여 환경과 우리의 삶 모두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변화를 가져오며, 앞으로 21세기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정리 =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희망제작소 제3차 행복설계포럼에서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환경문제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설명했다.



최열 대표의 강의를 통해 청중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에 대한 궁금증과 대책들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가졌다.

무극대도 초공능 관심법 자격을 취득하여 21세기 최고의 사업 만법을 다스리는 건강, 장수, 견성, 도통, 성불하는 무문관 도통으로 잠든 두뇌와 오장육부와 정신 심신 육신을 통일하는자격취득 경신대법회

자좌오향이 진출축미로 바뀌고 산악문명이 해양문명으로 바뀌는 진법으로 지구촌에 천지개벽이 오고있다.
무자천서 9字로부터 무극대도에 들어 동방의 나무가 서방을 깍는 이 비법을 경인년 춘삼월 경신법회에 해도금묘의 진법을 알아 듣는 진인에게 전함

● 경신도통이란 멸하지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죄와 업을 벗지 못하고 상에 빠져 음과 양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진광으로 삼시구충의 원뿌리를 뽑아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 말이 없는 생명의 빛으로 탐진치 껍질을 벗어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대한국운이 전세계를 지배 해도금묘가 시작되는 경인년 양력 5월 9일, 10일 자시와 오시에 天福 大運을 받는 경신일 태양진광진법인 도통군자들의 하늘에 뜻을 받는 타심통 도통법이 경신인 것이고 관심법 자격취득하는 기도.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십년 수행한 공덕보다 나은 수행인 것이다. 전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로 운집하여 평화촌 시대가 시작되는 대비밀법에 동참하시어 주인되시고 이 법은 삼생의 인연과 덕을 쌓아야 수행하는 것이며, 달마종 종단은 생활불교,거사불교,보살불교,대중불교 머리깎고 승복에 구애 받지않으며 남녀노소 연령제한없이 불법홍포에 뜻이 있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입종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특별 금년 경인년은 해도금묘 대운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도통군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수행마장, 기도마장 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업장소멸로 열어주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공덕과 행운을 얻어 팔자를 바꾸는 수행인 것이다.

무문관법과 관심법은 그 어떠한 수련에도 할수 없는 태양의 힘과 우주의 초능력으로 지구를 돌리는 오로라인 에텔과학 즉 신지학이며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십장생 호흡법이며 21세기 최초 공개 하여 자신과 중생을 구하는 자격을 얻어 취직에 구애 받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전인 것이고 태양의 빛과 지구를 돌리는 충력으로 일체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천하제일의 비전인 도법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천지공사 육경신수행이란? 천하의 비밀법에 자신이 운명을 비켜갈 수 없는 기구한 팔자를 업장소멸하여 자신이 운명을 조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수행인 것이며 천지공사인 것이다.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타심통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천지공사 타심통 득도하는 법회를 봉행. 금년 유행되는 전염병과 그 어떠한 병도 다스르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중생에게 빙이된 영혼문을 열어 인연 영가 해탈 시키는 초등력을 얻는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종조계종
부산 금정구 장전3동 경 문 사 보현스님 합장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세계불교달마종 경문도량 수행처 태양의집 봉황산 봉황사
법당인연자, 맞이공양자, 수행자, 인연자 동참자. 달마종 입종 환영.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3239-3110

● 입제 : 양력 2010년 5월 9일 (음 3월 26일 일요일) (해시)
● 해제 : 양력 2010년 5월10일 (음 3월 27일 월요일) (해시)
02) 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 육경신수행 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요절복통 여래네 집

#10. 어버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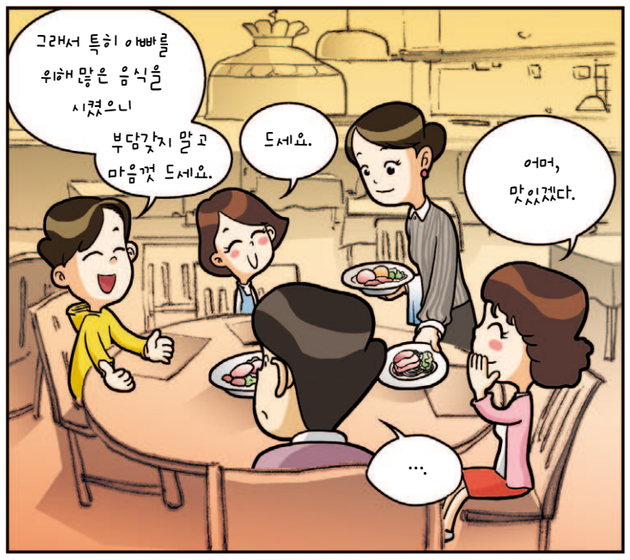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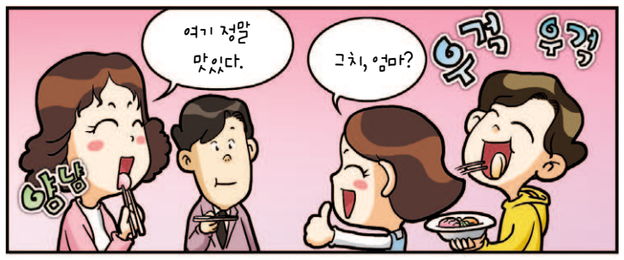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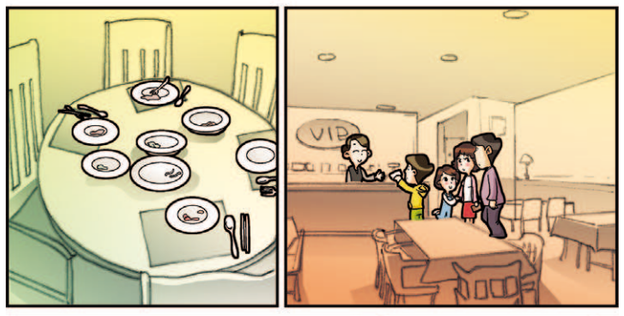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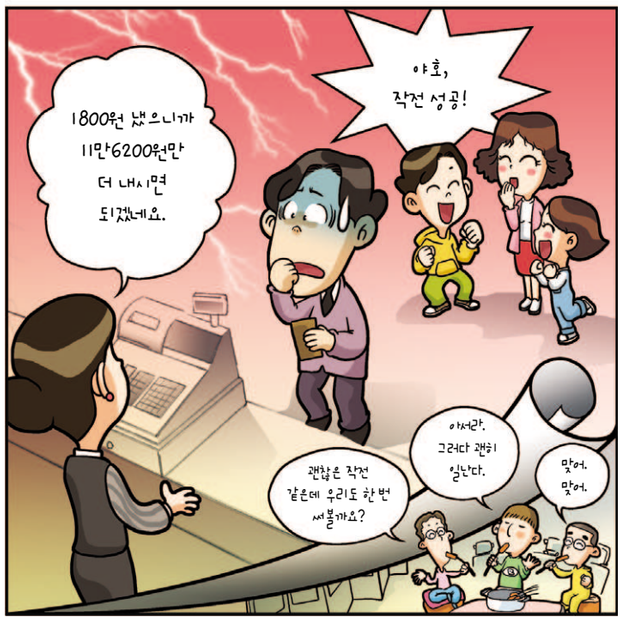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활활 타오르는 촛불을 들어
어두움 속을 밝게 비추듯
지혜의 등불을 항상 밝히어
번뇌에 덮힘을 없게 하여라.

법구경

삼가 모십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사부대중의 애정어린 원력과 성원에 힘입어
한국불교 최대전법포교도량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을 봉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불사원만 성취를 발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4일 (화) 14:00 ~ 16:00**
- **장 소 : 논산훈련소 불사 현장 (충남 논산 연무 소재)**

1부 – 발대식 (14:00 ~ 15:00)　2부 – 기념촬영 및 다과회 (15:00 ~ 16:00)

※행사 참석여부를 4. 23(금) 까지 교구 종무실에 통지하여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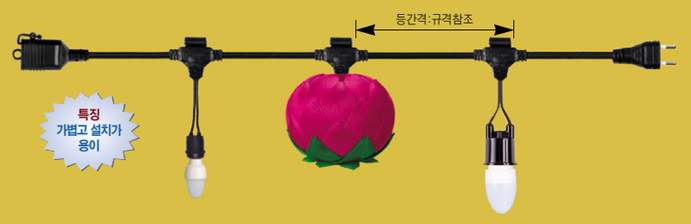
▶ 논산훈련소 불사 후원계좌 ◀
제일은행 325-20-221949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연무대 법당불사 증　　명　대한불교조계종 총 무 원 장　자 승
연무대 법당불사 추진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자 광　합장
연무대 법당불사 추진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연무대 법당불사 건축위원장　구자선 · 박정이 · 전인구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원터치 연등 회전걸이

SMD LED전구(국산정품)

불제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옛 시에 취하다



이 책은 옛 시를 통해 현대인의 사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고전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이와 깨달음이 일상의 자잘한 이야기 속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개미집도 둘러 가라. 산 풀도 밟지 말라. 막 자라는 것을 꺾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일 년 사계절의 기후변화가 곧 자연법칙인데, 자연을 거스르는 것으로 변해버린 세태를 염려하는 글로 풀어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봄꽃이 만개해야 할 4월인데 날도 너무 춥고 봄비도 너무 잦다. 4월 강수량이 너무 많아 농작물 피해도 있다하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정말 실감나는 요즘이다.

"부드러움이 쌓여 굳세지고 약함이 쌓여 강해진다. 그 쌓이는 것을 관찰하면 화와 복의 본향을 안다. 물에는 근육이나 뼈가 없지만 일만 톤의 배를 감내한다."

진각국사의 설법이다. 세상을 향한 원대한 포부를 가졌더라도, 나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알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지혜로운 교훈임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굳세어지려면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수양부터 쌓으라는 것이다.

고전의 지루함이나 딱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필자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너그럽고 따뜻함이 글의 행간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고전들을 일상 속에서 만나는 느낌은 참 새로우면서도 편안하다.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한번쯤 되돌아보게 만든다. 거창한 삶의 의미에서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나와 내 가족들, 친구들까지 돌아보게 한다. 한마디로 바쁜 일상에 '사색'이라는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늘 한발 물러서서 세상을 보라고, 조금 더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결국엔 앞서가는 거라고 필자는 말한다. 책을 덮을 때쯤이면 어느덧 맑게 정화되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

옛시에 취하다 | 이종찬 지음 | 한걸음 · 더 펴냄 | 1만2000원

강지숙

한발 물러서기 천천히 나아가기

자연은 조화로운 화엄법계

관측천문학 대가 이시우 박사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하나님을 초월하고, 교리나 신학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감각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불교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답이다. 만일 현대 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불교가 될 것이다."

20세기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불교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과학적 탐구의 동기가 되는 우주관이 종교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관측천문학의 대가 이시우 박사(74 · 前 서울대 천문학과 명예교수)도 최근 펴낸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에서 "불교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에 대한 진리를 펴 보이는 현대의 첨단우주과학시대에 가장 알맞은 종교"라고 말한다.

책에서 이시우 박사는 초기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통해 인간 붓다의 위대한 인생관과 과학적 동기를 부여하는 그의 우주관을 살폈다.

부처님은 "슬픔을 거두고 잘 들어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변하고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 죽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다. 이시우 박사는 이를 생주이멸(生住異滅)과 생명평등사상으로 해석한다. 인간들처럼 하늘의 별들도 태어나 지나다가 죽어 없어지는 우주만물의 원리를 따른다.

이 박사는 또 우주를 육상원융(六相圓融)의 교리로 해석한다. 자연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역동적인 연기관계에서 각 구성원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임무를 무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해가고 있다는 것.

이시우 박사는 "이처럼 자연의 사물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안정된 조화로운 상태에서 진화하면서 모두가 평등성과 보편성을 지니는 육상원융을 이루어 간다"며 "유기적인 계층적 집단을 이루는 별의 세계에서는 긴밀한 연기관계를 통해서 전체가 하나이고, 하나가 전체인 상즉상입(相卽相入) 상태에서 원융무애한 육상원융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곧 조화로운 중중무진의 화엄법계다"고 설명한다.

이 박사는 이 밖에 불교의 우주관으로 무시(無始) 이래로 우주의 수축과 팽창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진동 우주론', 우주 내 만물은 상호 의존적 연기관계를 이루면서 진화하므로 항상 외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받는 '계층적 집단형성'과 물심연기법(物心緣起法)을 천문학적 세계관과 비교한다.

흔히 한국불교를 단순한 심법(心法)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불교가 인간중심주의에 빠진 타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박사는 "오늘날 불교는 부처님의 우주관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좁디좁은 인간의 마음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불교와 수행불교라는 인불사상(人佛思想)쪽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첨단우주과학이 지향해 갈 방향이나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해야 할 방법에 대해 불교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지금까지 불교는 지나치게 유심사상에 안주해 오면서 자연 · 사물과의 연기관계를 경시해 왔다"며 "오늘날 병든 지구를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명평등사상을 지닌 불교우주관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책에서 강조한다.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은 이시우 박사가 불교TV에서 24회에 걸쳐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천문학의 세계 △우주의 구성 △이웃법계-암석 · 목성 행성 등 천문학적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자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는 말을 남긴 아인슈타인의 '이상적인 종교관'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 이시우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50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법정 스님 일대기 소설로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백금남 지음
은행나무 펴냄|1만1500원

법정이 불일암에 올 때가 마흔 셋이었으니 시중드는 시봉을 두어도 괜찮을 나이였다. 그런데도 몇 번이고 뿌리쳤다. 송광사 스님들이 물으면 법정은 이렇게 대답했다.

"부처님도 쉰다섯에 시봉승을 받았는데 이제 마흔 중반인 제가 상좌를 두는 게 말이나 됩니까?" –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中

법정 스님의 일생을 그린 최초의 소설이 발간됐다. 오랫동안 스님을 존경해온 백금남 작가가 5년 전 집필을 시작해 스님과 교류한 많은 지인들과의 인터뷰, 방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했다.

소설은 출생에서 출가, 수행, 입적에 이르기까지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일생을 복원했다.

스님이 어떻게 무소유의 길을 걷게 됐는지, 왜 현실 참여와 수도자의 삶 사이에서 갈등했었는지, 길상사 창건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등 저자는 스님의 79년 행로를 뒤쫓으며 퍼즐을 맞추듯 스님 삶의 흔적들을 담아냈다. 출가인이지만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마음 등 스님의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다. 특히 법정 스님의 시 네 편을 수록해 시인으로서의 면모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소유	법정	범우사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4	인연이야기	법정	문학의 숲
5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6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7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백금남	은행나무
9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이레
10	진리의 말씀	법정	이레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 주 사 02)3672-7181~5

옛 이야기처럼 읽는 '삼국유사'



고전은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새로운 감각의 문체로 다시 다가온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삼국유사>가 이상인 시인의 편역으로 나왔다.

육당 최남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라며 <삼국유사>의 가치를 높게 평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하는 문체가 읽기 편하게 해준다. 간혹 살을 붙여 흥미를 더하기도 했다. 관련 사진도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나라를 세우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다' '불교를 전하다' '탑을 세우다' '고승들의 뜻을 담다' '비법으로 적을 물리치다' '하늘을 감동시키다' '세상을 피해 숨어 살다' '효를 행하다' 등 9개 장으로 엮었다.

삼국유사 | 일연 지음 · 이상인 편역 | 평단 펴냄 | 1만4000원

수발 잘하려면 삶을 사랑하라

하나리 사치코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

한국은 급격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로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를 넘긴 반면, 출산은 평균 1.15명에 그쳤다. 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호제도를 시행해, 혼자 생활 하는 것이 힘든 노인들의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논의의 진전에 비해 좋은 수발이 무엇인지, 수발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나리 사치코는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 (창해)에서 30년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를 수발했던 경험과 시행착오 속에 느끼고 깨달은 점을 하나 둘씩 기록해 놓았다.

하나리 사치코는 30년 경력 수발 전문가이지만 "우리는 수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공식처럼 되풀이한다.

수발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따른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에게 맞는 수발의 방법을 만들어 내야한다

그녀는 "수발을 하면서 한편으론 취미생활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자기가 자기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자.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참으면, 그 마음이 수발 받는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당부한다.

삶을 진정으로 사랑한 하나리 사치코. 그래서 수발 받는 사람의 인생까지 껴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발을 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발 방법을 찾고, 수발 하는 이와 받는 사람간의 진정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하나리 사치코의 이야기는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 기울어야할 지혜다.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 | 하나리 사치코 지음 | 창해 펴냄 | 1만원

박선주 기자

제8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의 현대적 재조명과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문 Ⅰ(포교대상), 부문 Ⅱ(콘텐츠대상)로 구분하여 제8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부문 Ⅰ (포교대상)

● **시상 부문**(승가부문, 재가부문)
–. 시상 부문
(1) 승가 부문 _ 1~2인(곳), 상패와 상금 총 1,000만원
(2) 재가 부문 _ 1~2인(곳), 상패와 상금 총 1,000만원

●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 **승가부문**(개인 혹은 단체)
(1)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혹은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2) 승적 취득 10년 이상, 단체/기관은 설립 5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 **재가부문**(개인 혹은 단체)
(1)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2) 개인은 포교활동 경력 5년 이상,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부문 Ⅰ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 특별상을 3인(곳) 이내, 상패와 상금 총 1,000만원 이내에서 수여할 수 있음.
※ 일정 자격수준 혹은 공적사항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기간** _ 2010년 7월 1일(목) ~ 7월 30일(금)

부문 Ⅱ (콘텐츠대상)

● **시상 부문**(콘텐츠 부문)
–. 시상금 _ 상금 총액 5,000만원
(1) 구분
①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드라마, DOCUDRAMA(다큐+드라마)
② 영화, 애니메이션, INFORTAINMENT(정보+오락)
③ 작곡(국악/양악/퓨전), 연주
④ 전시(도록, 사진)
⑤ 기타 관련 분야
(2) 본인 및 단체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외부 지원 등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는 불가함.

※ 부문Ⅱ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 특별상을 3인(곳) 이내, 상패와 상금 총 3,000만원 이내에서 수여할 수 있음.
※ 일정 자격수준 혹은 공적사항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기간** _ 2010년 10월 1일(금) ~ 10월 29일(금)

【 제출서류 】 ·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제8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소정양식, 사진 부착)

【 접수 및 문의처 】 · 본 원 사무국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전화 (02)719-1855, 2606
· **접수 방법** _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자 소인 유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민 병 천

한 권으로 읽는 전통사찰의 모든 것!

한국의 명찰 시리즈



대한불교진흥원 刊

전등사 1 저자 · 신대현, 신국판/172쪽/올컬러/18,000원
화엄사 2 저자 · 신대현, 신국판/228쪽/올컬러/20,000원
월정사 3 저자 · 한상길, 신국판/232쪽/올컬러/20,000원



북한의 사찰
북한불교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
장용철, 서유석 외 공저/대한불교진흥원 刊
4x6배변형판/520쪽/값 50,000원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호국불교의 역사적 현장
전보삼 지음/대한불교진흥원 刊
232쪽/올컬러/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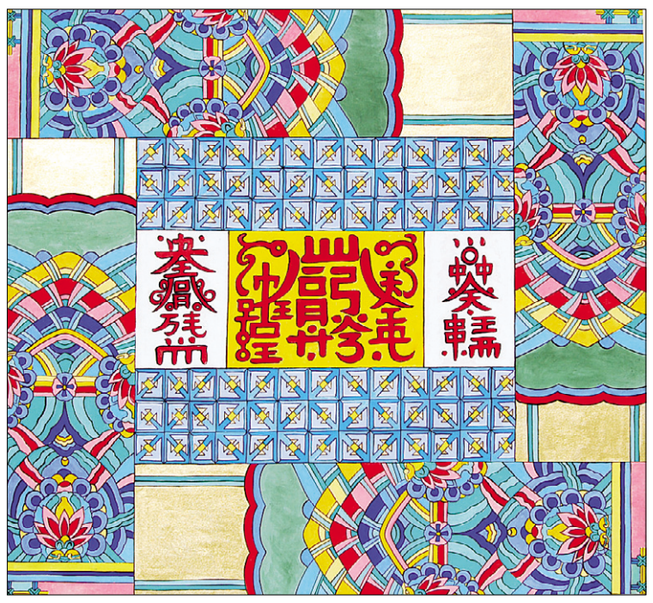


닫집
부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상상, 그리고 장엄
심대섭 · 신대현 지음/대한불교진흥원 刊
232쪽/올컬러/값 20,000원

대한불교진흥원 구입 문의 : 02-3672-7181, 02-719-2606

108배 하며 업·인연 녹인 만다라

김인섭 화백 '길상만다라전' 불일미술관서 5월 7일까지





김인섭 화백은 부처님의 진리와 법을 문자와 진언 등으로 표현한 다르마 만다라 유형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업'과 '인연'은 중생을 웃고 울게 한다.

김인섭 화백에게 어떤 인연을 짓는가에 따라 업이 달라지고, 미래 삶이 달라진다는 불교의 논리는 화두였다. 김 화백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은 후부터 자신을 채운 '업'과 '인연'을 만다라로 형상화하며 비워내기 시작했다. 만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불화(佛畵) 가운데 하나이다.

만다라는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 온 김 화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 방편이다.

김인섭 화백은 "'업'과 '인연'을 마음 한 자락에 늘 두고 수행 지침으로 삼아왔다"며 "그 계기로 동양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개개인마다 타고난 오행의 규칙 속에 자신의 인연 복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명리학에선 우주의 기운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인간이 태어나 첫 호흡을 하는 순간부터 오행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본다. 김 화백은 이런 오행의 작용에 의해 본인의 마음상태도 정해지고 오행의 변화로 인해 마음이 영향을 받아 좋은 운일 때는 좋은 결론을, 나쁜 운일 때는 나쁜 결론을 자기 스스로 내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김 화백은 "불교의 만다라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불교수행의 최고선(最高善)을 색과 공간성을 바탕으로 형상화한 것임을 알게 됐다"며 "연구를 거듭할수록 만다라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 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인섭 화백의 만다라는 부처님의 진리와 법을 문자와 진언(眞言) 등으로 표현한 다르마 만다라의 유형을 띠고 있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김 화백이 표현한 문자는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천·지·인 삼재의 표현과 유사하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동아시아의 특별한 문자 형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연화 문양으로 장엄했다"고 설명했다.

만다라는 수행의 결실을 문자의 형상으로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보편적 진리의 모습도 함께 그려낸다. 만다라를 내걸어 공간을 장엄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청정국토임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정법신(淸淨法身)을 구현하기 바라는 서원의 표현이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실천하겠다는 원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김인섭 화백은 "이번에 전시되는 만다라 작품 하나하나는 독경과 108배로 나를 맑히고, 온 정성을 다해 완성한 것들"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만들어 '선근종자(善根種子)로 거듭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중생의 간절한 마음공부와 수행의 결실이 만들어낸 만다라는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5월 7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02)733-5322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전제우 작가는 히말라야 순례길에 만난 인도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냈다.

東大 정각원 히말라야 사진전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동국대 교정에서 히말라야 사진전을 개최한다.

'청전스님과 함께한 히말라야 신비의 불교성지 라닥'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는 전제우 작가(한국불교사진연구소 소장)가 달라이라마 제자인 청전 스님과의 인도여행을 기록한 사진들이다.

전제우 작가가 히말라야의 천년의 비경을 필름에 담은 작품들에는 때 묻지 않고 순수하게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과, 히말라야 오지에 자리한 곰빠(사찰)를 순례하면서 경험했던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전제우 작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번 사진전이 또 다른 오지의 부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전제우 작가의 사진전은 5월 11~21일 동국대 교정 코끼리상 주변에서 전시된다.

이은정 기자

조계종 신작 찬불합창곡 악보집 발간

조계종단 최초로 신작 찬불가 합창곡 악보집이 발간돼 불자들의 음성공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효탄)는 최근 신작찬불가 합창곡 악보집을 발간했다. 이번 신작찬불가 합창곡 악보집은 종단차원에서 합창단과 불교 음악인들이 함께 이룩한 음악불사이다.

신작찬불가 합창곡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귀련)와 불교음악예술원(원장 이달철)이 함께 참여했다.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그동안 불교음악 창작에 있어서 1990년대 초반 불교방송국에서 창작찬불가 100곡 제작 사업 이후로 이렇다 할 진전이 거의 없었다"며 "불교음악의 미래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작찬불가를 개발해 나가고 합창단 사업을 추진하고자 종단차원에서 신작찬불가 합창곡 개발과 함께 악보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찬불가는 대중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운문 스님(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불교문학계의 스님·시인들을 위촉했다.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는 노랫말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작인 김선경(의정부 회룡사합창단)의 '목탁'과 성을숙(창원 구룡사)의 '중생의 빛 관세음보살님'을 악보집에 함께 실었다.

불교음악예술원 이달철 원장은 "이번 신작 찬불가 합창곡 개발로 인해 불교음악의 발전 동기를 마련하고 찬불가에 대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2010년 불교합창페스티벌과 전국불교합창제에도 사용돼, 신작 찬불가 합창곡이 널리 불려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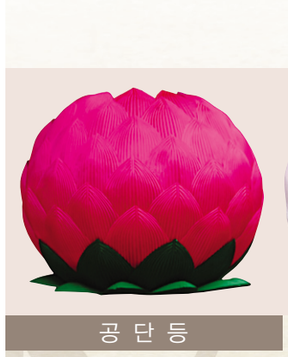
팔각 봉축 접등

오색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최연의 산 이야기 <10> 가야산 2

경허 · 만공의 걸림 없는 선풍이 덕숭산에 영글다


가야산에서 멀리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오른쪽으로 뻗은 능선은 멀리 해미읍을 지나 서해로 숨어든다.

가야산(伽倻山)의 남쪽 끝자락에 봉긋이 솟아 있는 덕숭산(德崇山)은 가야산으로부터 독립된 산이 아니라 서로 맞붙어 있는 가야산에서 가지 친 산(支山)이다.

가야산 전체의 형상이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 용(龍)으로 볼 때 덕숭산은 용의 입에 물린 여의주(如意珠)에 해당한다. 그래서인지 가야산의 수려한 기운은 덕숭산에 가장 많이 서려 있고 새하얀 바위와 아름드리 소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세 때문에 예부터 덕숭산을 호서(湖西)의 소금강(小金剛)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호서라 함은 호수의 서쪽으로, 삼국시대 최초의 저수지 중의 하나인 익산에 있었던 황등제(黃登堤)의 서쪽을 일컫는데, 지금의 충남의 서북지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듯 수려한 덕숭산의 중심 맥(脈)이 힘차게 뻗어 내려와 우뚝 멈춰 정기(精氣)를 갈무리한 곳에 수덕사(修德寺)가 자리 잡고 있다. 수덕사 터는 봉황이 둥지에 내려앉은 형국(形局)인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의 명당이다. 봉황형의 명당에서는 성현(聖賢)이나 고관(高官)이 많이 나온다는데 수덕사는 성현을 낳고 기를 만한 큰 명당임에는 틀림없다. 근세에 들어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경허 선사(鏡虛禪師)와 그의 제자 만공 선사(滿空禪師)가 주석(住錫)하셨던 도량(道場)이다.

경허 선사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은 만공 선사의 문하(門下)에 많은 수행자들이 들어와 수행하였는데 이른바 덕숭문중(德崇門中)을 이루었다. 덕숭문중은 범어문중(梵魚門中)과 함께 많은 수행자를 배출한 한국불교의 양대 산맥이다. 그리고 만공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셨던 한암 스님과 더불어 근대 고승의 쌍벽을 이루었는데, 그래서인지 파격적인 일화들이 많이 전한다.

한가지씩만 옮겨보면 일제시대 조선총독이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조선불교를 없애고자 일본불교와 조선불교를 합쳐야 한다고 하자, 만공스님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청정본연(淸淨本然)하거늘 어찌 문득 산하대지(山河大地)가 나왔는가"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리고 한암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적의 도피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상원사를 불태우기 위해 상원사에 주석하는 스님들께 소개를 명령하였으나, 한암 스님은 부처님과 함께 소신하겠다고 버텨 지금의 상원사가 온전할 수 있었다.

이렇듯 기개가 당찬 선승(禪僧)의 기질이 두 선사에게 모두 있었는데, 한암 스님이 곧고 높다면, 만공 스님은 걸리는바 없이 넓었다. 오대산 상원사가 경건한 가풍이라면, 수덕사는 호방한 가풍을 이어오고 있다.

수덕사는 백제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일설에는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에 백제에 불법을 전한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수덕사 절터를 발견했다고 하나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다.

고려 충렬왕 34년(1308년)에 지어진 대웅전이 700여 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간결한 힘과 멋을 뽐내면서 지금까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목조건축(木造建築)은 그 재료가 나무라서 전란(戰亂)이 많았던 우리나라에서는 남아 있는 건축물이 그리 많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목조건축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鳳停寺) 극락전(極樂殿),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과 조사당(祖師堂), 강릉 객사문(客舍門) 등 남한에 5채가 있고, 북한에는 황해도 성불사(成佛寺) 응진전(應眞殿)과 심원사(心源寺) 보광전(寶光殿) 등 2채가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 어느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1937년 해체 수리할 때 "1308년에 기둥을 세우다"라는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어 창건연대(創建年代)가 명확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1916년 해체 중수(重修) 때 1376년에 중건(重建)되었다는 묵서명이 발견되었고, 봉정사 극락전은 1971년 해체 수리 때 대들보 위에 있는 중도리에 "능인(能仁) 대덕(大德)이 신라 때 창건 후 여섯 차례 중수했고, 1363년에 축담선사(竺曇禪師)가 다시 중수했다"라는 기문(記文)이 발견되었다.

마지막 중수 기록으로 볼 때는 봉정사 극락전이 부석사 무량수전보다 13년 빠르다. 옛날에는 보통 100년 내지 150년 만에 건물을 보수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 봉정사 극락전의 창건연대는 최소한 1263년이므로 1308년 창건된 수덕사 대웅전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인 셈이다.

건축 후 30년만 지나도 재건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범벅이 된 요즘의 집들과 700여 년이 지나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나무로 지은 집을 비교해 보면 인간에게는 사물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봄이 왔다

–4월 어느 날, 하루 동안에 다가온 봄의 모습 하나 둘 셋–

하나. "안녕하세요! 저기 위에 사는데요. 아시죠? 기억나세요?"

기도원 처녀다. 3년째던가? 4년째던가? 아니, 더 됐지. 5년? 모르겠다. 하긴 알 필요도 없지. 기도원에 맡겨진 지 몇 년이나 됐는가를 알아서 무엇 할까?

겨울이 오면서 끊겼던 처녀의 외침이 다시 시작된 건 4월 중순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주민 여러분 저예요. 상주에서 왔어요. 다 잘들 계시죠? 여러분, 저 상주에서 왔는데요. 아빠가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 집에선 보이지도 않는 산 윗부분, 산정 가까운 곳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집들을 향해 외치던 그녀가 오늘은 등성이를 타고 내 집 앞까지 내려와 인사를 한다.

"예에…."

나는 쓱 한 번 뒤돌아보며 답을 하는 것으로 그녀와의 만남을 맺는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떠들거나 말거나 봄바람으로 받아들이며 하던 일을 이어나간다.

둘. 세 사람이 한 손엔 자루를 들고, 다른 손엔 약초괭이를 들고 밭을 돌아다니며 뭣인가를 캐어 자루에 담는다. 윗집 포도밭을 훑고 내려오더니 우리 집 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작업을 계속한다.

"뭐 캐는 겁니까?"

그 중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민들레요."

"약으로 쓰시게요?"

남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일행과 함께 괭이로 쿡 쿡 땅을 찍는다.

"띄엄띄엄 캐야 걔들도 번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에, 작은 건 안 캐요."

이제 우리 밭에선 그만 캐고 다른 곳으로 가보라는 의미로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밭을 마구 밟으며 돌아다닌다. 매년 날이 따뜻해지기 무섭게 두세 무리의 사람들이 나물을 캐러 온다. 그들은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집 주위건 떨어진 밭이건 상관하지 않고 돌아다닌다. 정작 마을 주민들은 남의 밭 출입을 좀체 하지 않는다. 어쩌다 들어갈 일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땅 주인의 양해를 구하는 일이 없다. 일을 하는 밭에까지 들어와 나물을 캐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먹을 나물조차 그들이 두 번 정도만 쓸고 가면 남아나질 않는다.

> 땀이란 것이 누구의
> 소유물이 될 수 있을까?
> 의문이 꼬리를 이으며
> 다가왔다

어떤 이는 도랑가에 만들어 놓은 미나리꽝에서 미나리를 뜯어가기도 했다. 두릅 밭의 두릅을 따가는 사람도 있었다. '다 자란 걸 왜 안 따느냐'는 것이 두릅을 따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래저래, 나물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싫다.

한번은 나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긴 우리 집 땅이고 나물도 우리 집에서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눈을 흘기며 갔다. 가슴 한구석이 툭 내려앉았다. 가볍게 봄나들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물도 나누어 먹지 못하는 놈이 되고 말았는가? 땀이란 것이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이으며 다가왔다.

누가 어떻게 하든 놔두자고 마음먹었으나 오늘도 한 마디 하고 말았다. 씨를 퍼뜨릴 민들레마저 남김없이 캐가는 사람들이 영 보기 싫었다. 요 몇 년 새, 민들레를 고추장에 무쳐먹는 맛을 들였던 탓도 컸다.

어찌 됐든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에게 투덜대는 것을 보니 내게도 봄이 오긴 온 모양이다. 우리 밭을 벗어나 옆 집 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에도 봄은 붙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픈 마음보다 푸르른 봄이 어디 있을까?

셋. 어둠이 내릴 무렵이 되자 빗방울이 떨어진다. 방안에 들어와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소리가 아니다. 싹이 돋는 듯이 비가 내린다. 아래서 위로, 솟아나는 소리다.

■ 유승도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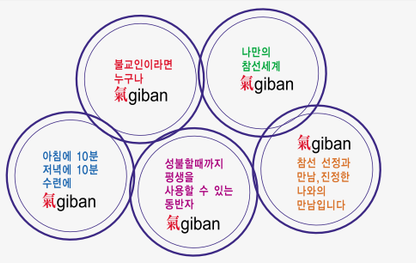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세로 동일 × 높이(뒷면) 6cm]



불자생활정보 | 21 | 제 782호 2010년 5월 5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음범패
실전위주 교육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나비무, 각종불공
천도전문도량
학인모집, 신행상담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범음대학)

어성초의 신비한 자연치유력
1.어성초 외길,국내산 최상급 어성초
2.어성초 제조에 관한 특허 3개보유
3.80%이상의 재구매율, 놀라운 효능
- 제품명: 어성초 진액 100
- 가 격 : 1개월분 1박스(100ml*60) 65,000
  2개월분 120,000
2박스이상 구매시
고농축 어성초비누(12,000원) 증정
www.happylife365.co.kr
국민은행 104301-04-320627 노현석
상담전화 : 1544-2871

역학 개인지도
(명리학, 신점)
- 조용한 도심사찰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실 분
- 철저한 개인지도
- 숙식제공, 30일 완성

032)584-4684

혜봉스님 비법전수
- 빙의퇴치법, 무병장수, 죽비 타골법.
- 전수비 99만원
- 전수기간 9일

한국심령과학연구회
(www.jijang999.com)
011-9585-4908

범음 범패 교육도량
실전위주
학인모집
사찰 각종 행사 전문
효타암 (부산, 경남)
010-6569-1010

퇴마 구병 전문 치유
영가해탈 불치병, 성불의식 법칙
모든 불보살님의 자비와
지혜의 대광명으로 영가님의
해탈성불하고 불자님도 소원성취
진하할 수있습니다.
무독가왕사악씨지장도량광명 합장
010-4740-3001

정다원 결혼정보
초혼 재혼 전문
남여 대기자 각 500명
방배동 10년 경력
전화요청시 사주역학 무료로 알려드림.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919-12
관음빌딩 302호 (이수역 5번)
02)588-6118
010-2914-6118

부천 도심속 포교당
60대 비구니
원주스님,
60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216-4133

도심 속 포교당에서
기도하고 법당 관리
하실 50대 전후
비구니 스님 찾습니다.
010-6786-5830

불심있는
불자 어린이집
원장님(女)을
모십니다
010-6433-6249

지리산 약사기도도량 약천사
같이 더불어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40대) 모십니다.
061)781-6328
017-621-6328

기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비구스님
팔공산 송림사
054)976-8116

대구 팔공산에서
달마 그리실
스님, 법사님
모십니다
▷ 숙식가능 하신 분
010-2982-3492

염불 역학
1달속성완성
- 조용한 신축사찰에서 승려가 개인지도,
- 1인1실욕실완비, 숙식제공,
- 스님, 예비스님, 법사, 보살, 행자
- 사찰운영자 및 역학관심인

011-716-3811

氣 우울증
- 악성변비, 생리통 外 지병
- 원장 직접 개인별 수련함
- 예약상담, 기공에 관심 있는 전수자 모집합니다

선 명상 기공수련원 (대구)
011-549-81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국청사
031)743-6801

조용한 산사에서
비구, 비구니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9421-0730

조용한 암자에서
불심있는
공양주 보살님과
처사님(1종면허소지자)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군
043)297-8728

경기 이천 장호원
수양이나 공부하실 분
모십니다.
각방에 화장실 겸
욕실 되어 있습니다.
실내 깨끗합니다.
문의 : 만봉정사 사무장
017-549-8115

제주도에
있는 사찰이나
암자 구합니다.
▷전세 또는 양도
스님 010-8634-3113

부처님
사리탑 불사에
동참하실 분
우체국
610212-01-000922 백운사
055)972-1598

지방자치제에
출마하시는 분,
상담과 기도해 드림.
자녀교육, 사업성공 상담
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한옥 사찰건축 전문
- 완벽한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및 사찰불사 자문일체 (토목, 건축공사 일체)
-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안목
- 건축 전(全)공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찰불사(佛事)로서는 귀중한 돈만 낭비되고 결코, "절 다운 절이 되지 못하며 그러한 사찰은 도량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껏 보고 지적해왔습니다

고건축 전문 기능인 그룹 (人安)
031)581-2120 / 061-741-1624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 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숙식가능 공양주 및 종무원 모집 : 2명
- 법왕불교대학수시모집 : 경전(법화경), 기초교리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 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장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긴급(55세 이하) 1명
(경남 거제)
011-801-9828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작은 종단이며 현재의 종단을 좀더 활성화 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011-885-8989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세요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뉴욕, 감포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심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유기간
전문반 1년 / 속성반 6개월

과 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다라니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4시간)

강 사 진
영남범음범패(무형문화재 제9호) 이수자
- 교육원장 : 우암 스님
- 승무단장 : 성애 법사

교육장소
해동성취사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문 의
☎ 051)727-0859, 0809 / 010-3004-0859

명상치유 (건강관리)
지구 테스트를 통해 불자님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과일, 차를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 생명수, 기(氣) 두 가지중 한가지만 본인에게 드립니다.
-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氣)를 넣어 드립니다.

음식+생명수+기(氣)=건강증진을 키워 드립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분, 수술전이나 후 허약하신분, 치매, 암, 당뇨,고혈압, 아토피, 뇌졸증, 심장병(부인합병), 우울증, 천식, 위장장애, 모든 요법으로 고치지 못한 분이나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허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
음식, 생명수, 기(氣)로 그날 변화를 직접 본인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 스님,불자님 지구에 계시는 모든분 꼭 한번 찾아오세요
(예약은 7일 전에 해주세요)

약사(氣)선원
원장 김광호 합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572-4
■ 053) 568-7373 / 010-5672-737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정토암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5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7평
- 요사 : 30평외 1동
- 부지 : 260평
- 가액 : 7억

- 위치 : 경북
- 법당 : 30평
- 요사 : 20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전남 함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부지 : 340평
- 가액 : 1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5천

- 위치 : 문경
- 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3천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4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무릉도원 토굴 터

- 대지 평수 : 1만 3천평
- 관리지역 1천평(명지). 임야 1만 2천평
- 계곡 및 경관 아주 수려
- 좌우 청룡백호, 앞 안대, 전망 최고
- 가액 : 1억 6천

낙동강 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25평(전통와가 5포 7포)
  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금액 : 13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평
- 법당 : 40평 (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 : 70평
- 기타 : 석불, 연못 등
- 가액 : 7억원
- 특징 : 대작불사된 기도도량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
- 요사 : 2동 90평
- 기타 : 산신각 등
- 가액 : 6억원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명상기도원절터 (급) 안내

- 소백산 전체 산하가 펼쳐보이는 곳입니다.
- 위치: 충북 단양군 적성면
- 자연식수가 풍부함,
- 토지 1600평, 이용토지 2400평
- 조경, 토목공사, 전기완료
- 시설하우스 110평, 장뇌산삼 30만뿌리 식재
- 된장, 간장 공장으로도 적합

010-3173-0045 / 043)421-33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평수 : 463평
- 임법당, 교통편리
- 포교와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1억
- 통화가능시간 : 정오 12시~ 오후 18시까지

010-5226-153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 답 1470평 중 대지 288평
- 건평 45평 ● 호두나무 54그루 중 34그루 수확중
- 사계절 물이 흐르고 있으며,
- 생수가 있음 ,직지사 근처
- 가액: 2억

010-4015-462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 (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사 찰 안 내

- 위치: 지리산 견불, 와불 관터
- 대지 300평, 700고지
- 요사채 양옥, 1층 35평 2층 법당 15평
- 천리행용 백리안계 해동제일 기도도량 최적지
- 가액 : 1억 5천만원

011-335-638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주택빌라 아파트 밀집지역 4거리 코너
- 평수 : 2층 30평
- 소불 100분, 인등 270등, 각단탱화,
- 보증금 1,800만원(답사 후 절충가) 시설 A급, 법회중

010-2446-2626

사찰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벽,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작은암자안내

- 깔끔하고 아담한 암자
- 팔공산 뒷 갓바위 입구
- 대지 90평
- 건평 30평
- 가액: 1억 4천만원

010-3477-0010

농가주택(급)안내

- 사찰암자적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23번지
- 장안산 덕산 계곡 상류
- 면적 1792㎡, 목조 79㎡× 목조66㎡ = 2동
- 상담후 가격절충가능

011-644-25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상가밀집지역 5층건물 중 2층 (옥상, 텃밭 30평 사용)
- 평수 50평(법당 20평, 단청, 탱화 A급)
- 삼존불, 원불 60불, 인등 500 주지실, 공양간, 해우소,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 A급. 현 법회중
-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8954-803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서동 407번지
- 평수 40평(3층 중 2층)
- 보증금 700만원, 월 39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611-072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 대지: 350㎡, 건평: 60평
- 구조: 법당 1, 거실 1, 방 3, 공양간 1, 창고 1
- 주변여건: 앞에는 큰 저수지가 바라보이고 뒤에는 낮은산 위치하고 있는 아담한 수행도량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토 굴 안 내

- 위치: 지리산 실상사 인근 오염없는 국립공원 인접
- 일자봉. 토체안대 (견성골)
- 포장완료
- 대지 약 150평, 건물 20평
- 가액: 1억(절충가능)

011-448-070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 창수
- 대지 : 330평 농사가능 (농기계 완비)
- 방 5개, 큰 법당 1, 문수전, 산신각 1, 지장보살입상(3m)
- 가액: 상담 후 결정

054)733-3858
010-9377-23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천구
- 평수 70평
- 법당, 요사채3칸,
- 욕실 주방, 온수보일러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경비 5천만원
- 스님 공찰 관계로 급 양도

017-586-5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 주택 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0-5427-644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남구 대연동 시장통
- 2층 60평
- 법당30평, 방3개, 주방 大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 가

011-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지방 국도변
- 평수 : 약 200평
- 요사채 65평 1동 (양옥)
- 법당 20평 1동(아미타 삼존불)
- 요양원 기도원 적합
- 스님, 법사님 적격
- 가액: 2억 2천만원(은행융자 7천만원포함), 전세도 가능 (1억)

010-8675-8011
055)328-488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 대산면
- 대지 605평, 건평 약 100평
- 법당 60평, 요사 30평
- 다용도 창고 10평, 방 4칸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775-2799

사찰 터 안내

- 위치: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70번지 외 4필지
- 평수 : 총 3,352 (1,005평)
- 토지정리 완료, 청암면 소재지 가기전 10리 산속
- 산세가 수려하고 청정지역으로 작은 계곡이 접하고 있는 정남향
- 가액 : 평당 10만원

055)882-6760
011-9512-6763

포교원안내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 평수 70평(4층 건물중 3층)
- 법당: 20평, 방4개, 창고1개, 공양간 및 화장실 2개(남,여) 아미타불, 관음, 대세지, 지장보살, 신중단, 산신
- 보증금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5800-3210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입구 지하철 5분거리
- 4층 중 3층 65평
- 법당 사무실 방2 부엌 욕실
- 본존 약사 신중 산신 영단
- 보증금2천, 월 60만원 시설비 2900만원

010-9773-9980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대로변 2층
- 실평수 3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490만원

011-729-6011
032)614- 6011

사찰(급)안내

- 위치 : 3호선 전철역 역세권
- 대지 100평, 건평 60평
- 한옥 포교당 운영하실분
- 종교용지, 주차 얼마든지 가능
- 사찰 건립터
- 가액 : 상담 후 결정

070-8834-6136
010-9284-6136

포교원(급)안내

- 위치: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 5백만원. 합 56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487-36번지
- 평수 : 50평. 반지하
- 위치 아주 좋음. 시장 인접
- 삼존불, 산신님, 독송님 원만히 다 갖춰져 있음
- 포교하기 적합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040-3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북안면 유하리
- 종교부지 200평
- 임야 200평, 전체 400평
- 가액: 9천만원

054)336-9775
010-2407-5899
010-9396-0739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 가액: 8천 2백만원 (시설비포함)

010-732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0-8993-35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9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사 찰 안 내

- 위치 : 안성 구봉산 자락
- 대웅전, 황토 소금 찜질방
- 1급수 용궁 연못
- 평수 : 1,100평
- 가액: 11억

011-249-675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거림골
- 양택이며 정남향, 한국의 명당에 소개됨
- 밭 2,200평, 임야 5,700평 잡종지 220평 한 덩어리이며 (건물 40평 포함)
- 가액: 8억

010-9032-1836

사찰터 및 공장안내

- 된장공장 인수하실 분
- 위치: 강원도 영월 근교 동강 앞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곳
- 땅 2,200평, 고급주택 1동
- 공장 1동, 시설완벽함
- 가액 : 5억 5천만원 (절충 가능함 _주인직접)

011-792-8969

포교원 안내

- 수원시 세류동 주택가 지하 45평 수원 시외 버스터미널. 밀레오레 300m
- 법당1, 방사2, 샤워실1, 세탁실1, 창고1
- 칸막이 시설 되어 있음 (시설비 의논 가능) 가액: 1억 1천 5백 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1-279-3538
010-3391-3538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 경관 수려
- 대지 320평, 200평
- 2층 법당(급 단청 되었음) . 1층 요사채 60평
- 삼성각(조립식) 20평
- 마당에 선미륵 2분, 선방 25평
- 밭 450평, 요사채 27.5평
- 가액 : 5억 5천만원(절충가능) , 교환가능

010-6436-9888

사 찰 안 내

참선기도도량

- 위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오정1구 광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250평, 텃밭 30평
- 기와집 30평, 황토집 20평, 차고와 벽돌 2층 25평
- 가액: 2억 5천만원

061)535-1090
010-2523-109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424-3
- 대지 315평, 건평 약 80평 이상
- 등기상은 60평임, 2층 건물 상수도전기시설 완벽
- 암자하기 하주 좋은 위치 ,산 아래 위치하여 경관이 좋음
- 가액: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1억 2천 1백만원
- 편의시설관공서 약 10분거리,즉시입주할수있습니다.
- 꼭 필요한 분만 전화 주세요

010-7221-6925

사 찰(급) 안 내

- 시세절반 입주가액: 융자(9천7백만)안고 9천5백에 입주
- 위치: 경북 고령군 국도인접 대구 30분거리 대지는 300평중 텃밭 약 100여평(미등기) 주차장완비
- 건평(75평), 법당 (25평), 삼존불, 방 7개
- 특징: 불교복지사업 추진하던곳(대지 400여평 있음)
- 자연장지 및 수목장 사업에 동참하실분과 비구니스님, 불보살님 환영합니다.

017-501-2315

포교원(임법당)적합 안내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대지 232평 , ●건물 60평 (신축4년) ●법당 45평
- 스님거주 방 2개 ,거실 15평 ,부엌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낙동강 주변 경관이 좋아 포교당운영에 적합할 위치로 여겨 인연있는 스님, 뜻있는 불자분 환영합니다.
- 주차시설, 심야전기 시설완비
- 현 시세에 맞지않는 2억 9천만원

054)973-3899
011-803-7448

전원주택 토담집 토굴

- 위치 : 강원도 원주
- 시내 차로 5분거리 시내버스 종점
- 위치 좋고 경치 전망 좋은 아담한 집
- 조용하게 공부하실 분 건강이 안좋아
- 수양 또는 요양하실 분,조용하게 전원 하실분
- 방 3, 별채, 방1 포함, 창고겸 휴식공간1동
- 거실 주방, 욕실 , 심야보일러
- 가액: 3천 8백만원

011-9079-6832
010-5276-5982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⑰ 안면 비대칭

전신 교정이 반듯한 얼굴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턱이 빠지거나, 턱에서 소리가 나고, 입을 벌리기 힘들 정도로 턱에 통증이 있거나 턱이 비틀어지는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턱관절 장애', '안면 비대칭' 이라고 합니다.

안면 비대칭은 입을 벌리기 힘들거나(개구장애), 턱에서 소리(관절잡음)가 나거나, 침 삼키는 것도 어려워 턱관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턱관절 장애 증상이 유발되면서 하악관절(턱뼈)이 어느 한쪽으로 비틀어지고 턱 근육의 경직 · 탄력 · 크기 차이에 의해 안면의 좌우 비대칭을 초래합니다.

증상 초기에는 씹는 기능에 한해 문제가 발생하지만 계속 한쪽으로 씹게 되면 입을 벌릴 때 비뚤어진 모양이 됩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식사하기도 어렵고 입이 비뚤어져 발음이 새게 됩니다.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는 원인은 한쪽 얼굴이 자라지 않는 선천적 질환과 성장기 충치 관리가 잘 안 돼 치아 교합이 맞지 않는 경우, 주걱턱이 나타나는 경우, 체형 불균형 증상으로 인한 2차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손으로 턱을 받치고 공부를 하는 습관으로 안면 비대칭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안면 비대칭 정도가 미세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 좌우 차이가 3㎜ 이상 나게 되면 미용상 문제뿐만 아니라 2차 기능장애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안면 비대칭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만의 문제가 아닌 전신 체형 불균형 증상을 유발시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와 안면 비대칭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턱관절 변형뿐만 아니라 두개골 전체(눈 · 코 · 입 · 이마 · 광대뼈 · 두상 등)가 비뚤어지거나, 목 · 골반 · 흉추 · 척추 · 어깨 등이 비뚤어져 척추 측만증, 다리 길이 차이, 골반 불균형 등으로 동시에 고생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턱관절 문제와 얼굴 비대칭의 원인은 인체의 전신 불균형에 의해 두개골 전체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즉 인체가 불균형해 턱관절 장애 부정교합이 생기는 것으로, 인체 스스로 불균형에 적응하기 위해 본인도 모르게 자세나 얼굴 전체 모양 등 변형을 불러 오게 됩니다. 턱관절 장애로 턱의 변형만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광대뼈, 코, 입, 눈, 눈썹, 이마, 두상 등 모두가 변하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는 시간이 길수록 얼굴에 부분별 꺼짐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특히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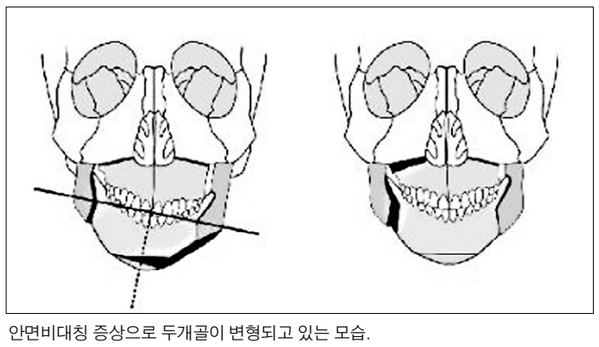
따라서 턱관절 변형과 체형 불균형 증상은 전신의 좌우 대칭을 맞추고 몸의 불균형을 해결해 전신의 불균형한 좌우 체형을 균형 있게 교정 해주면 반듯한 얼굴과 함께 동시에 전신의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아나운서 지망생인 임씨는 입을 벌릴 때마다 유발되는 턱 통증과 턱에서 나는 소리로 고민했습니다. 때문에 탁월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땐 맨 뒤에 서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미용 상으로만 걱정하던 임씨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턱에서 소리가 나고, 얼굴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턱 통증과 함께 아침에 일어날 때 하품을 하면 턱이 잘 닫히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필자를 찾아오기 얼마 전부터는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입을 벌리기 힘들 정도로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비틀어진 안면 비대칭과 동시에 경직된 목뼈, 척추 측만증, 골반 비틀림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필자는 안면 비대칭 교정과 함께 전신의 비틀린 관절의 방향을 분석한 교정 프로그램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임씨는 균형 잡힌 턱관절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척추와 자세로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안면비대칭 증상으로 두개골이 변형되고 있는 모습.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⑤ 대변

변이 좋으면 몸 · 마음 안정된 것

'잘 먹고, 잘 자고, 잘 싼다'는 건강의 원칙이 있다. 건강의 세 가지 기초 요소 중 하나인 배변, 건강한 대변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대변의 4분의 1정도는 대장균이지만 대변에는 가스와 함께 체외로 배설돼야 할 노폐물이 주종을 이룬다. 배변은 신진대사에서 노폐물을 버리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만일 대변이 잘 배설되지 않으면,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 만성 피로나 복부의 팽만감이 들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대변은 보통 1일 1회 정도 보는 게 원칙이다.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 2~3회 정도 봐도 괜찮다. 매일 대변을 못 봐도 변비는 아니다. 대변으로 건강을 진단할 때는 대변의 빛깔 · 형상 · 냄새가 기준이 된다.

대변의 굵기는 약 2cm정도가 좋고, 길이는 10~15cm정도가 좋다. '그래 네 똥 굵다'는 말이 있듯이, 변이 굵고 긴 사람은 몸과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다.

건강한 대변은 물보다 무겁다. 비중이 1.06정도이다. 변이 물에 뜬다는 것은 흡수되지 못한 지방이 많은 것으로, 장의 흡수 활동이 약하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야구감독의 경우에는 선수들의 대변을 보고 시합을 대비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변의 색을 결정하는 요인은 섭취물의 종류와 담즙색소이다. 쓸개에서 분비되는 비리루빈(담즙에 함유된 색소)은 장내에서 몇 가지 화학 변화 단계를 거친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발효과정에서 대변이 산성화 돼 황색에 가깝다. 고기 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알칼리성으로 변해 갈색을 띈다. 그러므로 황색에서 갈색 변은 정상 범위라 할 수 있다.

황갈색 대변이 건강한 변이다. 비리루빈이 장에서 충분한 소화 작용이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하면 진한 황색을 그대로 지닌다. 설사 색깔이 완전한 황색인 이유이다. 즉 완전한 황금색 변은 담즙이 장에서 소화해 변화될 시간이 없었다는 말도 될 수 있으므로 건강한 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변에 피가 쉬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 만일 몸에 열이 있다면 항문에서 가까운 결장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질 · 식중독 · 궤양성대장염 등이 우려되므로 자극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고 염증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등으로 낯선 환경을 접할 때 많이 생길 수 있는 증세 중 하나이다.

반면에 피는 쉬여 있는데 다른 증세가 없다면 치질을 의심할 수 있다. 항문이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든다면 대장항문과에 내원해 진단 받는 것이 좋다. 치질이 아닌 다른 중대한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젖먹이와 유아의 혈변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 이는 장폐색증의 전조로 혈변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긴급한 입원 · 관찰이 필요하다.

대변 색이 매우 검거나 변에 새까만 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빈혈 등으로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철분 때문이다. 철분의 산화로 변이 검어지거나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만약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는데도 대변 색이 검다면 소화관 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항문에서 거리가 먼 위 · 십이지장 주위에 궤양 등으로 출혈이 생기면 그 피가 대장을 거치면서 산화돼 검은 변이 나오게 된다. 특히 검고 길쭉한 대변은 위암 증세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변색이 유난히 연한 것도 이상 신호이다. 변이 연하고 피부와 눈 흰자위에 황색이 감돌고 있다면 간 · 담낭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변의 색이 연하면서 황달 증세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 불량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이는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흡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설사나 구토가 계속된 후 며칠간 변이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화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면 쉽게 호전될 수 있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⑰

좋은 것도 넘치면 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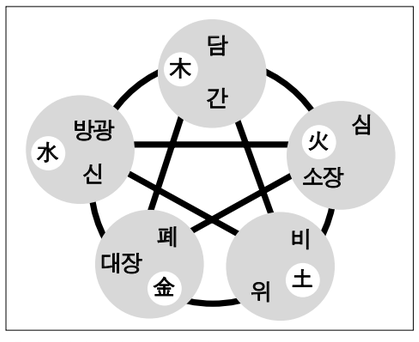
행에 해당하는 장기와 그 기능을 살펴보는데 있어 두 번째인 화(火)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는 불의 기운을 말하며 장기는 심장에 해당됩니다. 화는 남쪽 · 여름 · 붉은색 · 쓴맛에 해당되며, 심장은 소장과 음양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생기면 소장이 맑고 탁한 기운을 구별 하지 못해 소변이 붉어지게 됩니다. 심장 · 소장이 약한 사람은 비장 · 위장을 뒷받침하는 힘이 약하고, 간장 · 담낭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장의 기운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혀를 심장의 싹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혀가 붓거나 혓바늘이 돋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열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쓴맛을 주관하기 때문에 쓴 음식으로 씀바귀, 익모초 등이 좋습니다. 또 심장은 붉은색을 나타내므로 토마토, 사과, 붉은 고추, 딸기, 대추, 구기자, 오미자 등이 좋습니다.

또 마를 갈아서 만든 산우죽은 심장을 보하는 역할을 하며, 인동초 꽃을 말려 차로 마셔도 심장질환에



음양오행과 장기의 상관 관계도.

효험이 있습니다. 불교의 상징인 연꽃도 심장과 관련이 많은데, 연꽃 씨앗은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열매는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증상을 치료합니다. 연근도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날것으로 먹으면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土)입니다. 흙의 기운을 띠며 장기로는 비장을 말합니다. 토는 중앙 · 노란색 · 단맛에 해당되며, 비장은 살을 주관하기 때문에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이 모두 비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아 화를 자주 내게 되면 간의 나쁜 기운이 왕성해지고, 상극관계에 놓인 비장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비장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신장과 방광이 약해집니다.

비장이 허해지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야위게 됩니다. 이는 음식물의 영양분을 신체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런 유형은 대개 손발과 장이 차갑습니다. 또 비위가 약하면 잡념이 많아지게 되는데, 생각이 많으면 기가 뭉쳐서 잘 체하게 됩니다.

유난히 멀미가 심하거나 잘 토하는 것도 비장의 문제인데, 비장이 약해져 혈당이 감소하게 돼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탕이나 껌 등을 지니고 다니면서 단맛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장이 건강한 사람은 입술이 붉고 윤기가 흐르지만, 비장에 탈이 나면 창백해지고 메마르게 됩니다.

비장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벌꿀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웁니다. 밤 · 청국장 · 단호박 · 당근 · 감귤 등이 비장에 좋습니다. 또 단맛이 풍부한 대추와 유자, 칡뿌리, 둥굴레는 차로 끓여 마시면 비위를 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음식을 섭취할 때는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둥굴레 같은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탈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드셔야 겠지요?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불자 정보 782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시 풍동 종교시설
- 사찰 및 기도터 최적지임
- 대지 480평, 건평 50평
- 가액: 1억 5천만원
- 융자 3,200만원 포함

010-3472-5654

전망좋은 전원주택
- 위치: 양평 청운면
- 아름다운 산속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곳
- 대지 198평 건물(조립식) 29.8평 외 1필지 38평 (무료증정)
- 가액: 3억 7천만원(가격절충)

010-3088-3133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남구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불, 신중탱화, 법당내연등 250등
- 요사채 방3개, 현대식주방, 창고, 욕실, 화장실, 모든집기일체
- 매월 1일 법회중
- 보증금 3백만원 월 2십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선착순)

010-3350-0118

주 택 토 굴 안 내
- 위치: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 밀양자동차학원 북측500m거리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임야 사찰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구미시근접
- 임법당, 연꽃 연못 옆산 텃밭 총 320평
- 가액: 1억 1천만원
- 오후 5시부터 전화통화 가능

017-813-91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가액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사찰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구시 성주대교 7분거리
- 평수: 570평
- 가건물 3동 , 앞저수지 (명당)
- 가액: 1억 5천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7-804-12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천시 중동대로 현대백화점 4거리(AA급) 부천신도시 중심가 대로변에 위치
- 실평수 : 법당(50평이상), 요사채(15평) 욕실별도
- 냉난방, 방음시설등 완벽 설비 (1억5천이상투자)
- 스님께서 큰절로 옮기게 되셔서 급하게 내놓니다.
- 보증금 : 3천만원 , 월세:105만원 , 시설비 : 합의

032) 207-8012
010-6662-80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문경시 점촌2동, 2층
- 평수 약 30평, 방1칸
- 포교원 자리 좋음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 4월 27일 안동에서 오신 스님 찾습니다. 포교원 자리가 적당하다고 하여 잘 모르고 거절하였으나, 세 놓습니다 (원하는 스님 누구나 세 놓습니다)

011-544-20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접
-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약 50평
- 큰대로변, 건물내 주차장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 오존불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70-8805-1233
010-4740-3001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 환영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다구를 찾아서

12 자사호



꽃봉우리가 다호를 휘감다

명대(明代)에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 마시는 포다법(泡茶法)이 유행하자 이에 적합한 다호(茶壺)가 관심을 받게 됐다. 호(壺)의 재질과 형태, 크기는 전대(前代)에 비해 더욱 정밀하게 발전했는데 이는 탕법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명대에는 청자 · 백자와 같은 자기(磁器)로 만든 호뿐만 아니라 자사(紫砂) 재질의 호 또한 유행했다.

자사니료(紫砂泥料)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중국 장쑤성(江蘇省) 의흥(宜興)에서만 채굴되는 독특한 광물질이다. 자사로는 항아리, 화분, 필통과 같은 문방구와 다호, 찻잔 등을 만든다. 그 중에서도 자사호가 가장 유명하다. 이것의 장점으로는 첫째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내기 때문에 통기성이 우수하며, 둘째 열전도율이 높고, 셋째 보온성이 뛰어난 것을 손꼽는다. 자사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호로서는 이상적인 재료로 평가 받는다.



옥란화판호(玉蘭花瓣壺). 시대빈작(時大彬作). 홍콩다구문물관 소장(香港茶具文物館 所藏). 높이 8cm. 바닥 지름 12.1cm.

의흥은 자사호 생산지로 회자되기 이전부터 명차(名茶) 생산지로 명성을 떨치던 곳이었다. 의흥은 당대(唐代) 행정명칭 양선현(陽羨縣)으로 불리던 때부터 '양선차(陽羨茶)' 생산지로 유명했다. 또한 '자순차(紫笋茶)'의 생산지로 유명한 장흥(長興)과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을 만큼 그 일대가 상등품의 차를 생산했던 곳이다. 현재까지도 차의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는 차의 명소이다.

명대 초기까지만 해도 의흥은 주로 항아리, 술 단지, 독과 같은 생활그릇을 만들던 곳이었다. 금사사(金沙寺)라는 절에 있던 한 승려가 처음으로 자사로 호를 만들기 시작했다. 금사사에 오(吳)씨 성을 가진 사람이 머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었던 공춘(供春)이 금사사 승려로부터 자사호 만드는 법을 익혔다. 공춘은 나무 진액을 갖고 자사호 모양을 흉내냈는데 이로 인해 공춘호는 울퉁불퉁한 나무껍질이 갈라진 모양을 갖게 됐다고 전해진다. 자사호 연원에 관한 설화는 여러 가지가 전해지지만 자사호는 이미 북송대부터 만들었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명 초기 자사호 제작체계와 도형체계를 정립한 인물은 시대빈(時大彬)이다. 그가 정립한 체계는 현대 자사호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활동 시기에 비로소 현재에도 사용되는 자사호 제작 도구가 정비됐고 물레를 사용하지 않는 제작법도 이때에 정착됐다.

시대빈의 호는 소산(少山)이며 가정(嘉靖, 1522~1566)에서 만력(萬歷, 1573~1619) 년간에 활동했던 의흥의 도공(陶工)이다. 당시 자사호의 사대가(四大家)로 동한(董翰), 조량(趙梁), 원창(元暢), 시붕(時鵬)을 꼽았는데 그는 시붕의 아들이다. 시대빈은 아버지로부터 자사호 제작기법을 익혔고, 초기에는 주로 크기가 큰 대호(大壺)를 만들었다. 시대빈은 한동안 루동(婁東 : 지금의 상해시 송강현) 일대에 머물면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했다. 그는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차의 품평과 토론으로 깨달은 바가 컸다고 전한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당시의 음다풍속에 적합한 작으면서도 넓고 납작한 호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자사호는 호의 뚜껑 · 몸통을 단단히 밀착시켜서 틈이 없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시에 그가 만든 자사호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의 이름을 따서 "시호(時壺)"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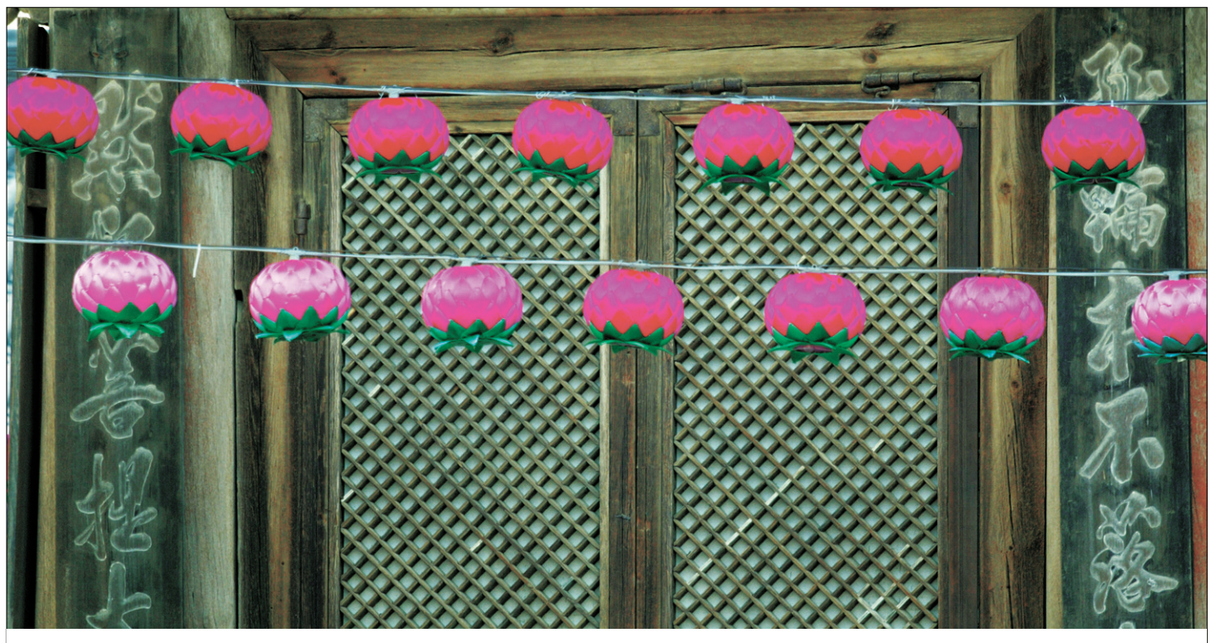
또 그의 호를 가리켜 "그의 손길 닿는 대로 천 가지의 기이함과 만 가지의 형상이 빚어진다(千奇萬狀信出手). 궁궐 안에서는 대빈의 호를 격찬한다(宮中艷說大彬壺)"라고 했다.

시대빈의 옥란화판호(玉蘭花瓣壺)는 자사호 윗부분의 즐기 모양을 한 뚜껑 손잡이에서 시작해 전체적으로 꽃 봉우리가 천천히 다호 뚜껑에서 다호의 목 · 다호 몸통 · 다리를 향해 펼쳐지고 있다. 다호의 주둥이 · 손잡이는 꽃줄기를 모방해 형상화한 것이며, 다호 내부 밑 부분까지도 호의 몸통과 연결해 여섯 장의 꽃잎 형태로 구성됐다. 호는 자갈색(紫褐色)이며 사질(砂質)이 은은하게 드러나면서 촉촉하고 맑고 매끈한 질감이다. 이는 시대빈의 조기(早期) 근문기형호(筋紋器形壺)의 대표작으로 호의 바닥에 '萬曆丁酉春時大彬制(만력 정유년 봄 시대빈 제작)'이라는 해서체 낙관이 있다. 현재 홍콩다구문물관에 소장돼 있다.

781호 제목과 본문 중의 '색 · 향기 · 미'는 '색향기미(色香氣味)'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39 빈자일등(貧者一燈)



등이 걸리기 시작했다. 법당에, 마당에, 거리에. 밤이 되면 어둠이 등불에 물들고, 등을 켠 이름들은 부처님을 기다린다. 곧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 시절, 가난했던 여인 난타는 하루 종일 모은 돈 한 푼으로 기름을 사서 부처님께 등을 올린다. 밤이 되자 난타의 등도 다른 등과 함께 어둠을 밝혔다. 밤이 깊어 아난이 모든 등의 불을 껐지만 아무리 힘껏 불어도 난타의 등은 꺼지지 않았다.

홀로 남은 난타의 등은 새벽까지도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마음씨와 지극정성으로 밝힌 등이다. 누구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가난한 모습의 여인이지만 훗날 수미등광여래가 될 것이다."

이제 등을 다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절,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수많은 등들이 모두 난타의 등이기를….

옛 판화의 세계

금을 그어 경지를 보이다 (普庵禪師)

송나라 보암 선사는 재해를 막고 질병을 물리치는 현세이익(現世利益)에 영험이 뛰어나 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삽화는 동자들이 시립하고 있는 가운데 불자(佛子)를 들고 위엄 있는 모습의 보암 선사를 판각했다.

보암(普庵, 1115~1169) 선사는 남송(南宋) 때 임제종(臨濟宗) 승려로 장시성(江西省) 원주(袁州) 출생이다. 목암법충(牧庵法忠)을 받들어 그의 법(法)을 계승했다. 남천산(南泉山) 보화사(普化寺)에서 지냈고, 좌선을 행하고 <화엄경>을 공부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재해를 예방하고 질병을 물리치는 현세이익(現世利益)의 영험이 뛰어나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항해하는 선박들은 배에 그의 존상(尊像)을 모셔서 안전을 빌었고, 일본 임제종에서는 불전 뒤쪽에 그의 위패를 안치하는 풍조가 있었다. 저서에는 <어록(語錄)> 3권이 있다.

보암 선사가 호주 · 상주 지방을 유각할 당시, 목암법충 선사를 대위산에서 만났다. 이때 스님이 물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에 법충 선사가 불자를 곧추세웠다.

스님은 마침내 깨닫고, "신령하고 묘하고 여여하여서 태허와 다르지 않네. 만물을 조화하면서 모서리 주석에 걸림돌 없네"라고 게송을 설했다.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에 알맞게 설법했고, 게송을 써주기도 했다. 병으로 앓는 사람이 있으면 풀을 꺾어서 약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받아먹은 사람은 병이 치유됐다. 이로 말미암아 먼 곳의 신도들이 돈을 기부하고 쌀을 보시했다.

가난한 사람은 울력으로 마음을 보여 절집을 크게 새로 지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낙성했다.

예나 지금이나 보시할 돈이 없는 신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힘을 보시해 절집을 크게 새로 지어 낙성했다"는 본문의 내용을 깊이 새겨 실천한다면, 보시로부터 생기는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보암 선사(普庵禪師).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여자전문대학 학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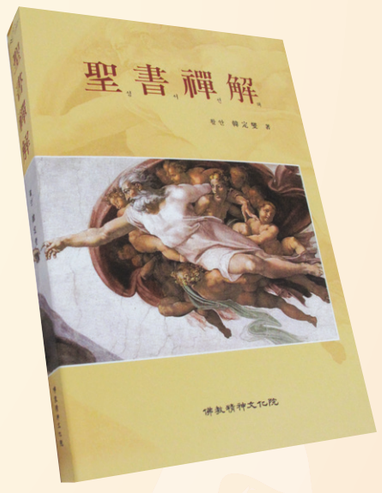
초발심자와 출가를 원하는 불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특히, 해외 포교 희망자와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환영합니다.

◈ 교육내용

	내 용
불교교리	① 경(아함 · 방등 · 반야 · 법화 · 열반 · 화엄경) ② 율(4분율 · 5분율 ·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 계율) ③ 논(구사 · 유식 · 3론 · 기신론) ④ 선(위빠사나 · 명상 · 선 실습) ⑤ 포교론(군법당 · 교도소 등) ⑥ 밀교
불교의식	① 조석예불 · 종성기도 ② 불공 · 시식 ③ 송주 · 장엄염불 · 방생법회 ④ 승무(천수바라 · 공양무 등)
기타 교양강좌	외국어(영어회화) 꽃꽂이 · 다도 · 등공예

◈ 모집기간 : 2010년 4월 15일 ~
◈ 개강일자 : 201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입학식
(입학식 후 금강경오가해 특강 - 불교TV 방송녹화)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목요일 오후 4시 (매주 12시간)
◈ 모집인원 : 약간명 (기숙사 완비)
◈ 강의장소 : 제천 금강사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 특 전 : 1년 ~ 2년 과정으로 포교사 · 전법사 자격증 획득
출가를 희망하는 분에게는 삭발 · 수계
◈ 교 수 : 활안 · 도기 · 정명스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각계 전문인들
◈ 문 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
제천 금강사 ☎ 043)646-3800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

성서선해(聖書禪解)



"진리는 하나이다. 그러나 현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로 이를 설명한다."
- 힌두성전 우파니샤드

불경과 성경이 다 같이 우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 두 성전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를 인간 지혜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해석했을 뿐이다.

"불경과 성경이 지난 수천년 동안 인류가 이에
의지하여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해왔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개척해 왔다"
- 성서선해 머리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께서는
기독교 성경을 선(禪)의 마음으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하셨다.

聖書禪解 · 편저: 활안 한정섭 / 발행처 : 불교정신문화원 / 318쪽 / 가격 : 15,000원

· 구입문의 : 02)969-2410 / 010-5611-0657



대행 스님

일초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인등입니다



그림 · 최주현

어떤 마음으로 등불을 밝혀야 하는지요

문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사찰에서도 갖가지 등을 만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등불을 밝혀야 하는지요?

답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월 팔일이 돼서 모두 등을 쫙 켜 놨습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애를 낳게 해 달라고 젊은 보살들이 등을 켜 놓기도 하고 그렇게 수천 명이 등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등불은 등불이로되 등불이 하나도 없구나."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구석 끄트머리에 가난한 어느 농부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찢어지게 어려워서, 남들은 눈에 빠진 버선을 벗고 새 양말을 신을 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어려워서 눈에 빠져서 젖은 그 시꺼먼 거를 벗고는 맨발로 그냥 시뻘개 가지고 등도 살 돈이 없어서 초 하나만 사 들고 온 거를 종이짝으로 둘러놓고는 글쎄 거기다가 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스님이 "허허! 아무리 비가 오고 뇌성벽력이 치고 아무리 눈보라가 친다 하더라도 저 불은 꺼지지 않느니라." 그랬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인등을 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즉 내 마음의 인등입니다.

여러분이 촛불 켜는 게 불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인등을 켜야 됩니다. '인등'이라는 것이 무슨 요만한 그릇에다가 꼬리표나 해서 붙이고 불 켜는 게 인등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일 초도 떠나지 않고 이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인등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불을 켜고 진실하게 스승을 따르고, 진실하게 자기 주인공을 믿음으로써 일체제불, 일체 보살이, 천백억 화신이 다 한자리에 한꺼번에 찰나에 들고 나신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그것은 공덕을 받을 수가 없거니와 남을 업신여기거나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아픈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굶주린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는 못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이러한 마음을 가져도 절대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가 전자에 몰랐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아픈 사람을 봤을 때는 '내 아픔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픈 남의 자녀들을 보더라도 주인공에다 딱 집어서 '아, 내 주인공하고 둘이 아니니까, 주인공만이 쟤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차차차차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촛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때문에 말을 좋게 하니까 향기가 나고 마음의 향을 피울 수가 있죠. 또 마음이 참 좋아서 웃으면 웃는 대로 그것이 바로 저 고요한 달밤에 달이 떠서 모든 데를 밝혀 주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자비의 웃음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낮에도 구름이 가리워져서 해가 보이지 않으면, 저 해도 검은 구름이 끼면 해가 비치지 않듯이, 인간으로 치면 인간의 마음도 우울하게 검은 구름이 끼면 밝은 마음이 바깥으로도 풍기지 않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질 않죠. 그러니 내가 밝은 마음으로 모든 걸 돌려놓으면서 사는 이것이 그대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초파일에 다는 등도 그렇게 내 안의 불을 켜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 흐르는 대로 살고 싶어요

문 스님, 물 흐르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지나간 일은 아쉬운 마음에 왜 그랬을까 싶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냥 무심으로 살고 싶은데 이런 저런 생각들이 붙어 돌아가니 갑갑하기만 합니다.

답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빈 컵을 내려놨다, 그럼 이건 지나간 겁니다. 과거예요. 이건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끊어진 자리라 그랬습니다. 간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컵을 놨다. 앞으로 먹을 거를, 오는 거를 생각지 않죠. 내가 목말라야 먹을 생각이 나는 거지, 목도 안 마른데 미리 '아, 내가 목마르면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진 자리예요, 본래! 누가 끊어라 말아라 할 게 없이 앞뒤가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지금 이 먹은 컵을 비켜 놓고선 생각지 않았는데 앞뒤가 다 끊어진 자리에서 내가 목마르면 이렇게 먹는다. 이것도 계획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목이 마르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대로 무심이요, 그대로 공이요, 그대로 했으나 먹은 사이가 없이 그대로 먹었다 이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 아주 무겁고 어렵고 길게 생각을 늘여 놓지 마세요.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밥 먹고 똥마려우면 똥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목마르면 물 먹고 내가 할 일 있으면 그냥 하고, 이러는 것이 그대로, 그대로 바로 무심의 행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되풀이해서 '이게 뭔가?' 하고, 오는 거 족족 '뭔가?' 하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뒤에 간 것도 뭔가, 앞에 올 것도 뭔가, 이게 보이는 것도 뭔가, 내가 물 먹는 것도 뭔가, 이러고 가다가는 십 년 걸려도 안되고 이십 년 걸려도 안됩니다. 물을 먹었으면 컵을 비켜 놓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목마르면 그냥 물 먹으면 됐지, 앞으로 목마를 테니까 물 먹게끔 '내가 목마르면 물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몸이 아파도 조절을 못합니다. 우선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도 방편이지만, 마음의 주인이 이 모든 것을 형성시키고 이렇게 했어도 모든 것이 실답지 않게 돼 있는 물질이니까, 모든 게 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자 공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공했으니 그 주인공에 몰락 놔 버리고, 일임해 버리고 바로 믿고, 자기가 공하고 자기가 부처라는 걸 믿고 딱 놔 버려라 이겁니다. 다! 믿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겁니다. 배고픈데 밥 먹었으면 감사해야죠. 자기 원소 자체에다가. 원소 자체가 있으면서도, 내공이 있으면서도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내가 그러려니. 팔자 운명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엔.' 하고 생각들 하지 말라 이 소립니다. 팔자 운명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팔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팔자가 있는 것이고 팔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팔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북쪽으로 가면 걸리지, 삼살방이 들었지, 이러면 삼살방이 걸린 거죠. 자기 마음에서 걸렸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사방이 툭 터졌는데 그건 왜 툭 터졌다고 하느냐? 내 마음이라는 원소 자체는 체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바깥으로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마음이 올라가 보세요. 걸릴 게 뭐 있나? 한번 올려 보세요, 마음을. 동쪽으로 가도 걸리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걸리지 않고 남북으로 가도 걸리질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지구 바깥으로 올라가도 걸리질 않고. 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 도리를 알아야 정확하게 산도 물도 그렇게 내 주먹 안에 다 들어 있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26면으로 계속

47기 기치유 수련생 모집
본원은 수기요법이 아닌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 합니다

기치유는...
1. 항상 피로하고 금방 지치고 피곤해 진다
2.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
3. 차고 시리다. 어름이 달라 붙어 있는것 같다.
4. 뼛속까지 시리다.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다.
5. 외출이 어렵고 바람이 닿아도 견딜 수 없다.
6.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온다
7. 명치나 가슴에 뭐가 걸린것 같다.
8. 상체로 기가 몰리는 것 같다.
9. 소화가 안된다.
10. 여기저기 아픈곳이 많다.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지 않는 증상들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활동, 근육활동, 소화작용, 생체 리듬에 필요한 기운을 아픈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힘이드는 것이다. 기치유는 그럴때 몸이 아픈곳에 치유에너지(기운)를 넣어주면 치유활동이 활발해져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 : 양성반 47기 개강
◆ 수련일자 : 2010년 5월 12일(수요일)
◆ 시 간 : 오후 7:00~9:20(주1회 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대구 : 기치유 수련반 수시모집 문의 : 053-652-2202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자기가 부처라는 걸 믿고 딱! 놔 버리세요

☞25면에서 계속

이 마음 도리를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저를 피하기만 합니다

문 저는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어머니로서 관심을 갖는다는 게 너무 심한 간섭을 하게 되나 봅니다. 때로 뜻대로 안되면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윽박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를 보고 피하기만 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답 사실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많을 줄 압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뛰쳐나간다든가, 속을 썩인다든가 공부를 못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에이, 요놈 자식아,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해야지, 너는 쪽박을 차려고 그러느냐. 뭐를 해서 벌어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욕을 해 대고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부부지간도 그렇죠. 네 탓 내 탓 하면서 그냥 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갈 뿐만 아니라 그게 해결이 나질 않아요. 화목할 수가 없게 되죠. 나중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보기 싫어지니까.

자식도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것이 전기로 치면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부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마음과 육체가 더불어 같이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육신과 마음이 말입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그럼 애들과 어른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많죠? 윗사람 섬기고 아랫사람 이끌어 가기가 힘들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시대에는 아마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공부가 그런 데도 쓰이는 거죠. 그런 데뿐만 아니죠.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좀 발전을 해라, 실천하고 체험을 해 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주인공에다가 스위치를 누른다면, 즉 입력을 한다면 자식의 마음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자식에게까지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고장난 거지 껍데기인 육체가 그냥 허수아비 모양으로 뛰어 달아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차츰차츰 나가는 일이 없어지면서 "엄마, 내가 왜 그렇게 엄마 속을 썩였지?"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지금 모두 깡패가 생겼다고 야단법석들을 하고, 뭐 두들겨맞고 피를 흘리고 이러니 학교 못 보내겠다고 야단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관하는 것만 가르쳐 줬더라면 모든 거를 대치를 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인생살이가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형국인데 이 모든 거를 거기다가 입력하듯이 맡겨 놓는다면 마음도 편안할 것을, 속에서 불화가 치민다고 내던지고 악을 쓰고 부아를 자기가 돋우니까, 살얼음판을 딛고 가다가 거기다가 모닥불을 놓는 셈이거든요, 빨리 빠지게. 그리고 또 불화가 나서 팽개치고 내던지고 그러다 보면, 이건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냥 한 대 쥐어박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냥 죽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냐 하면 그 물건에 살얼음이 그냥 깨져요. 깨져서 그냥 물에 텀벙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날 살리라고 허덕이면서 어떻게든 비대발괄을 해서 나오게 되면 한번 빠졌던 그 문제들로 인해 얼마나 진퇴양난에 처하는지 모르죠. 그래 가지고 자기 몸 병들죠, 재산 없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살이가 그렇답니다.

흔히들 육신은 배로 비유를 하고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 배에 타고 가는 중생들로. 그리고 그 주처의 중심은 바로 선장으로 비유하고요, 주인공은. 그런데 그 중생들이 만약에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하고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면 그 배는 뒤집히고 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저 내 마음의 선장한테 모든 거를 맡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는 데까지 가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광선을 극복하려면…

문 요즘 세상에는 인공위성이나 컴퓨터에서 광선 같은 게 나오는데 그 광선이 인간한테 굉장히 해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선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인간들한테 해롭게 만드는 광선도 있는데 그런 광선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는지요?

답 그것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예를 들어 강도가 있는데 내가 강도가 돼 준다면 강도도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자기 손가락 하나가 제 손가락을 자를 수가 없죠. 그렇듯이 어떠한 게 나를 파괴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물질이 되니까. 내가 그 물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물질이 될 수 있어서 그 물질의 독을 다 제거하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무한량입니다. 마음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마음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천차만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또는 보이지 않는 데를 내가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이렇게 굴릴 수 없고 이런다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이 공부 하는 데서 다 표출해 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들도 자기 자체가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이겁니다. 우연히도 없고 누가 행복한 걸 뺏어가는 것도 없고 누가 뺏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해서 자기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 차원을 높이면 높이는 대로 그 차원으로 이끌어서 내가 동등해지니까 그것을 대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차원이 낮으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대 볼 때 아주 차원이 낮으니까 거기에 대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거는 무사히 대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우리는 지금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 지금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그렇게 상세계가 있고 중세계가 있고 하세계가 있고 천당 지옥이 있고,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생각을 해서 우리가 우주를 빛보다 더 빨리 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그것은 목마를 때에 네가 목마르면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르면 먹을 수 있어야 도니라.

이랬던 거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필요한 걸 가질 수도 없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차원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태양이 팽창되게 될 때 내가 태양이 된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며, 또는 축소될 때 내가 태양이 된다면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그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의 공부, 천차만별의 마음의 공부 즉, 심성의학일 수도 있고 심성과학일 수도 있고, 심성천체물리학일 수도 있고 심성철학일 수도 있고, 이 심성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성세계 즉,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합류화돼서 자신이 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문 저는 제가 생각해 봐도 참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친구들 한테 만날 얻어먹기만 했지 제가 뭔가를 주거나 베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 제 모습이 조금씩 보이네요. 스님, 저도 이제 받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스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답 나도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힘든 모습을 보면 나도 슬프고 찢어지는 듯 아프니까. 왜? 둘이 아닌 까닭이죠. 부처님께서 그 인생을, 수없이 진화돼서 형성되는 그 돌아가는 수레를 다 뼈 한 무더기로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니 멀리 봐도, 가깝게 봐도 삼천 년 전도 현실인데 현실에 다 내 부모였고 내 자식이었고 내 형제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남으로 보겠습니까? 깨치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아주 좋게 금을 감고 호위호식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만 즐거운 건 사실이죠. 왜냐? 예를 들어서 막상 가난한 사람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쓴다 이럴 때,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병원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럴 때, 그게 상황대로지 어떻게 골라가면서 합니까. 상황대로지. 그렇게 주고 나면 그렇게 싱그럽고 좋을 수가 없어요. 주는 것밖엔 좋은 거 없습니다.

세상에 남의 걸 달래서 먹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항상 얻어먹어야 되고 남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항상 주면서 살게 됩니다. 그 한생각이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도 실천을 해 보세요. 주면서 살아야겠다 한다면 주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얻어서 꼭 살아야지, 얻을 데도 많은데.' 이러면 꼭 얻어서 살게 되죠. 부처님의 밥도 말입니다, 저 부처님의 공양 밥도 그거를 얻어먹는 걸로 먹어선 안 됩니다. 내 밥 내가 먹을 줄을 알아야지요. 그래야 내가 자유스럽게 남도 퍼 주고 살잖아요. 남의 밥을 얻어먹는다 하면은 어떻게 밥 한 숟가락 남을 줄 수 있겠어요? 내 밥이라야 맘대로 퍼 주지. 내가 못 먹더라도 퍼 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길에 가다가도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 보면 한생각 내주고 돈을 주더러라도 그냥 줄 뿐이지, 뒷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걸 줬으니까 좋은 일을 했지, 이런 생각도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줬다고 하겠습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집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문 저의 집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주인공에 맡겨도 진전이 없는데다 주변에서는 굿이라도 해 보라고 권하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답 내가 딴 사람 같으면요, 뭘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하겠지만 난 그러고 싶질 않아요. 좀 편리하게 살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몰아서 그냥 저 용광로에다 집어넣듯이 진짜로 믿고 주인공에다 그냥 탁 놔 버려요, 타 버리게.

그렇게 하시고 '주인공 당신만이 이걸 지도해 주고 이끌어 주실 수 있고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자꾸 관하세요. 댁의 마음이 진정코 진실하다면 그건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몸에서 생길 수도 있고 타의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영계성에서 생길 수도 있고 유전성에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거를 다 없애려면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몽땅 쥐어서 몽땅 놓아야죠. 그거는 이 공부를 유년 하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누구든지 하지는 못해요, 그건.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전부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깐 그냥 몽땅 놓으면 그게 다 해결이 난다는 걸 굳게 믿고 다 그냥 놔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뭘 차려 놓고 두들기고 그런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과감히 그냥 거기다가 놓으세요. 본인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본인이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제삼자가 해주세요. 저 사람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연이 있으니까 끼리끼리 만난 거지.' 하고 그냥 거기까지 관해 주시면 제삼자까지 불이 들어와서 마음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가 고장이 나도 운전수가 고쳐야 하고 더러워도 닦아야 하고 어디 부속이 빠져도 껴야 하고 늙어서 못쓰게 되면 폐차를 시켜야 하고 이런 것이지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데 생각에 의해서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같이 공생으로 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불을 켜고 진실하게 주인공을 믿음으로써
일체 제불, 일체 보살이 다 한 찰나에 들고 나십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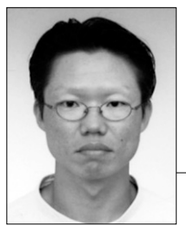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불자 세상보기

윤남진
종교자유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강의석 판결과 교육의 다양성

지난 2004년 6월 16일 당시 고교 3학년이던 강의석군이 공개적으로 학교에서의 의무예배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때로부터 6년 만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우선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내용을 예시하였다.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고려와 판단의 결과 대광학원이 시행한 종교교육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원고(강의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즉, 종립학교에서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아니라 특정 종교나 종파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학생(학부모)들에게 성실히 동의를 구하고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배타적 행위는 상식적 수준의 동의를 수반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의미로 읽힌다.

인류사에서 종교는 사회공동체 윤리의 바탕이자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석자 역할을 해왔고,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종교는 사회갈등과 대립, 나아가 인권 유린의 어두운 역사도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실시간으로 수많은 인류에게 메시지를 발화하고 있다. 이런 지구적 차원의 변화를 감안할 때에 사랑 · 자비 · 친절 · 연민 · 관용과 같은 인류의 종교적 심성을 풍성히 하기 위한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시민사회 등 모든 공공영역에서 시민적 덕성의 바탕이 되는 종교적 심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에 기반한 다양한 종교가 꽃필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작은 문전옥답을 두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급급한 소아적 태도가 종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양산하고, 그로 인해 더욱더 날카로운 종교적 배타행위를 자극해온 악순환을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뼈저리게 학습하고 있지 않은가!

끝으로 불교계가 시급히 준비해야 할 과제도 있다. 금번 판결을 대하는 또 다른 입장들 속에는 교육평준화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육 다양성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들의 10%정도가 학교에 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으며, 20%정도는 인터넷으로 학습한다.

우리나라도 2005년 '대안교육법'이 시행되어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설립되고 있다. 현재 인가받은 대안학교들 가운데 원불교 재단 학교가 7개이고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8개라고 한다. 기존의 학교교육은 인터넷 등 지구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교육과 사회교육 전반의 대응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미래는 지혜로운 예측을 토대로 알차게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기고] 어버이날을 앞에 두고

자식 앞에 흘린 어머니의 눈물

혜암 스님 (포천 정혜사)

선가에 귀의한 사문(沙門)이기 전에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자식 사랑의 애틋한 유정세월이 불효자의 마음에 사무치어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한에 젖는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59년도의 일이다. 당시는 모두가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었지만 우리집은 더 어려웠던 것 같다. 동인천역 앞의 고갯길을 지나 20분쯤 남쪽으로 걸어가면 판자촌이 있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한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신문지로 바른 벽과 판자때기로 이은 방바닥은 빈대들의 낙원이었고, 우리는 이들에게 가난의 대가로 피를 헌혈하며 살았다.

나는 졸업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하여 전학할 수가 없어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매일 20분을 걸어 나와서 6시 10분에 출발하는 서울행 열차를 타야 했다. 끼니마저 잇기 어려웠던 우리 집에는 시계가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동쪽 새벽의 큰 별(금성)을 보시고서 밥을 지을 시간을 짐작하셨는데, 한번도 나를 지각시키지 않으셨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비바람이 치나 눈보라가 치나 늘 나를 동인천역까지 바라다 주셨다. 어느 때인가는 가난이 지나쳐 기차회수권을 사지 못해 얼마 동안 도둑열차를 타고 다녀야 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철이 아니었으며 차내에서도 검표를 했다.

회수권이 없는 나는 검표관문(갈 때 세 번, 올 때 세 번)을 무사히 통과해야 그날의 학교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의무교육시대가 아니었기에 돈이 없으면 초등학교도 보내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나를 1년간(5학년 때) 학교에 보내지 못했던 안쓰러움을 떠올리며 차라리 도둑열차라도 태워보내야 하는 죄책감도 붙잡아매어야 했던 어머니였다.

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역 대합실까지 오면 나는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인사를 마치고 기차손님들 틈으로 용케 빠져나가서는 열차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그러면 역의 철조망 너머 가로등 밑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힘없이 서계시는 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처량하게 보였겠지만 나에게는 그 모습이 둘도 없는 보금자리였으며 바라만 보아도 좋았다. 열차가 떠나면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나도 열심히 손을 흔드는 동안 마침내 어머니는 조그마한 점으로 사라지고, 나는 그제야 흔들던 손을 내리고 또 다음의 관문 통과를 생각하곤 했다.

내가 이렇게 부조리한 등하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어느 날,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엄마, 나는 개찰구를 빠져 달아나는 게 참 재미나요. 검표아저씨는 내가 어른들 틈으로 재빠르게 달아나면 '저놈이, 저놈이' 하면서도 맨날 붙잡지도 않아요. 그리고 차 안에서 검표아저씨가 올 때면 재빨리 의자 밑으로 숨어들지요. 그러면 검표아저씨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니 아저씨가 얼마나 바보예요? 그렇죠? 크크."

자랑삼아했던 나의 말을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셨다.

"오냐, 네가 그렇게 잘 빠져 나가고 잘 숨으니 참으로 용하구나. 장하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나였는데, 어머니의 얼굴은 나의 기대에 너무도 어긋나 있었다. 울컥,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다.

하염없이 흐느끼시던 그때의 어머니를 나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 눈이 쾡하니 파이시고 뼈만 남으신 그때의 어머니 얼굴과 그 눈물이 잊히지 않는다. 너무도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뇌리에 박혀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때 그 시절은 무척이나 허기졌던 시절이었다. 사탕하나 훔쳐 먹다 들켜 아버지 앞에 끌려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도 모른다. 아침에 강냉이 죽을 먹으면 온종일 저녁까지 버텨야했던 가난이었다. 점심도시락도 못 챙겨 보내면서 차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삶이 너무도 서러웠을 어머니.

차표도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어린 자식을 볼 때마다 그 여위신 가슴은 얼마나 쿵쾅거렸을까? 열차가 떠날 때마다 어린 것이 열차에서 들켜 맞으며 울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 어머니의 눈시울은 얼마나 붉어지셨을까? 어린 자식에게 떳떳치 못한 생활을 익히게 하는 부모로서의 죄의식에 어머니는 온 몸을 떠셨을 것임에 틀림없다.

생각하면 그때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 것이 그때의 그 눈물뿐이었을까? 매일 마다 숨겨야 했던 눈물이 나의 철없는 소리에 터지고만 눈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 설

승가교육 개혁, 입보다 귀가 미덕이다

조계종 승가교육 개혁을 위한 대장정이 뜻하지 않게 큰 고비에 처했다. 30일 교육원이 주최해 열린 '승가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우여곡절 끝에 열리기는 했으나, 강원의 교직자들이 불참함으로써 반쪽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 교육원과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가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강원교직자연합회는 공청회가 열리기 20분 전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늘 공청회는 강원 교직자의 참여와 소통 없이 교육원 일방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요식행사에 불과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몰아붙이기식 학사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교직자연합회의 한 스님은 "교육원은 이미 교직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말로 불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육원은 "이미 수차례의 회의와 연석간담회를 진행했고, 공청회 이후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한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2차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강원교직자연합회와 교육원의 입장을 들어보면, 신뢰의 부족이 현재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계종을 주시하고 있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동화사 주지후보 선출 후의 모습도 깔끔하지 않다. 더구나 곧 부처님오신날이다.

교육원과 강원교직자연합회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무의미하다. 신뢰가 없는 가운데서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고 비판을 하면 실타래는 더욱 꼬인다. 주장을 하되 듣는 귀를 더욱 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침묵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묻히고 만 것인가.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논란 와중에서 밝혀진 안상수 원내대표의 불교 자주성 침해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정치인은 말은 곧 정치행위다. 조계종의 사찰주지 인사를 언급한 것도 적절치 않거니와, 한 종단의 대표에 대한 예의에도 벗어난다. 좌파 운운하는 편향적인 태도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권위와 품위에도 영 어울리지 않는다. 불교인은 물론 선량한 국민들에게 정치의 밑바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실망스럽다. 안 원내대표의 묵묵부답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옳지 않다.

여러 불교단체의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안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처음에는 명진 스님조차 모른다고 했다가 안 원내대표 지역구에 있는 연주암 행사에 명진 스님과 함께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어 체면을 구겼다.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스님들의 방문조차 거부했다.

엎질러진 물은 퍼담을 수 없다. 그러나 걸레질을 해서 더 이상 얼룩이 번져가지 않도록 하지 않는가. 안 원내대표가 끝내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침묵하면서 시간을 끌면 유야무야된다고 보기 때문인가. 안 원내대표가 무책임한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회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교육기간 :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대구교육원 053-566-1116
부산교육원 051-636-2972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광주교육원 062-672-5432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법당 앰프
PWA-110 320×230×270mm...8.5kg
PWA-730 430×275×275mm...4kg
PWA-3000 200×480×230mm...11kg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역사를 잃어버린 곳에서 내일을 그리다

퇴촌 천진암에서





앵자봉이 보이는 산 중턱을 뭉텅 잘라내어 성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 성인묘는 철골로 세운 홍살문 오른쪽 뒤편 산 너머에 있다(위).
천진암 법당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모셔진 다섯 성인의 묘.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천주교계에 역사 왜곡 일침

천주교계의 천진암 성역화 작업 속에 파시즘 악령 느껴

도대체 날씨가 왜 이럴까요. 이젠 정말 '화창한 봄날'이라는 말은 흘러간 옛 물을 그리는 타령인가요. 4월 하순께라고는 하지만 워낙 변덕스러운 날씨에 강변의 벚꽃은 제 자랑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어정뜨게 잎만 남고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제대로 피지 못한 꽃잎은 허공에 흩어졌으니 열매는 또 제대로 맺힐까 적이 걱정됩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날씨 탓인지 몸이 영 매시근하여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고르지 않은 날 가운데 오늘이 그 중 괜찮은 날이라는 일기예보를 믿고 집을 나섰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묵지근하여 꼭 심한 몸살을 앓는듯합니다. 따로 마음이 개운치 않은 까닭은 내가 찾아가려는 곳이 바로 천진암이기 때문입니다. 1993년 말쯤 천진암에 가봤으니 얼추 스무 해가 되어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곳에 대한 기억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이곳을 둘러싸고 역사를 잃은 집단의 서글픔과 역사를 꾸미려는 집단의 엄청난 횡포가 체증처럼 걸려서 그렇습니다.

한국문화유산답사회(대표 유홍준)가 엮고 도서출판 돌베개가 1996년 펴낸 <답사여행의 길잡이 7-경기남부와 남한강>의 천진암 관련 부분을 보면, 이 절은 한때 300여 명의 스님이 수행하던 거찰이라고 합니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절을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유생들의 은거 도피처로 내주고 10여 명의 스님이 지키고 있다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이곳에서 천주학을 공부했던 최창현 · 정약종 · 이승훈 등이 모두 참수되는데, 이때 그 10여 명의 스님도 참수되고 이곳은 폐사가 된듯하다고 적었습니다. 글쎄 어디서 이런 기록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무려 300여 명의 스님이 있었다니…. 그러면 경기도 북쪽의 양주 땅 회암사에 버금가는 큰 도량이 이곳, 앵자봉으로 막혀 길도 끊어진 경기도 남쪽 광주 땅에 있었단 말이 되네요. 아쉽게도 이 책에는 그 역사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더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믿고, 그리 큰 도량이 절터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고, 그 사라진 도량의 대웅전쯤 되는 자리에 한국천주교 창립 선조로 추앙받는 다섯 성인의 묘를 썼습니다. 묘를 바라보니 왼쪽부터 정약종 · 이승훈 · 이벽 · 권일신 · 권철신을 모셨습니다.

한국천주교는 선교사의 인도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경전 공부하고 스스로 신앙공동체를 형성한, 세계 기독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교단입니다. 이 교단의 발상지가 천진암이라고 주장한 이는 천주교 수원교구의 변기영 신부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집요하게 역사를 추적한 변 신부의 공로로 이곳이 발상지로 확정되었고, 마침내 교황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전 세계 천주교 신자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천진암성당 건립 100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979년부터 이 일대의 산을 사들이기 시작하여 현재 100만㎡의 임야를 확보하였습니다. 2079년에 한국천주교창립 300주년 되는 해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그 성당의 규모는 월드컵축구장과 맞먹습니다. 좌우지간 이 성당 건립 계획만 보아도 입이 쩍 벌어집니다.

이 성당 건립을 추진하는 건립위원회에서 발간한 안내책자에는 천진암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진암은 본래 단군 영정 천진을 모시고 산제사 · 당산제 · 산신제 등을 올리던 천진각 혹은 천진당이라는 작은 초가 당집이 오랜 세월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며, 훗날 천진암이 되어 1779년을 전후하여 폐찰이 되었으니, 정약용 선생의 글에 '천진암은 다 허물어져 옛 모습이 하나도 없다' 하였고, 1797년 정사년 당시 홍영모의 남한지에서는, '천진암은 오래된 헌 절인데, 종이를 만드는 곳으로 쓰이다가 이제는 사옹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사찰로서의 기능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성 다블뤼 주교는 1850년 경, 젊은 선비들과 함께 이벽 선조께서 강학을 하던 곳은 쓰지 않는 폐찰이었다고 하였다."

앞서 답사여행 책에 소개된 글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앞서 글대로라면 한국천주교는 태생부터 한국불교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건립위원회가 주장하는 글대로라면 폐찰에 모여 천주학을 공부하였으니 불교계에는 전혀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법당 자리에 다섯 성인의 묘를 써도 어떠한 가책이 있을 리 없지요.

어디를 보아도 천진암에 대한 한국불교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소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선조 말 천인으로 구박받던 승려이니 천주학쟁이를 도와주었다가 참수형을 당했다 하여도 기록은 없을 겁니다. 대신 그때 그곳에 모여 공부하던 이들은 양반의 자식들이니 뭐 뒤져보면 그럴 듯한 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도 우리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목민관 다산 정약용의 기록까지 있다니 이곳이 한국천주교 발상지라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요. 역사를 남기지 못한 그 과보가 어떠한지는 천진암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다산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다산연구소의 이사장 박석무씨는 1984년 '정약용, 그의 시대와 사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어 1988년 봄 <다산기행>(한길사 간행)에 이 논문을 실어 거듭 한국천주교의 역사꾸미기를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박 이사장의 글에 대해 한국천주교는 20년이 넘도록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거짓말이 들통 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그저 나 모르쇠로 입 다물고 있는 형국이 연상됩니다.

박 이사장은 더욱 호되게 몰아칩니다. "억울하게 18년의 귀양살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다산이 4년 뒤에 저술한 자신의 일대기인 '자찬묘지명'이나 '권철신묘지명' '정약전묘지명'은 그 저술 목적이 그들의 일생의 업적을 밝히려는 뜻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나 권철신 및 정약전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고, 정치적 당파싸움에 몰려 억울하게 탄압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을 밝히려는 글"이라고 똑 부러지게 말합니다. 그때 이들이 공부한 '경학'은 사서오경이지 '성경'이 아닌데도 천주교가 억지춘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합니다. 다산은 권철신이 주도한 경학공부모임이 을사년(1785년)의 천주교 사건 때문에 다시는 가질 수 없어 애석해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덧붙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기록을 인용하거나, 새로 찾아낸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모르지만 다산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그곳이 천주교 발상지라고 한다면, 다산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둡니다."

나는 천진암에 앉아 우리 속에 파고드는 파시즘의 악령을 느낍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역사 꾸미기도 집단의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시비곡절을 따지는 짓은 집단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집단의 강고한 결집을 위해 사실도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국가 · 민족 · 안보 · 애국의 광풍이 모든 가치를 덮어 버리고 있습니다. 불교 권익을 내세워 교단의 민주화 · 자주화 요구는 '분열'로 몰아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천진암을 성역화하는 데 헤살을 부리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역화에 밀려 역사를 적당히 각색하고 조선시대 사옹원의 분원이던 관요지가 성당 건립부지 토목사업으로 그냥 묻혔고, 부지를 사들인다고 1990년대 들어 쫓아내다시피 그곳을 떠나게 한 비구니스님 등의 문제를 천주교 신자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동석 前 민불련 회장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연잎 찰밥 | 햇차 판매 | 제다 실습 | 차문화 연수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많은 5월,
무안 회산백련지 인근에서 생산된
연잎으로 정성껏 싼
연잎찰밥을 대접하세요.

연잎찰밥 10개 30,000원 냉동포장
제조원 : 일로농협
판매원 : 초의차사업단

● 차씨를 무료로 드립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4F에서
무료시음 및 차씨 보급 행사를 합니다.
(4월 15일부터~5월 31일)
※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070-4107-8654

2010년 봄 햇차 판매



▲초의신다

이른 봄
어린 찻잎 중에서도 좋은 찻잎만을
부처님 모시듯 고르고 골라 만든
초의신다!
특허출원과 함께 세계녹차콘테스트
"최고금상"을 수상 했습니다.

"다성초의차 신다 햇차 판매 합니다."
초의신다 100g 100,000원

"초의신다의 정통 제다법으로 만든 다성초의차를 출시하였습니다."
다성초의차
우전 70,000원 세작 50,000원 중작 30,000원

차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 제다실습
· 차잎따기
· 차의 종류와 제다법 특강
· 제다실습 및 심사평가

● 실습 茶 종류
2010 햇차(녹차) · 청차 · 황차
보이차 · 떡차 제다실습

※ 단체 · 개인 모두 접수 가능하며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다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 실습비 : 1인 1만원, 차잎 1kg당 1만원~2만원
숙박비무료
※ 스님들께는 제다실습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차문화연수

초의선사 행다법
한국의 차문화사
차의 정신, 다도관
한국전통 행다법의 역사와 방법
초의선사 헌다의식

차에 관한 내용으로 석용운스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 단체만 신청 가능하며 단체일정에 따라 원하는 내용의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수비용 1인 1박 2일 2만원~3만원.
※ 초의선사(전남 무안군)에서는 연중 무휴로 차문화 견학 및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7-55-000018 (사)초의학술문화원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 후원 : 무안군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조선차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차문화특강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